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2 호

6 월 30 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2호 (34)

1949년6월30일

내 용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영웅적 무력에 의하여 조선인민이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의 기반에서 해방된 八•一五 四주년을 우리는 머지않아 맞이하게된다。

오늘 국제정세는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수억만 인민의 우렁찬 목소리가 파리 평화옹호 세계대회의 력사적 승리로써 더욱 강력히 울리우고있으며 국제 민주력량이 날로 거대한 장성을 보이고있는것으로 특징된다。 반면에 반 민주주의적 국제반동세력은 약화와 몰락의 일로를 걷고있다。 그것은 최근 중국에서、 독일에서、 희랍에서 국제반동의 침략정책이 여지없이 파탄되면서 있는것으로 실증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조국의 자유와 통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단결된 민수력량이 미제국주의자의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의 최후 명맥을 겨누는 결정적 승리의 단계에로 들어서고있다。

그러나 해방된지 이미 四개성상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인민이 일일천추로 념원하는 국로완정과 조국통일은 달성되지 못하고 국토는 三八선을 경계로 량단된채 우리민족의 자주적 존립과 발전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엄중한 민족적 위기는 아직 제거되지못하고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전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한 八•二五 총선거의 력사적 승리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된후 쏘베트동맹은 타민족의 자주권과 동등권을 존중시하는 레닌―쓰딸린적 대외정책의 원칙 위에서 북반부 지역에서 자기 군대를 완전철거한지 벌써 반년이 된다。

우리공화국은 쏘베트동맹을 위시로한 제민주국가와 외교 및 경제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세계자유애호민주국가들의 대렬에 동등권있는 일원으로 떳떳이 나서고있다。

우리민족은 단일한 언어와 공통적인 경제문화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는 단일한 민족이다。

특히 해방후 四년동안 북반부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에 의하여 달성한 인민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조국완전독립의 튼튼한 경제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수많은 민족간부가 준비되었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있는 조선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조선인민은 능히 자기국가를 관리하고 통치할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행복스러운 미래를 창조하며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할수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인민에게 완전자주독립의 제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조국을 식민지 예속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 탐욕을 버리지않고 아직도 우리 강토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어 류혈적 군사경찰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의 주구 리승만도당을 조종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의 산업을 파멸시키고 농촌경리를 총파탄시키며 남반부 인민들을 정치적 무권리의 노예상태에 얽어매고 빈궁、실업、기아、폭압、암흑이 지배하는 도탄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반부의 부원을 략탈하며 애국적 인민들을 대량으로 검거 탄압 학살하며 그들의 침략도구인 「유•엔 신조선위원단」을 우리강토에 끌어들여 가소로운 희극을 연출함으로써 그 침략정책을 공공연히 일층 로골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엄중한 민족적 위기에 직면하여 인민의 자유를 사랑하고 조국의 운명을 근심하며 자손만대의 행복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인민은 미군 즉시 철퇴와 리승만괴뢰「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민주발전을 위한 구국투쟁에 총궐기하였다。북반부 인민들은 장엄한 민주건설의 성과를 더욱 견고히하는 힘찬 증산투쟁으로、남반부인민들은 직접 손에 무기를 잡고 무장 구국투쟁으로써 거족적 투쟁에 총궐기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공급하여준 인민학살의 무기로써 리승만 도당이 애국적 인민에게 필사적 탄압을 하면 할수록 남반부 무장항쟁의 세력은 더욱 강고하여져 그 활동범위는 남반부 八도에 걸치고있다。이미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의 여러지구에는 해방구가 건설되어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조선인민의 거족적 구국투쟁에 당황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군철퇴」설을 떠들어대는 한편 전체 조선인민과 고립되어 오직 미군 총검의 비호 아래서만 자기의 여명을 보존할수있는 리승만매국도당으로하여금 미군의 계속주둔을 합법화시키기위한 온갖 매국적 흉계를 다하게하며 군사적 원조를 주어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케하고있다。

우리 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정치정세하에서 미군철퇴와 국토의 완정、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조선의 일체 애국적 력량을 총집결하여 공통한 투쟁강령밑에 전조선인민의 유일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가장 시기에 적합한 결정적 구국대책으로 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원하는 전조선의 애국적 력량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기치밑에 견고히 결속된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정견의 차이、신앙의 유무를 막론하고 로동자、농민、사무원、인테리、상인、기업가、종교인등 전조선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애국적 정당사회단체들의 거족적 통일전선이다。

이리하여 오늘 애국자와 매국노의 로선과 그 진영의 계선은 더욱 확연하여졌으며 조국과 인민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으려는 망국매족의 반동진영에 결속된것은 다만 한줌도 못되는 매국노 리승만도당뿐이다。

우리조국은 아직 량단되어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장애를 주며 우리조국의 장래발전과 우리민족의 장래에 심대한 위험을 주고 있다。이러한 시기에 있어 국토완정과 미군철퇴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애국적 정당사회단체들의 광범하고 견고한 전국적 통일전선은 우리민족의 민주주의적 자주독립 국가를 완성하며 우리조국의 부강한 민주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정치적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조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의 단순한 련합만이 아니라 인민주권의 사회—정치적 지주(支柱)로 되는것이다。 그는 그의 기초를 각계 각층의 인민속에 두었음으로 전조선인민의 유일한 사회—정치적 조직으로 민주력량을 더욱더 견고히 단결하여 민족적 중대한 당면과업인 미군철퇴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한다。

우리공화국이 선진국가를 따라가고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고상한 문화를 가진 부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함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 국가가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대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것이다。 그럼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인민의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방위하며 민주주의 평화애호 국가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을 동원시키는 위력있는 요인으로 된다。

또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반동세력을 소탕하며 민족경제의 락후성과 낡은 일제의 사상적 잔재를 숙청하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킴에 있어 거대한 역할을 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국가의 생산력 발전과 경제력 제고로써 인민대중의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민족적 자주성의 보장, 우리공화국의 국가적 독립과 령토적 완벽을 위하여 투쟁한다。

우리 조국에 조성된 현하의 정치정세하에서 국내외 원쑤들과의 가혹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길은 오직 위대한 쏘베트 인민과의 친선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기때문에 쏘베트동맹과의 영원불멸한 친선의 강화는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민주화의 강력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그럼으로 위대한 쏘베트동맹과의 친선관계를 일층 강화하며 제인민민주주의 국가 및 기타 자유애호국가들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새전쟁 도발자들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를 위한 국제적 협동을 강화하는 투쟁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선인민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북반부의 민주성과를 공고화하며 남반부에 있어서의 인민정권부활과 제반 민주개혁 실시를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을 동원하며 남조선 매국노들의 테로 학살정책을 반대하며 투옥

된 애국자들의 석방과 인민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투쟁할것이다。

해방후 북반부민주건설의 력사적 투쟁에서와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 있는 남반부 반동파의 투쟁에서 거대한 경험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장성된 강력한 남북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가장 영향력있는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있어서 능히 주도적 역활을 보장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당은 전당을 동원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화에 조직적 력량을 경주하여 조국의 운명을 승리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더욱 헌신적 투쟁을 가강히 할것이다。

우리당은 우당들과의 협조를 일층 강화하며 인민들과 중간 정당들과 우익 정당 당원들 속에서 우리당의 정치로선과 립장을 옳게 반영 제고함으로써 조선의 일체 애국적 력량을 통일전선 기치 밑에 더욱 튼튼히 결속시킬것이다。

오늘 조선인민이 나아갈길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곧 미군을 우리강토로부터 급속히 철퇴시키며 리승만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국토를 완정하여 우리조국을 민주주의 기초위에 통일시키며 조국의 부강한 민주발전을 위하여 전진하는 길이다。 이와같은 조선인민의 힘찬 새로운 전진은 이미 개시되었다。 조국이 통일되며 조국력사발전에 전변을 가져올 새 력사적 계단은 시작되었다。

우리민족의 민족적 영웅이며 절세의 애국자인 김일성장군의 령도 밑에 강력하고 유일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단결된 조선인민은 자기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쟁에 있어 반드시 승리자로 나설것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높은 당적 수준에서 전개하자

북조선 로동당 강원도당부 위원장 한 일 무

비판과 자기비판은 맑쓰—레닌당이 일상적으로 자기 사업에서 결점과 오유를 폭로하며 확고한 승리를 위한 거센 투쟁에 있어서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된다。 자기 사업에서 결점과 오유를 대담하게 폭로하며 그 결점과 오유를 퇴치하고 시정하며 더 높은 발전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써 비판과 자기비판을 사용할것을 레닌과 쓰딸린은 가르쳤다。

쓰딸린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오유를 우리 스스로 발로시키며 고치지않으면 안될것이 명백하지않은가? 또 이 오유들을 발로시키고 고칠 사람은 우리밖에 더 없는것은 명백하지않은가? 동무들 자기비판이 반드시 우리의 발전을 앞으로 전진시킬 하나의 중대한 힘으로 되어야할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라고 하였다。

레닌—쓰딸린이 지도하는 전동맹 볼쉐위끼공산당은 발전의 강력한 무기로되는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오랜 력사를 두고 단련되고 시련된 당으로서 오늘 전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유력한 정당으로 되였다。

볼쉐위끼당의 령도하에 쏘련의 로동자 농민은 지주와 자본가를 전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로상에서 온갖 반혁명과 반인민적 기회주의자와의 용감하고 원칙적이고 자기의 회생적 투쟁을 통하여 승리하였으며 제二차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멸망시키고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였을뿐만 아니라 파시스트 기반에서 신음하던 약소민족을 해방시키였으며 그의 독립을 보장하여 주었다。

볼쉐위끼당이 이러한 승리를 쟁취한것은 항상 비

판과 자기비판과의 불가분리적인 밀접한 련결을 가지고 투쟁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맑쓰—레닌당은 새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는 결점과 오유에 대하여 조금도 용서함이 없이 타협적이 아니라·원칙적이고 예리한 볼쉐위끼적 비판을 전개함으로써 과오를、제때에 옳게 시정하며 더 큰 성과를 쟁취한다。

로동계급의 진정한 혁명적 당의 자기의 결점과 과오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과 자기비판의 태도는 그의 정치적 성숙과 자기의 지도적·역할을 완수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레닌은 일찌기 「오유를 솔직히 인정하며 그 원인을 구명하며 오유를 알으킨사정을 분석하며 오유를 정정할 수단을 연구하는 것—이것이 진실성있는 당의 표지이며 당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것이며 이것이 계급의 그리고 또 대중의 교육과 훈련이 되는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맑쓰—레닌당은 비판과 자기비판이 없이는 부패성과 침체성이 뿌리를 박게되며 전진운동이 없다는것을 기본으로 삼기때문에 당지도자들과 대개당원들이 자기사업에서 존재하는 적은 과오라 할찌라도 이를 폭로하며 비판하는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만일 당이 자기 과오들을 은폐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지 않고 자기도취에 빠진다면 멸망하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당내에 있어서、찌도를 지지하는 민족주의 그루빠들은 당에 대한 맑쓰—레닌의 학설을 수정하며 당내에서의 옳지않은 질서에 대한 비판을 가혹하게 탄압함으로써 당의 과오와 결점을 시정하기는 고사하고 그 과오와 결점을 은폐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지도층의 민족주의자들은 『볼쉐위즘』과는 아무러한 공통점도 없으며 비판에 대한 딴 태도를 취하고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유고슬라비야에서는 공산당원들이 비판하였다는 리유로써 출당과 심지어는 검거까지 당하고 있으며 찌도그루빠는 당원들이 자기지도부에 대한 관계를 군은 신임으로 맺는것이 아니라 검열과 비판없이 맹목적으로 강제적 방법에 의하여 복종할것을 요구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고슬라비야가 쏘련과 새인민민주주의국가의 반제국주의적 민주주의통일전선에서 탈리하여 쏘련과 새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락인된 락후자로서 천락되었다。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지도배들은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며 이를 폭로함으로써 시정할줄 모르는 다시 말하면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옳은 관계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협조한 민족

주의적 길로 나아가며 그릇된 반인민적 길을 걸고 있다。

백전백승의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을 배우고 그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우리북조선로동당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도상에서 나타나는 결점과 장애물들을 폭로 퇴치하여 왔다。

그것은 낡은것과 오유들을 청산하며 장래성 있는 새것을 지지하면 할수록 당과 조국의 발전이 더욱 빠르게 성과적으로 앞으로 전진한다는것을 인식하고 우리조국과 당사업 발전의 동력으로 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의 법칙으로 되는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매개당원들을 널리 교양하여 왔다。 그것은 비판과 자기비판이 우리당의 전진을 위하여 절대 불가결한 위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비판과 자기비판이 우리당 발전의 기치로되며 발전의 동력으로 될수있는가? 그것은 당적 비판과 자기비판은 우리들의 의식가운데 남아있는 낡은 과거의 잔재요소를 숙청하고 사회발전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상적 근거를 소탕하는 무기로 되는것이다。

우리당의 목적하는바 과업을 성과있게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당원들이 백전백승의 맑쓰—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하며 옳은 민주주의적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이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며 적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김일성동지는 제二차전당대회보고에서 말하기를 「당 사상전선에 침입되는 일체 반 맑쓰—레닌주의적 반동사상들과의 엄숙한 사상투쟁을 전개하며 일부 당원들과 일부당지도일꾼들이 맑쓰—레닌주의적 선진리론으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일체현상들을 반대하며 엄중한 당적 비판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당은 당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오늘 우리당이 요구하는 정치 리론적 수준에까지 제고시켜야하겠다」고 지적하였다。 당적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의 로선위에 가로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견인성을 걸러주며 당원들의 력량을 검열하는 계기를 지어준다。

당적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사업과 국가사업에 있어서 결점을 제때에 퇴치하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생활을 제고시키는 사상적 동력으로 된다。

당적 비판과 자기비판은 국가를 좀먹으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려는 모든 민족반역자 반동분자들의 음모를 제때에 폭로 분쇄하며 당내에 잠입하여 당을 파괴하려는 모든 이색분자와 불순분자들을 숙청할수 있는 유력한 무기로 되는것이다。

당적 비판과 자기비판은 전체 당원들을 협소한 민족주의사상을 배격하고 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세계민주주의 진영과 우호친선적 단결로써 인류의 원쑤 제국주의 반동진영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당은 당창립의 첫날부터 비판과 자기비판을 당활동의 기초로 인정하고 당사업발전의 동력으로서 또한 그의 사상적 무기로 내놓았다。

최근 우리당 하급당단체(세포 초급당부 면당부)들의 九개월간 사업총결에 관한 총화와 당지도사업강화에 대한 보고에서 허가이동지는 「九개월간에 당사업 발전과 함께 당원들의 열성이 제고되어 금번 진행한 총결당회의들에 당원들의 정치적 열성이 일반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당 하급당단체(세포 초급당부 면당부)들에서 진행된 사업결산 당회의는 매개당원들이 비판과 자기비판의 의의를 옳게 인식하여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진행되었고 당사업에서 부분적인 부족점들을 폭로하고 시정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부분적 결점들을 시정하여 당사업에 거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다수당원들이 세포사업 총화회의에 참가하였을뿐만 아니라 광범한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하여 비판토론이 전개되었고 「당적립장을 망각하고 당과 국가사업에 해를 주는 락후한 사상 및 행동들과 또는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데 있어서의 부족점들을 폭로하면서 그들과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사업의 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제의하였습니다」(허가이) 제二차전당대회 이후 강원도당 산하 부분적 당단체에서 지도기관들이 당사업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발양함이 부족하고 지도기관이 자기역할을 불충분하게 하며 당사업을 몇몇 간부의 단독적 의견으로써 당사업을 진행하는 관료주의 사업방법들이 각급 당회의에서 폭로되었고 특히 「부원리 모범세포」 사업 지도에 있어서 하부실정에 부합치않은 평가와 관료주의적 지도를 준데 대하여 엄격한 자기비판이 진행되었고 경제과업 실행에 있어서 도내 평강, 금화군을 비롯한 일부 당단체에서 군중들에 대하여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하는 작풍들을 엄격히 규탄하였으며 일부생산직장내 당단체들의 관료주의적 지도방법을 엄격히 비판하고 생산직장내의 당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계획실행을 정치적으로 보장하게 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기관이 책임감을 높이였고 당원들의 창발적 의견과 당사업 참가에 열성을 높이고 당의 조직적 정치적 력량을 제고하였으며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진행된 하급당단체(세포 초급당부 면당부)들의 九개월간 사업총화는 당사업에 거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 있어서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원들의 당성을 제고시키는 큰 무기로 되었으며 당사업에서의 오유

와 결점들을 적발시정하며 락후한 사상적 경향과 투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갑니다』(허가이)

이와같이 우리당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원들이 당회의에서 근거와 리유가 있는한 어떠한 당원을 불문하고 비판할수 있는 규약상 권리에 기초하여 전개되며 당내 민주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적으로 받은 고상한 의무와 권리로 되는것이다。

우리당은 당의 조직적 순결성과 사상적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개 당원들이 가지고있는 사소한 결점과 비록 적은 오유에 대하여서라도 무자비성을 발휘하며 강력한 당적 요구를 제기할것을 제시하였다。그렇기 때문에 매개 당원들은 당과 국가에 해독을 주는 일체 행동과 부화한 사상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주어야한다。비판은 반드시 결점과 오유를•적발함으로써 그를 시정하며 지도를 개선하며 규률을 강화하며 많은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또한 비판은 심각하며 건설적이며 원칙적이며 실제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

때문에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비판과 자기비판이 원칙과 결부됨이 없이 결점과 오유의 분석적 해명이 없이는 호상 중상에 그치며 사업에서 극히 엄중한 해독을 가져오며 그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게 되는것이다。

비판은 과오를 지적하며 또는 다만 인정하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결점을 발생시키게 된 제 원인의 해명과 그들을 퇴치하기 위한 심중한 실제적 사업이 가장 중요한것이다。 비판이라는것은 결점을 인정한다는것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 결점을 실지에서、퇴치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그러므로 비판의 이러한 당적 본질적 의의를 매개 당원들과 당간부들은 인식하고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실지 자기 사업에 나타난 결점과 오유들을 퇴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당원들과 당간부들중에는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옳은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때문에 모든 자기결점과 오유에 대하여 뼈아프게 느끼며 그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찾아낼 대신에 자기 결점에 대한 비판을 옳게 접수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례를 들면 모든 오유의 원인을 객관적 조건에서만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모든 오유를 불가피적인것으로 설명하며 고집하는것、심지어는 자기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려고까지 하면서 그를 회피하려고까지 하는 사실들이 아직 일부 당원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이러한 당원들과 간부들은 자랑을 좋아하며 비판을 좋아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업발전

에 해독을 끼치는것이다。만일에 비판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어떤 리유를 불문하고 우리당사업발전에 조애를 주는것이다。왜냐하면 비판을 거부혹은 회피하고 자기 결점에 대한 옳은 당적 비판을 대담하고 솔직하게 접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일군들은 사업에서의 결점과 오유를 시정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과오를 범할것을 전제로하기 때문이다。또한 자기의 결점과 오유를 은폐하는것은 새 오유의 발생을 쉽게하며 보다 더 심중한 오유를 발생시키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나타난 오유와 결점을 철저히 폭로하며 이를 대담하게 비판분석하여 이를 일단시일내에 용감하게 퇴치함으로써만이 진실한 일군으로서 옳은 당적 립장에 설수 있는것이다。

레닌은 일찌기 말하기를『오유를 범하지 않는자가 현명한 자인것이 아니다。이런 인간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극히 중대한 오유를 범하지 않으며 또 그것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정정할줄 아는자가 현명한자인것이다』라고 하였다。

당에서 준 과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자기행동이 당적 립장에 튼튼히 선 사람은 다른사람의 오유와 불순행동에 대하여 비판을 전개하나 비판과 자기비판을 높은 당적 립장에서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에게 결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저사람의 그릇된점을 비판한다면 나에게 대한 결점을 폭로할까 두려워서 비판을 회피하는 종류의 당원들이 존재함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이러한 종류의 당원들은 발전될수 없으며 사업의 락후와 행동의 불순을 더 크게 가져오는것이다。그리고 또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멸시하며 자기에 대한 모든 비판적 의견에 대하여 악감을 가지는 개별적 일군들과 사업상 비판을 억압하는 경향들을 부분적 당단체에서 볼수•있다。

자기의 사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줄 모르며 비판을 자기 사업 발전에 유리하게 리용할줄 모르는 일군들은 사업에서의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며 사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것이다。

쓰딸린은 원칙적이고 대담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을 겁낼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주었다。이러한 비판은 사람들의 사상 정치적 수준향상에 원조하여 주며 그들로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하며 그 사업에서의 결점들을 퇴치하도록 실제적 방침을 가르쳐 주며 격려 충동하여 주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완전히 퇴치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결함중의 하나는 일부 농촌당단체에서 가족적 친족적 관념에 사로잡혀 일부일군들과 당원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오유와 결점들을 충분한 근거와 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오에 대한 심

각하고 무자비한 당적 비판을 회피하며 그 과오를 범하게 된 원인을 분석 폭로하기를 싫어하는 그릇된 경향들이 있다。

강원도당 산하 일부 세포들에서는 비판과 자기비판이 가지는 당적 본질적 의의를 망각하고 엄격한 당적/립장에서 개인의 리익을 대중의 리익에 복종시킬줄 모르는 그릇된 사상적 경향으로써 자기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해서 또는 친척이라고해서 당내에서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비판을 전개하지못하고 있다。

이러한 옳지못한 사상적 근거는 비판과 자기비판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망각함으로써 당사업을 추진시키지 못할뿐만 아니라 퇴보의 길로 유인함을 의미한다。 동지애는 결점과 오유를 은폐하고 묵과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결점과 오유를 제때에 적발 폭로하며 그를 시정하여 줌으로써 그를 당이 요구하는 완성된 일꾼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호상비판에 대한 태도는 당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며 발생된 결함들을 추호도 용서하지않는 그러한 사상적 준비와 정신을 요구한다。

우리당은 매개 당간부와 전체당원들에게 비판의 무자비성을 발휘하며 자기가 범한 과오를 주저없이 용감하게 폭로하고 이를 시정할것을 제시하였다。

당간부와 전체일군들은 당적비판과 자기비판을 사업의 선두에 내세우는것을 자기의 특성으로 삼아야하며 자기과오에 대하여 비록 적다할찌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과 투쟁방향을 내세워야한다。

그리고 호상비판은 당의 강철같은 규률성을 강화하며 당사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매개당원들과 간부들을 보다 높은 정치 사상 리론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일정한 목적과 정신 및 기준에서 조직 전개해야한다。 이는 비판에 있어서의 면목과 정실관계로부터 오는 일체 타협적이고 융화주의적인 경향들을 철두철미하게 배격함을 전제로하는것이며 이로부터 출발하여 호상비판은 어데까지나 비타협적이며 무자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내 민주주의와 긴밀히 련결되어야하며 높은 당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때라야만 진정한 당사업 발전의 무기로 될수있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광범한 당원 일군들이 참가하는 조건하에서만 당사업의 옳은 경험을 교환할수 있는것이며 사업발전에 큰 성과를 어룰수 있다。 당조직 지도사업부문에 있어서 당내 민주주의를 준수치 않으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범함으로써 당사업에 대한 당원들의 창발력과 열성을 저하시키며 당원들로 하여금 당생활에 있어서 자기들이

주인답게 활동하여야 된다는것을 알지못하게 하며 다만 간부들과 상급당기관의 지시만 기다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환경속에서는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의 산 무기로서 자유롭게 전개될수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회의는 당원들이 더 높은 비판과 건설적인 토론에 열성적으로 참가 함으로써만이 나타난 결점과 오유들을 다각도로 해부 분석하며 그에서 종합적인 결과에 도달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내 민주주의가 강화된 조건하에서만이 자유롭고 강력하게 전개될수 있는것이다。

우리당은 항상 매개당원들이 조직적으로 훈련되며 당적유일성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보전할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규률과 사상적 유일성은 당내에서 비판을 감정적으로 리용하려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일부당단체에서는 아직 비판과 자기비판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일시적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호상비판이 사상적이며 당적 립장에서 전개되는것이 아니라 개인감정으로서 호상중상시키려는 옳지못한 정신에서 전개되는 경향들을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 현상이라할찌라도 비판에 대한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경향들을 청산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일상사업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

비판과 자기비판이 미약하게 전개되거나 그것이 침체 상태에 있는곳에는 관료주의가 뿌리를 박으며 해독이 자리를 잡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다。

관료주의 이것은 첫째로 광범한 군중들의 창발적 의사를 무시하며 사업의 성과를 좀먹으며 앞으로의 발전의 커다란 장애인것이다。

쓰딸린은 관료주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씀 하기를 「그것이 우리 제도의 속에 묻혀있는 막대한 부원을 깔고앉아 그것을 리용하지 못하게하며 대중의 창조적 창발성을 사무적 행동으로 속박하면서 그 창발성을 유야무야하게 하며고 전력하며 그리하여 당에서 시작하는 각개의 새일을 소소하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변화시키는데로 일을 끌어 가는데 있는것이다。

둘째로 관료주의의 위험성은 그것이 집행에 대한 겸열을 용인하지 않으며 또한 지도기관들의 기본적 지시들을 산 생활에서 떨어진 공론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는데 있는것이다」라고 하시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 가장 해독을 끼치는 독소의 하나인 관료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 수중에 있는 가장 위력 있는 무기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광범히 일상적으로 리용한다는 것은 사업에서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당원대중의 창발적 위젼

에 기초하여 당사업을 향상시키며 발전시키는 전제로 되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 허가이동지는 자기보고에서 지적하기를『제반 결점들을 시급히 퇴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당의 옳은 정책이 전체당원들과 일반군중속에 충분히 침투되지 못할것이며 따라서 당은 앞으로의 새로운 투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선 우리당이 앞으로의 투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당내의 제반 결점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당자체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우리는 계속 당내의 강력한 비판과 자기비판 사업을 전개하여 불순한 경향과 부패한 사상 잔재들과 투쟁하여야 하겠으며 지도사업에서의 그른 결점을 퇴치하고 당과 국가사업에 해독을 주는 일체 행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 가강히 전개할것을 전체당단체와 당원들에게 제기하였다。

때문에 비판과 자기비판은 온갖 불순한 경향과 부패한 사상잔재들을 반대하고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준비되고 예리한 무기로써 더 높은 정치리론수준에서 전개할것을 요구한다。

전체 당원과 매개당간부들의 높은 당적 정치적 수준에 기초한 비판과 자기비판이 일체 부화하고 락후한 작풍들을 심각히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시정하고 우리사업을 퇴보와 오유에서 미연에 구원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높은 당적 정치 리론수준에 기초한 비판과 자기비판만이 당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과 안일에서 구출하며 사업에대한 자각적 열성과 적극성과 책임감을 높이는것이다。

때문에 우리당은 지금 전체당원과 당지도일꾼들에게 더 높은 당적 수준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약은 중요한 경제적 과업의 하나이다

재정상 최창익

一

八・一五해방 이후로 인민경제의 수립과정에서 절약문제는 一九四六년 이래로 부단히 전개되어온 전국사상운동에 있어서 한개의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왔다。 특히 一九四八년 一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제一〇四호결정서로써 절약문제를 엄격하게 취급하였다。

이래 절약문제는 민주일군들에게 있어서 엄중한 사상문제로 제기되었음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당면한 실천적 과업으로 규정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一九四八년도에 와서 국가종합예산에 속하는 기관과 공장및 기업소등 국가경제기관에서 도합 十四억三천七백만원의 경비절약을 보게되었다。 또 이와같은 절약부분은 인민경제적 축적을 증가하였으며 국가재정을 견고—하는 한개의 재원으로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써 절약문제에 만족을 가질수없다。 하물며 아직도 민주일군들중에는 부분적으로 절약에대한 인식이 박약하며 따라서 실제사업면에 있어서 경비절약에대한 집행성이 미약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급속도로 건설되며있는 인민경제부면에서 고상하게 요청되는 절약문제에 대하여 일부 민주일군들의 락후성을 말하고있는 증좌(證左)로 되지않을수없다。

이러한 관점(觀点)에서 우리는 목전계단에서 경비절약에대한 인식문제를 재음미(再吟味)하면서 동시에 실제사업면에 향하여 경비절약을 강요하지 않을수없다。

첫째 우리는 절약문제에 대하여 먼저 정확한 인식을 가셔야할것이다。 일부일군들중에는「절약」이라고하면 가히 쓸일에 쓰지말라는것같이 생각하는 소박(素朴)한 견해를 가지는일이 없지않다。 사실상 이러한 견해는 옳지못한것이다。 왜그런가하면 절약의 의의는 응당 써야할일에 쓰지말라는것이아

니라 꼭 쓰리만치 쓰고 조금이라도 더 쓰지말라는것을 의미한것이다。또 더 쓰지말라는말은 단순한 화폐관념(貨幣觀念)으로 자금면(資金面)에만 국한된 의미가 아니고 사업진행에 수요되는 일체를 말하는것이다。례를 들면 한개 국가공장의 작업행정에서 수요되는 자본, 자재, 기계, 로동력, 기타 일체(一切)를 총괄한 절약문제를 의미한것이다。

물론 인민적민주주의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각종 사업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된다。또 그리하지않아서는 안될것이다。그러나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여서 절약문제를 도외시(度外視)할 리유는 있을수없는것이다。뿐만아니라 모든사업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면 될쑤록 오히려 경비절약문제는 과업을 수행하며 또 초과수행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이다。

말하자면 금일 우리국영공장은 전면적인 국가생산계획에 편입되어있는 일개 생산기관으로서 자기에게 부담된 생산량을 계획적으로 실천하고있는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동일한 국가적립장에서 절약문제에 주의를 돌릴때에는 우리는 먼저 그 공장의 생산계획에 착안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왜 그런가하면 계획이 잘섰는가, 잘못섰는가, 책임량을 달성할수있는가, 달성할수없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계되는것이 아니고 경비절약이 가능한 한도를 측정하며 또한 계획과업을 완수하며 초과완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바 경비절약의 한도를 예측하는문제에 로동력을 잘 조직하였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는 또한 경비절약문제와 불가분리(不可分離)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것이다。그런까닭에 인민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또한 계획생산의 진행과정에서 절약문제는 더한층 큰 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절약문제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웠는가 또 사업계획을 옳게 집행하는가를 측면적(側面的)으로 검토하는것이다。동시에 절약문제는 결코 사업에 수요되는 일체를 감용(減用)하는것이 아니고 애용(愛用)하라는것이며 또 그로써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라는것이다。

둘째 절약문제와 정반대되는 랑비문제에 대하여 일부일군들중에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있는 일이 없지않다。례하면 랑비하지말라는 말을 과용(過用)하지말라는 뜻으로 리해하지않고 감용(減用)하라는 뜻으로 곡해하고있다。즉 랑비는 절약의 반대현상인 점에서 절약하라는말이 적게쓰라는 뜻이 아닌것과 같이 랑비하지말라는 말은 감용하라는 뜻이 아닌것이다。원래 사업진행에 있어서 「덜쓴다」「더쓴다」하는 말은 일정한 계획기준에 의하여 평가(許價)되는

것이다。그런까닭에 랑비라는 말은 감용하지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쓰지않을 일에 쓴다는 의미이며 필요 이상의 사용한도를 넘어쓴다는 의미인것이다。즉 랑비라는말은 생산면에 있어서는 불생산적소비(不生產的消費)와 소비면에 있어서는 불필요적용비(不必要的用費)가 있는 경우에만 있을수있는 현상인것이다。

그런까닭에 랑비는 부절약의 현상이며 따라서 절약은 랑비를 퇴치하는 방법인것이다。그러나 절약과 랑비를 간단한 대립방식으로 즉 적게먹고 적게입고 또 로력을 적게들여 큰 성과를 가져오는것이 절약이고 그와 정반대로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또 로력을 많이 들여 적은 성과를 가져오는것이 랑비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너무나 용속(傭俗)한 견해가 아니될수없을것이다。

이미 위에 말한바와같이 반드시 써야할일에 쓰는것은 랑비가 아닌것이다。사람은 누구나없이 일정한 량의 식료와 의복은 생활상의 필수적 조건일뿐만 아니라 생산의 립장에서 볼때에 먹고 입는것은 생산을위한 소비인것이다。동시에 생산행정에서 수요되는 로동력은 또한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유일한 조건이다。그런까닭에 엄격한 과학적립장에서 말한다면 적게먹고 적게입고 적은 로력으로 많은 수확을 가져온다는 리론은 성립될수없는것이다。또 그와 정반대현상을 곧 랑비라고하는것도 너무 간단한 견해일것이다。

셋째 우리는 절약과 랑비에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기 위하여 먼저 절약과 랑비를 정확하게 판단할수있는 기준을 세워야할것이다。또 이 기준은 주관적원망(主觀的願望)으로 세워질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업계획성에서 세워져야할것이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불문하고 우리들이 매일 집행하고있는 사업이 일정한 계획성에 의하여 진행되는가 하는 문제는 먼저 그 사업진행에 수요되는 일체가 계획성에 의하여 소비되며 소모되는가 하는 문제에 주의를 돌리게되는것이다。만일 사업계획이 정확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정확한 사업계획을 집행할때에 물자적 소비와 기계적 소모와 인력의 소요가 계획사업량에 비하여 초과할때에 우리는 그것을 절약이아닌 랑비라고 하는것이다。

물론 이것은 일체의 지출에 의한 전체수입의 대비성에서 알게되는것이다。또 이것은 일개사업플란이 실천에 옮긴 총적결과(總的結果)에 의하여 관명될것이다。그런까닭에 우리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절약으로부터 랑비현상을 퇴치하는 방법은 일개사업플랸을 매 시간의 실천에 의하여 실현시킬때에 실현된 사업량에 소요된 일체가 계획적 사업량에 대비하여 과용되지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 시정하여야할것이다。

二

우리는 절약과 랑비에 대하여 리해문제로 그칠것이 아니고 옳게 리해한 문제를 옳게 실천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누구나없이 리론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또 용이한 문제가 아닌까닭에 우리는 언제나 리론과 실천과의 통일을 강요하는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민경제의 전설적 활동에 있어서 절약문제를 옳게 집행할것인가에 관하여 몇가지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생산부면에 있어서 먼저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할것이다。 인민경제편성에 있어서 만일 과학적인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지못한다면 전체면에 포괄된 각종산업분야의 즉 광산、공장、기업소등 일체생산기구들은 전체성의 생산행정에서 一계렬의 련쇄관계(聯鎖關係)를 구성하고있는 상관적인 활동을 호상 보장할수없을것이다。 말하자면 전체적 및 부분적으로 정확한 계획이 서지못한 조건하에서 중요한 일개공장이 생산의 정체성(停滯性)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과 자재교류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른 공장도 십분 그 영향을 받을것이다。 이와같이 비단 자재뿐만아니라 생산행정에 관여(關與)되고있는 일체 즉 원료、자금、로동력 등등이 동양(同樣)으로 상관적인 배합성(配合性)을 호상 조절할수없을것이다。

생산계획의 부정확성으로부터 야기될수있는 이상과같은 현상들은 한개의 공장에서도 그러할수있고 여러개 공장들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수있으며 또 전면적 생산의 련쇄적 계렬간(聯鎖的 系列間)에서도 그러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 그로인하여 개별적 및 전체적으로 미치는 부절약적인 현상은 실로 막대한것이다。

개별 및 전체적임을 물론하고 만일 생산계획의 부정확성으로·인하여 생산행정에 지장을 준다면 그는 적거나 크거나를 막론하고 또 부분적임과 전체적임을 물론하고 그만큼 로동생산성을 저하시킬것이며、그만큼 상품류통을 지연시킬것이며 따라서、그만큼 자본회전률을 저하시킬것이며 따라서 그만큼 사회경제에 손실을 줄것이니 이것은 곧 비과학적 계획성에서 유발(誘發)된 부절약적인 랑비현상이라고 아니할수없다。

특히 인민적민주주의국가의 인민경제건설의 력사계단에서 계획경제의 편성문제는 가장 지대(至大)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따라서 랑비현상을 퇴치하는 절약운동은 중요한 경제적 파업의 하나이다。 동시에 랑비현상을 퇴치하는 투쟁적 방법으로서 절약운동의 구경(究竟) 목적은 국가적 생산의

과학적 계획성을 강요하는것이다。

둘째 우리는 랑비현상을 퇴치하는 기본적 대책으로 매개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 서야될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계획이 옳게 섰다고하여서 절약운동이 불필요하거나 혹은 랑비현상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섰다하더라도 그 계획을 옳게 집행하지못하면 따라서 랑비현상은 여전히 존속될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까닭에 광산、공장、모든 기업소에서 누가 국가경제의 계획생산을 잘 집행하는가하는 문제는 누가 절약문제를 옳게 리해하고 옳게 실천하는가하는 문제를 규정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일정한 계획생산에 있어서 누가 로동력을 옳게 조직하는가、누가 자료를 애용하는가、누가 생산품규격을 향상시키는가、누가 생산원가를 저하시키는가、또 누가 자금회전률을 제고시키는가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랑비현상을 퇴치하는 절약운동에 있어서 기본적 문제의 하나일뿐 아니라 인민경제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일군들중에는 계획생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로동조직을 경시하며、자재를 람용하며、불합격품을 산출하며、생산원가를 인상하며、자금회전을 지완(遲緩)하며、기계를 혹사(酷使)하며、수요이상의 자재 유휴(遊休)량을 소유하는것으로써 전체생산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고있는 사실이 허다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부일군들에게 있어서 국가관념의 박약으로부터 랑비행위가 인민경제건설과 그의 축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인식부족을 의미하는 엄중한 사상문제라고 하지않을수없다。

셋째 랑비현상은 그릇된 생활욕망에 기인되어 발생하는일이 허다하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생활욕망은 누구나 다 잘먹고 잘입고 잘살자는것이 일반적인 표현일것이다。 또 이것은 생명적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욕망일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잘살자는 욕망은 내용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다 아는바와같이 개인주의적 립장에서 잘살자는 문제와 민주주의적 립장에서 잘살자는 문제는 즉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차와같이 하늘과 땅만치 거리가 먼것이다。

통속화(通俗化)한 말로하면 다같이 잘살자는 사람들은 민주일군들이고 혼자잘살자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인것이다。 이제 개인주의자들은 론외하고 민주일군들의 생활욕망도 사회적 또는 국가적 생활수준에 의존되어야할것이다。 왜 그런가하면 만일 민주 일군들이 사무실 한방을 꾸미고 주택 한간을 장만할찌라도 반드시 자기의 공작지위와 그 사업위치에서 매시기의 국가생활수준에 의조(依照)하지

않고 경비를 과용(過用)한다면 따라서 주관적욕망은 나변(那邊)에있건 객관적으로는 개인주의적생활형식에서 랑비현상을 초래하지않을수 없을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일꾼들중에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는일이 허다한것이다。례하면 각기관에서 사무실설비、주택장식、자동차비、문방구비、연회비、접대비、기타잡비등이 항상 예산면을 초과하는일이 일반적 현상으로 되고있다。이러한 사실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한두건이라면 十에八—九는 부화한 사상관념으로부터 야기되는 랑비적현상인것이다。즉 이러한 사태들은 민주일꾼들간에 아직도 국가생활관념이 박약한 사상의식상 문제에 기인된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회와 접대의 례식을 폐지하라는것이아니며、사무실과 주택을 꾸미지 말라는것이 아니며、자동차전용을 금지하라는것이 아니며、문방구의 비치와 소모를 불허하는것이아니다。다만 문제는 민주건설이 부단히 발전되는 력사행정에서 매시기의 국가생활의 수준에 의존하여 사적、공적의 생활양식을 사회적으로 제약된 한도를 넘지않도록 택취(擇取)하여야 된다는것이다。만일 그렇지않고 인민경제의 발전정도와 국가생활의 현실수준을 떠나서 국가에서 수립한 예산을 무시하고 관료주의적 형식문제로 국가재산을 랑비하고 인민경제축적을 감하한다면 이는 민주일꾼들에게 있어서 엄중한 사상문제가 아니될수없는것이다。

三

절약문제는 사상문제와 밀접히 관련되고있다는것을·이미 위에서 말하였다。이 문제에 대하여 더한층 언급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인민경제의 직접건설자들은 근로대중들이다。만일 사회적 생산행정에 로동자와 농민이 참가하지않았다면 공장에서는 기계도 돌아갈수없고 논밭에서는 오곡이 자라날수 없는것이다。우리들이 먹고、입고、있는 의식주문제의 해결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로동자 농민들의 로동의 혜택으로 되지않는것이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일꾼들간에서 랑비하는 현상이 있다고하면 그는 직접적으로는 사회적 재부와 국가재산을 애호하지않는것이며 간접적으로는 근로대중의 로력을 경시하는것이 아니될수없다。또 그러하다면 따라서 우리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는、『당신들은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일꾼이면서 어찌하여 국가재산을 랑용하며 근로대중의 로력을 랑비하는가』의 문제일것이다。이 문제에 대하여 누가 대답할수있는가?

누구나 없이 언필칭(言必稱)인민의 복리를 위하여、근로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 복

무하는 민주일꾼으로 자처한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로동자 농민들의 땀의 로력으로 만들어놓은 국가재산은 헛되이 써버리고 그래도 국가와 인민들에게 복무하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는 사실에 맞지않고 도리어 어그러진 일이 아니될수없을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우리일꾼들에게 있어서 부분적인 현상이라고하나 또한 엄중한 사상문제로 되지않을수없다。어떤 사업부문에서 일하거나를 불문하고 비절약적 랑비현상을 경시하나 무관심하는 일꾼들의 사상은 착취계급의 사상잔재라고 아니할수없다。왜그런가하면 착취계급에 속한사람들의 사상은 인간이 인간을 압박하고 착취하는것을 능사(能事)로 알뿐아니라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까닭에 로동자나 농민이 땀으로 만들어놓은 재부를 타락적·향락생활에 람용、랑비하는 일에 대하여 추호반점이라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장한일로 여기는것이다。즉 인간을 학대하며 인간을 착취하며 재부를 독점하며 향락을 자행하는 착취계급적 속군(屬群)들에게 대하여서는 다시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들을 반대하며 투쟁하는 인민의 복무자들에게 있어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만일 생활상 부화와 사업상 태만으로 인하여 국가재산을 랑비한다면 이것은 구경 민주일꾼의 사상과 품성을 규정하는 중대한 문제로 되지않을수없는것이다。

그런까닭에 민주일꾼의 사상과 품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능력만을 볼것이 아니고 사상본위로 되는것이다。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진 일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옳게 쓸수있는 옳은 사상을 가짐이 없다면 그는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공헌될수없을 것이다。그와반대로 비록 기술이 졸렬하다할찌라도 사상이 방정하다면 그런사람들은 민주일꾼이 될수있으며 또 앞으로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공헌할수있는 일꾼이 될것이다。

끝으로 말하고자하는것은 비록 기본상으로 민주일꾼이라고하더라도 우리들의 사상의식은 일반적으로 현계단의 인민경제건설에서 요청되고 있는것과같은 완숙한 사상의식은 못되는것이다。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아직 구사회의 사상잔재가 깨끗이 청산되었다고 말할수없는것이다。물론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불순한 사상잔재는 자기발전에 대한 로력에 의하여 숙청될것이다。그러나 우리들의 사상교육은 실제사실을 떠나서 다른방법이 있는것이아니고 민주전국도상에서 맡기어진 자기과업의 실천을 통하여 실현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상교육이 실행되었는가 아니되었는가는 말로 알려지는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과여하가 판단하는것이다。즉 사실 실적이 성과적인것과 실패적인것과

의 계선은 객관적지장으로되는 우연한 조건을 제한외에는 일군의 사상방법과 로력여하에서 설명될 것이다。그러하므로 사업진행의 보취를 따라 점차적으로 얻어지는 경험을 때때로 비판하여 사상적 방면과 실천적 방면에서 표현된 결점들을 극복하고 옷점들을 발양하여 실제사업에 정확하게 운용할때에 비로소 사상교육은 진행될수있고 사업실적은 승리를 보장할수있을것이다。

절약운동도 사업실천에서 쌓여지는 경험을 통하여 랑비현상을 발견하고 그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로력하는데서 비로소 절약의 성과를 가져올수있는 것이다。만일 그렇지않고 공담적으로 절약에 대한 리론만 캐어서는 언제나 랑비현상은 극복할수없을 것이다。또 랑비현상을 극복하지못한다면 인민경제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운동의 하나인 절약문제는 무효로 돌아가고말것이다。 그런까닭에 절약운동은 단순한 리론문제도 아니며 또 일방적인 기술적 문제와 계획적 문제도아니고 민주일군의 사상적문제인것이다。동시에 랑비문제는 경제문제에만 소속되는것이 아니고 민주일군들의 품성규정에 속하는 문제인것이다。따라서 절약운동은 랑비현상들을 퇴치하는 중요한 경제적 과업의 하나일뿐만 아니라 민주일군들의 불순한 사상의식을 개변시키는 중요한 교육문제의 하나이다。

쏘베트문학개관

기 석 복

지구의 六분지一을 차지한 로씨야에서 승리된 一九一七년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은 인류의 력사에서 새로운 기원을 열어놓았다。「十월二十五일 순양함「아브로라」는 동궁으로 향한 그 대포의 굉렬한, 포성으로 새 기원—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의 새 기원을 보도하였다」(볼쉐위끼공산당력사 三五八 페지)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은 로씨야문학발전에서와 쏘련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문화의 발전에도 심각한 혁명적 전변을 일으키었다。十월혁명이 승리한 후 쏘베트문학은 발생하였고 또 인민의 생활속에서 제반 자료들을 섭취하면서 장성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쏘베트문학의 사회주의적 내용, 그의 백절불굴의 당성, 그의 다민족성, 진정한 인민적성격, 그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세계문학력사에서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지위를 가지게하였다。그러므로 이 문학에는 과거에 대한 인민들의 영명한 판단과 인식, 현재에 대한 그들의 투쟁과 창조,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용감한 희망들이 반영되었다。

쏘베트문학은 그 력사로 보아서 청소하다。그러나 세계문학에 있어서의 가장 선진 문학으로 되었다。왜 그러냐하면 쏘베트문학은 위대한 로씨야의 고전문학의 훌륭하고 고귀한 전통과 인민대중의 해방적 사상으로 일관된 형제적 민족문학의 계승이기 때문이다。또 이 문학은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행복을 위하여 전세계 무대위에서 인민을 암흑으로 유인하는 반동과 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유일한 혁명적 문학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쏘베트문학의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쏘베트국가의 三十一년간의 력사에 있은 훌륭한 사변들을 다시금 체험하는 동시에 쏘베트인민이 레닌이 가르친 길로, 사회주의길로 어떻게 행군하였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된다。

우리앞에는 새 사회—공산주의사회를 창설하는 쏘베트사람들의 고상한 동경과 감정, 노력과 투쟁, 자기조국의 위대한 번영을 위하여 싸우는 그들의 예술적 진상이 펼쳐진다. 그것은 사회주의 十월혁명이 쏘베트문학발전에 광활한 대로와 가능성, 풍부한 내용 또 영웅적 테마와 새 형상들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十월혁명은 근로대중의 문화장성을 방해하는 방색을 파괴하고 전체인민의 창조력의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는 지반을 조성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쏘베트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쏘베트문학은 사회주의 건설의 사상으로 고무되었다. 그는 가장 선진적이며 가장 위력한 생활성을 가진 진정한 과학적 혁명적 세계관인 맑쓰, 엥겔쓰, 레닌의 세계관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다.

아·스따노브는 쏘베트 문학의 선진적이며 혁명적이며 사상적인 특징에 대하여 전로 쏘베트문사동맹 제一차대회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우리문학은 가장 사상적이며, 가장 선진적이며 또 가장 혁명적인 문학으로되였다. 고용적 노예의 멍에와 각종 착취를 철저히 소멸하기 위한 투쟁으로 근로자들과 피압박자들을 조직한, 그러한 문학은 쏘베트 문학 외에 없었으며 또 어느때든지 있어 본 적이 없다.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과 사회주의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자기 작품들의 주제의 기본으로한 그러한 문학은 없었으며 또 어느때든지 있어본적이 없다. 모든 민족의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옹호하였고 지지하였고 또 녀성들의 평등권을 지지한 그러한 무학은 세계에서 한나라에서도 없었으며 또 어디에서도 없었다. 각종 비개화주의자들, 각종 신비주의자들, 각종 승려주의자들 및 악마의 유혹주의자들을 철저하게 소탕한 그러한 문학은 부르죠아국가에는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우리 사회주의의 건설과 혈연적 련결을 가진 사회주의적 문학만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선진적, 사상적, 혁명적 문학으로 될수 있으며 또 되였다』.

쏘베트문학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문학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는 어떠한 종족적 배타성에도 예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쏘베트문학은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쏘베트인민과 쏘베트국가에 복무한다.

쏘베트문학의 당성은 작가 예술가들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한다. 사회의 력사적 발전의 깊은 인식과 자기인민과 볼쉐위끄공산당과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헌신성은 작가 예술가들의 창작을 진정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뿐만 아니라 쏘베트문학은

인민들의 의식에 새로운 사회주의적 제도에 대한 사상을 배양하여 준다.

쏘베트인민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위대한 인민적 운동은 쏘베트문학운동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즉 문학의 주제만을 규정하였을뿐만 아니라 그의 제반 방법 및 그의 작시법까지 규정하여놓았다.

쏘베트문인들은 현실을 진실하게 묘사하면서 그의 혁명적 혁신사업에 참가한다. 쓰딸린대원수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문인들의 역활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즉 문인들을『인간정신의 기사』라고 명칭하였다. 쓰딸린대원수가 명철하게 규정한 이 말에는 사회주의혁명적 조건에서의 쏘베트문학의 당성과 쏘베트문인들의 정치적 책임감이 확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문학의 창시자이며 쏘베트문학의 위대한 창건자인 아·므·고리끼는 쏘베트문인들의 창작적 프로그람을 이렇게 편성하였다. 『우리문학가들의 사업은 어렵고도 복잡한 사업이다. 그는 다만 낡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의 죄악의 전연성에 대하여 폭로하는데만 귀결되지 않는다. 그들의 과업은 연구하며 작성하며 묘사하며 또 동시에 새 현실을 확증한다. 낡은 부패한 재무더기속에서 폭발되어 미래의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관찰할줄을 배워야한다. 젊은 문인들에게는 나라에서의 생활의 새 환희에 대하여 창조적 력량의 다양다채한 개화에 대하여 말할 그 무엇이 있다. 그들은 생활의 새 형태를 창조하는 노력의 쾌배한 물결속에서 재료와 격려를 반드시 얻어볼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시대의 창조적 의지에 밀접히 접근하여 살아야 할것이 요구되나니 이 의지는 로동계급에게 체현되었다.』 이렇게 고리끼가 규정한 강령은 현대의 저명한 기타 작가들의 창작에 반영되였다.

쏘베트인민들은 수다한 어려운 진지를 돌파하였다. 쏘베트인민들의 이같이 다양다채한 생활을 반영하는 쏘베트문학은 쏘베트국가의 영웅적 생활의 제반 중요한 시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예전 짜리제도가 인민의 창조력을 어떻게 결박하였으며 또 인민들이 볼쉐위끼공산당의 지도밑에서 자기들의 의지를 결박한 그 철망을 분쇄한 그들의 투쟁방법과 그들의 투쟁의 위대한 승리의 경험을 반영하여 후세에 전달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시대에서 이 탄생한 새 인간의 특징을 옳게 인식하고 예술적으로 체현화하려는 동경이 쏘베트문학의 제반 저명한 작품들의 기본으로 되었다.

一九四六년八월十四일부 잡지『별』과『레닌그라드』에 대한 볼쉐위끼공산당 중앙위원회결정서에 쏘베트문학의 기본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되였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 문학인 쏘베트문학의 힘은 그가 인민의 리익과 국가의 리익이외에는 다른 리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 가질수 없는 그러한 문학이라는 점에 있다。 쏘베트문학의 과업은 청년을 옳게 교양하도록 국가를 도우며 청년의 요구에 대답하며 또 새 세대로 하여금 용감하며 자기일에 충실하며 장해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장해물을 극복할 각오를 가지도록 교육함에 있다。」

쏘베트문학의 이러한 새로운 원칙적 사상성은 사회주의 문학의 첫 창시자인 막심·고리끼의 활동에 명백히 표현되었다。 그의 모든 작품들에는 혁명의 진리、죽지않는 인민과 창조적 력량에 대한 확고한 신념、로력의 백전백승의 시가 진정한 휴마니즘이 체현되었다。 그러므로 고리끼의 작품들은 매개 쏘베트 독자들의 문화적 필요품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서、고리끼는 로씨야문학발전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민족문학발전에 위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고리끼의 작품과 기타 거대한 쏘베트작가들의 작품에는 인간의 열렬한 사상으로 살고 있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심장이 뛰놀고있다。

쏘베트인민을 고무하는 이 사상、사회주의적 조국에 대한 깊은 감정——이 모든것은 새것이며 또 쏘베트인민들이 독일파시스트의 강점자들의 침범으로부터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 전취하였으며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이 판갈이싸움에서 표현된 쏘베트인민의 위대한 도덕적 성격은 쏘베트문학에서 뿐만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적 문학과 휴마니즘의 문학에 있어서의 영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쏘베트문학은 자기의 발전행정에서 새로운 창조적 원칙을 창조하여 놓았다。 과거의 문학적 유산을 비판적으로 소유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의 경험을 깊이 연구하며 사회적 문화가 장성하는 결과에 새로운 창작적 원칙은 형성되었다。 쏘베트문사동맹의 규약에 쓰인 바와같이 쏘베트문학의 기본 창작 방법은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이다。「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은 쏘베트예술문학의 기본방법으로 되었으며 예술가로부터 현실을 또 그를 혁명적 발전에서 진실하게 력사적 구체성으로 묘사할것을 요구한다。 이에 있어서 현실의 예술적 묘사의 진실성과 력사적 구체성은 반드시 사회주의적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또 사상적으로 혁식하는 과업과 련결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방법은 문인들의 창작적 가능성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시키며、동시에 작가들의 창조적 개성과 창작수단의 다각 다채한 창작적 형식들을 허용하여 준다。 또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방법은 문인들이 자유롭게 미래에 대하여 공

상할수 있게한다。 이 공상은 사회발전의 행정에서 발생하는 제사변들을 과학적 세계관인 맑쓰 레닌의 유물론적 방법에 기초하였기때문에 반드시 실현될수있다。 또 이 공상은 문인 한사람의 공상인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인민대중이 한결같이 상상하는 미래에 대한 동경인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실현될 전체 인민대중의 공상이다。

쏘베트문학은 사회주의적 사회의 선진적 인간、당원과 비당원 볼쉐위끼들의 긍정적 영웅들의 형상을 창조하는 투쟁에서 장성하였다。 만일 과거 로씨야문학에 있어서 대부분 사회제도의 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불구자들을 묘사하였다면 오늘 쏘베트문학은 자유로운 사회주의적 환경에서 사회주의사회를 창건하는 영웅적 건설자들의 위업을 전형화하여 묘사하는것이 다부분으로된다。 그러므로 쏘베트문학의 첫시기의 저명한 작품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민전쟁에 대한 주제들이 그의 기본으로 되었다。

로동자와 농민、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볼쉐위크들은 손에 무기를 잡고 혁명을 위하여 쏘베트 주권을 위하여 원쑤를 물리치려고 주검을 넘으며 승리로 나아갔다。

이러한 볼쉐위크들의 영웅적 형상은—부르마노브의 작「차빠예브」에서의 차빠예브 형상이며 쎄라휘모비츠의 작「철류」에서의 풀—슈크의 형상、파제예브의 작「괴멸」에서의 레빈손의 형상、느·오쓰또롭쓰끼의 작「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에서의 빠베르·꼴차낀의「형상、뙤치나의 작「꼿똡쓰끼장군의 군도」에서의 꼿똡쓰끼의 형상、유크리모브의 작「떤겔·제르벤트」에서의 바쏘브의 형상 및 기타 작품들의 긍정적 형상들이다。 이 긍정적 형상들은 쏘베트인민들뿐만 아니라 전세계근로자들이 사랑하며 존경하며 애독하는 형상으로 되었다。

쏘베트의 사회주의 문학의 내용의 특징으로는 인민생활을 적극적으로 재생시킨 그에 있다。 그러므로 쏘베트사회의 력사발전에 있어서의 위대한 인민적 운동 즉 공민전쟁、사회주의공업화、단합화를 위한 투쟁、위대한 조국애호전쟁들이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묘사된 그것이다。

쏘베트문학작품들의 주인공의 생활은 가족과 개인의 감정적 체험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들의 단결된 사회적 존재와 튼튼히 결합되었다。 자기 인민의 생활과 투쟁과 튼튼히 단결된 쏘베트문학의 사상은 작가 자신의 용모를 규정하여 준다。 쏘베트문인은 인민의 생활과 튼튼히 련결되었으며 인민의 복리와 향락을 위하여 투쟁하며 그들에게 복무한다。

쏘베트 문인들은 쏘베트의 근로인민들과 혈연적 련결을 가진 쏘베트 인테리들의 대표자이다。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공산주의를 위하여 붉은군대의 대렬에서 공민전쟁전선에서 또 그후 조국을 침해하는 일본강점자들을 바대한 장고봉과 할림골리(노몬한)의 전투에서, 세계의 독점자본가와 팟쇼의 야비한 사수(使嗾)를 받아 쏘베트조국을 침공한 분란 제국주의자들을 패전시킨 엄혹한 북극의 설야에서 마지막으로 독일강점자들을 바대한 위대한 조국애호전쟁의 피비린내나는 전선에서 싸워왔다。쏘베트 인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 근로자들에게대한 애착심은 쎄·쎄·쎄·르의 인민대중의 창조적 로력생활과 튼튼히 련결시켜놓았으며 또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실제적으로 참가시키게하였다。쏘베트 인민은 쏘베트의 문학에서 자기의 자신, 자기의 생활, 자기의 성과, 자기의 실수를 보고 있다。

쏘베트 문학의 특징의 하나로는 그의 다민족성 이미 그 민족들의 언어로써 쏘베트의 사회주의적 민족문학을 창조하는 그에 있다。쏘베트문학은 쏘베트동맹에 사는 모든 민족들의 문학과 함께 장성하며 발전한다。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전까지 로씨야에서 공인된 언어로써는 로씨야말이였다。그와같이 로씨야말로서 된 로씨야문학만이 약간의 발전을 가질수 있었다。그러나 짜리로씨야에 거주한 다른 수많은 인민들은 자기의 민족문학만 가지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지어 문자까지 가질수 없었다。이러한 인민들은 비로소 十월혁명후에 쏘베트주권의 원조밑에서 레닌 쓰딸린의 민족정책에 의하여 민족적 재생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은 로씨야에서의 짜리제도를 전복하고 근본적으로 국내의 제반조건들을 변경시키였다。쎄·쎄·쎄·르에서는 민족의 평등권이 실천되었으며 모든 민족들은 모국어로써 어디에서나 발언할수 있으며 또 모국어로써 자기의 민족문학을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그뿐만 아니라 十월혁명전까지 자기의 문자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이 쏘베트주권하에와서 자기의 모국어를 창조하였으며 동시에 선진적 문학을 창작하고 있다。

이와같이 레닌 쓰딸린의 민족정책은 짜리즘으로 압축되었던 대소 약소민족들이 문화의 부흥과 상승의 창조적 의지를 비상히 고무시켰다。「사회주의 十월혁명은 언어의 수효를 축소시키지 않고 도리어 증가시켰다」(쓰딸린) 쓰딸린이 一九二五년에 이렇게 말한후 쏘련에 있어서의 근五十여의 민족들이 자립적 인민으로서 재생되었다。쓰딸린적 五개년계획을 실천하는 그 기간에 이 민족들이 자기의 문자를 창조하고 거대한 문화적 발전을

전취하였으며 자기의 민족적 출판물 예술작품등을 소유하고 있다。벌써 제一차 문사동맹대회의 전체 대표자 六○○명 중에서 민족대표들이 반수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문학은 五十五족의 언어로써 창작되었다。그러므로 고리끼는 제一차 문사동맹대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쏘베트문학은 로씨야 언어의 문학으로만 될뿐 아니라 이는 전동맹적 문학이다」라고 지적하였다。벌써 위대한 사회주의적 十월혁명 二十五주년을 기념하는 대에 쎄·쎄·쎄·르의 인민들의 一백十종의 언어로 서적들이 출판되었다。례를 들어 一九二五년에 류랑민족중의 하나인 찌간족들은 쏘베트주권의 혜택을 입어 자기의 문자와 문법을 편성하고 그후 五년이 지나서 자기의 서면문학, 시, 희곡, 기타 예술작품들을 자기의 언어로써 출판하였다。

이와같은 급속한 발전을 쏘베트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민족들의 문화발전에서 얼마든지 관찰할수 있다。一九四○년도에 와서 쎄·쎄·쎄·르의 문사동맹에 가입한 문사동맹원들은 三천명이상에 달한다。이중에서 로씨야문인을 제한 외의 一천二백명의 문인은 모두다 민족가맹국가들의 문인들이다。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로씨야 문인을 제한외에는 二백五十명을 가진 우크라이나의 문인 숫자가 둘쨋번 지위를 차지한다。다음으로 구루지야 一七○명, 아르메니야 一○○명이상, 아제르바이쟌 一○○명, 까짜크스딴 八十명, 우즈베크스딴 七十명, 백로씨야 六十二명, 따라하르 四十六명, 기르기즈 四十명, 야꾸츠 三十명, 모르도브 三十명, 츠바슈 三十명, 바시끼르 三十명, 까라빠우끼 三十명, 뚜르키민 三十명 기타이다。지어 八만八천명의 인구를 가진 아디기족들도 자기의 문사동맹을 가지고 있다。이외의 라트비야, 리트바, 에스또니야가맹공화국들도 자기의 민족문사동맹을 가지고 전로문사동맹에 가입하여 자기들의 문학예술을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발전시키고 있다。이와같이 레닌—쓰딸린의 민족정책에 의하여 쎄·쎄·쎄·르의 모든 인민들의 문학은 발전의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위에 지적한 모든 민족들의 시인과 작가들은 쏘베트문학에 있어서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물론 쎄·쎄·쎄·르 문학중에서의 로씨야문학이 령도적 지위를 차지하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로씨야인민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령도적 인민의 역활을 감행한다。그렇기때문에 각민족문학을 호상련결하는 행정에 있어서 로씨야문인들에게 령도적 역활이 있게 되는것이다。왜 그러나하면 로씨야문화와 문학은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강력하고 발적된 문화와

문학이기 때문에 각 민족들과의 문화의 교류와 발전을 련결시키는 고리로 되었다。

쓰딸린원수는 로씨야인민이 쏘베트동맹의 모든 민족들중에서의 령도적 력량으로 됨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말씀하였다。「나는 우선 로씨야인민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려고 합니다。왜 그러나 하면 그는 쏘베트동맹의 성원에 가입한 모든 민족들중에서 가장 저명한 민족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나는 로씨야인민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려고 합니다。그는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인민들중에서 쏘베트동맹의 지도적 력량으로 일반적 공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나는 그가 령도적 인민이기 때문에만 로씨야인민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듣지않습니다。왜 그러나하면 그들에게는 명랑한 의지, 강경한 성격 및 인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위대한 로씨야인민은 자기의 고귀한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다른 민족과 인민들의 문화와 예술문학에 있어서 막대한 령도적 역활을 리행하는 동시에 그들의 문학예술발전에 있어서 위대한 공훈을 끼치고있다。

十월혁명전까지 많은 민족들이 압도적 수량으로 문맹을 퇴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전문학(口傳文學)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 문학이 그 인민들속에서 서면문학의 역활을 리행하게 되었다。민족들의 구전문학에는 인민의 생활, 근로자들의 착취자들과의 투쟁, 인민들의 희망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그렇기때문에 그들의 구전시가는 인민들의 미적요구와 사회적 사상, 민족적 문화의 표현으로 되었다。그들은 착취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증오, 인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기의 말로써 대중속에서 노래불렀다。

이러한 구전문학은 혁명전 로씨야에 있어서 발전될수가 없었으며 또 서면문학과 격리되어 있었다。그러나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후 로씨야에 사는 소수민족들의 문화발전에 있어서 이 구전문학은 쏘베트주권의 절대한 지지밑에서 급속한 발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쏘베트문학발전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특히 실례로서 지적할것은 까자크—잠바예브, 기리기즈—또또구르, 싸우떠가노흐, 몰다비야—표클라, 베즈수보바, 다게스딴—스레이만·스딸쓰끼, 로씨야—마르화, 크류꼬바 및 기타 민족구전시인들이 문학발전에 있어서 저명한 지위를 차지하였다。지어 막심·고리끼는 제一차전로문사동맹대회에서 스레이만·스딸쓰끼를「二十세기의 호머」이라고 명칭하였다。이 들의 작품을 쏘베트동맹에서는 출판하여 연구하며 선전하며 지어 각 학교들에서 연구하고있다。

레닌—쓰딸린당이 선포한 사회주의를 위한 위대한 투쟁은 쏘베트문학발전에 있어서의 가장 위력

한 추진력으로 되었다。쏘베트문학은 과거의 자본주의적 잔재와 투쟁하면서 사회주의적 발전과 함께 위대한 발전의 대로를 걷고 있는 동시에 현실과 미래를 예견하는 예술적 묘사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창작적 원칙들을 형성하고있다。

× × ×

쏘베트문학의 발전의 력사를 三개의 기본계단으로 나눌수있다。

첫째번 시기에는 쏘베트문학의 발생과 수립에 대한 시기이다。이 계단에는 공민전쟁시기로(一九一八년—一九二一년)부터 시작하여 부흥기(一九二一년—一九二五년)가 포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투쟁(一九二六년—一九二九년, 一九三〇년)의 첫해까지 계속된다。

둘째번 시기는 一九三〇년—一九三一년부터 시작하여 전면적인 사회주의승리,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의 거대한 성과들과 련결된 위대한 조국애호전쟁초기까지 계속된다。

셋째번 시기는 조국애호전쟁기간과 오늘에 이르기까지이다。

첫시기에 있어서 쏘베트문학은 전복된 계급들의 사상과의 맹렬한 계급투쟁에서 강경하여지는 혁명적 로동계급의 문학으로 발전되고 있었다。벌써 공민전쟁당시에 당과 쏘베트주권은 문화의 전면적 상승에 대한 거대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청소한 쏘베트문학에 방조를 주었다。이 시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어떠한 민족문학들은 쏘베트인민들의 문학들과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발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二시기에 와서 이 민족문학들은 서로 련결을 가지었으며 벌써 사상 정치적 통일에 기초하여 서로 단결된 유일한 진보적 문학으로 되었다。

셋째번 시기는 쏘베트문학의 력량을 완전히 고정화하는 시기로 되었으며 쏘베트문인들이 자기활동의 정치적 국가적 의의를 철저하게 인식한 시기로 되었다。

공민전쟁당시에 있어서 쏘베트문학이 형성되기 시작되었으며 근본적으로 로씨야문학, 우크라이나문학 및 벨로루씨야 문학들이 먼저 형성되기 시작되었고 그 다음 기타 민족문학들이 형성되게되었다。

로씨야문학은 자기의 대렬의 선두에 세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명성이 높은 위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문호 막심·고리끼를 모시고 혁명에 참가하였다。로씨야혁명의 바다제비인 막심·고리끼는 「바다제비의 노래」로써 로씨야의 혁명을 예언하였다。그는 전제 제도를 타파하는 혁명에 대하여서만 예견한 위대한 혁명적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문학을 창설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문학을 창설하는 사업에서 조직적 령도적 역할을 감행하였다。

막심・고리끼는 자기의 주위에 혁명적 예술문학의 저명한 작가들을 결속시키며, 새로운 작가들을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교양시켰다。 고리끼는 특히 작가 인재 양성에 있어서 특별한 자기의 고려를 돌렸으며 조금치라도 시간을 아끼지않고 젊은 작가들과의 교양사업을 자기의 마지막 시각까지 진행하였다。 그는 자기의 적절한 평론으로써 쏘베트문학의 발전의 길을 규정하는 동시에 작가들의 작품에서의 성과들과 결점들을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고리끼는 쏘베트문학의 사회주의적 내용, 그의 인민성, 그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휴마니즘 및 예술적 표현방법을 위하여 열렬히 투쟁하였다。

고리끼의 창작은 과거 로씨야의 고전문학과의 튼튼한 련결을 가지면서 그에서의 가장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주의적 문학으로 새로이 발전시켰다。 특히 고리끼는 인간 사회에서의 모든 악과 지주와 암흑을 발생시키는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탁월한 자기의 예술적 수완을 전 근로인민들의 혁명적 교양사업에 바치었다。

막심・고리끼는 로씨야문학에서 인간에대한 문제를 처음 들고 나선 작가이다。 그럼으로 그는 자기의 작품의 주인공을 통하여 「인간은 오만의 노래」이라고 외치었다。 이와같이 인간에 대하여 그는 고상히 평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고리끼의 전생애와 그의 창작적 활동은 력사적 행정의 내용을 깊이 분석하였을뿐만 아니라 혁명적 활동에 대한 호소와 미래에 대한 예견으로써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라지미르・일리츠・레닌는 막심・고리끼를 「프로레타리아트예술의 거대한 대표자」라고 명칭하였다。 고리끼는 자기의 소설 「어머니」, 희곡 「원쑤」 및 기타 많은 작품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예술가로 생활의 참상과 암흑을 참지않는 자유를 애호하며 헌신적으로 싸우는 인민들의 형상을 주었으며 천재적 예술가의 열렬한 감정으로 묘사된 프로레타리아트 혁명가들의 훌륭하고 선명한 형상들을 주었다」(몰로또브)

그는 「마뜨웨이・고쉐매낀의 생애」, 「포마고르제예브」, 「세사람」, 「왓사・섹레즈노봐」, 「아르따모노브의 영업」, 「예고르・부리쵸브와 기타사람」, 「도시예브가와 기타사람」, 「크림・쌈긴의 생애」와같은 작품을 통하여 고리끼는 로씨야 자본주의의 붕괴되는 력사적 지상을 예술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외에도 고리끼에게는 세계의 문단에서 첫째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있다。

이 론문을 통하여서 고리끼의 창작의 전모를

다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고리끼의 창작에 있어서 가장 저명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크림・쌈긴의 생애」에 대하여 간단히나마 밝힐 필요가 있다。 고리끼는 그의 걸작인 四부(部) 작 「크림・쌈긴의 생애」란 소설로서 자기의 창작적 활동은 종결하였다。 이 걸작의 구상이 벌써 一九○七년—一九○八년에 고리끼에게 있게되었다。 고리끼는 이 걸작의 제四부의 마지막 페지를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시각에 완필하였다。

「크림・쌈긴의 생애」는 고리끼의 전 창작적 생활의 총화이며 또 그의 가장 고상한 예술적 성과이며 동시에 二十세기의 세계문학에 있어서의 거대한 현상이다。 이 작품의 첫머리에는 四十년이라고 씌어있다。 그와같이 「크림・쌈긴의 생애」란 소설에는 로씨야의 四十년간의 력사가 반영되었다。

이 소설은 一九八○년대 즉 인민파들이 위기를 당한 시기와 첫 맑쓰주의적 크르쇼크들이 발생하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一九一七년의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승리로 끝을 마친다。 이 四十년간에 짜리로씨야의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운동은 발생하였고 위력한 력량으로 장성하였으며 위력한 볼쉐위끼당이 형성되었고 또 이 四十년간은 부르죠아 지주 사회의 소멸과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창설하는 준비의 기간으로 되었다。

크림・쌈긴은 十월혁명전 시대의 로씨야부르죠아인테리의 정확한 력사적 초상으로 될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본주의 세계의 정신적 내용을 체현한 형상이다。 크림・쌈긴의 정신세계는 창조적 빈약이며 현대 부르죠아사회의 공허한 사상적 또는 도덕적 정신세계이다。

부르죠아의 문화에는 개인주의가 대단히 농후하다。 그와같이 부르죠아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갖은 수단으로 가장하며 리상화한다。 부르죠아의 개인주의적 병풍뒤에는 사욕적 소시민들의 부패하고 허무한 생활이 숨기어 있다는 것을 고리끼는 이 소설에 반영하였다。 요란스럽게 떠드는 개인주의자들이 부르죠아사회의 유일한 영웅들이며 그들은 너무도 사소하고 너무도 리기주의적인 생기없는 생활을 하고있다는 것을 고리끼는 쌈긴의 형상으로써 표현하였다。 쌈긴은 극단적 개인주의자로서 물질적으로 가장 편리하고 안락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찾으려고 걱정할 뿐이었다。 고리끼는 쌈긴의 형상에 생활성이 없으며 또 재능도 없으며 겁이 많으며 조그마한 일에 대하여서도 벌벌떠는 성격을 가지고 새 생활을 창조하는 로씨야의 인민을 검은 안경으로써 바라보며 살고있는 퇴폐한 짜리로씨야의 인테리들을 전형화하였다。 크림・쌈긴은 자기 일생에 한개의 소설이라도 창작

하여 보려고 시험하였다。 그러나 창조적 재능을 가지지못한 크림·쌈긴은 우편 편지용지 十七페지를 겨우 썼는데 그것은 어떠한 예술적 표현으로 써진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론문이 되고 말았다。 그와같이 쌈긴은 생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반 생활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기때문에 그에게는 친구도, 가까운 사람도 없는 고독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고립된 인간으로 되었다。

고리끼는 쌈긴이 아무 재능도 소유하지 못한것이 그의 개인적 특성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력사적 운명이라는것을 말하였다。 이것은 멸망의 구렁에 빠진 자본주의적 세계의 무능력과 령락성의 법적 총화이며 벌써 그들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수있는 그러한 가능을 상실하였다는것이다。 쌈긴의 내적 세계는 반 혁명적이며 인민을 반대하는 반 인민성으로 가득찼다。 인민을 직접 만나는때마다 쌈긴에게는 증오와 적의와 공포의 감정이 끓어올랐다。 그렇기때문에 크림·쌈긴은 『인민은 인간의 적이다』라고 떠들어대였다。

이와같이 부르죠아세계의 퇴폐한 인테리들은 인민을 반대하여 죽어가는 부르죠아 계급의 편에서 마지막 길을 걸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저급한 리기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헤아리지않고 자기를 팔아먹고 살았다。

고리끼는 이 소설을 창작함에 있어서 부르죠아 사회의 퇴폐한 전형적 인테리들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정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장성과 그 혁명을 령도하는 볼쉐위끼들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볼쉐위끼 꾸뜨쏘브의 형상은 세계문학에 있어서의 영원히 천추만대로 남아있을 예술적 전형인 것이다。 이 전형은 혁명자 볼쉐위끼의 전형으로 쌈긴에게 정반대되는 전형이다。 꾸뜨쏘브의 백절불굴의 의지와 정력 그의 고결한 도덕과 침착성은 쌈긴을 압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꾸뜨쏘브와 쌈긴 사이에는 불상용적 모순이 놓이어있었다。 이 모순은 다만 레닌의 지도하에서 승리한 위대한 사회주의적 十월혁명으로써 해결되었다。 쌈긴은 볼쉐위즘을 반대하였고 결국 『레닌은 나의 원쑤』 이라고까지 감각하였다。 고리끼의 구상에 의하면 레닌이 외국으로부터 혁명적 페뜨로그라드로 귀국할때 쌈긴은 죽는다。

이러한 소설의 종결에서 사회주의승리와 쌈긴의 죽음을 상상할수있다。

사회주의적 휴마니즘으로 고무된 예술가로서 인류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자기의 전 일생을 바친 문인으로서만이 이러한 무자비한 력량으로써 자본주의의 오물인 쌈긴을 폭로할수있다。

고리끼는 자기의 창작생활에서 위에 지적한 로씨야 자본주의의 부패성과 장성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그의 승리를 개가하는데만 국한하지 않았으며 세계 자본주의의·침략적 성격과 독일파시즘의 야수성을 폭로하였으며 세계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을 고무하였다。

특히 고리끼는 오늘 세계의 패권을 외치며 새 전쟁을 도발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성, 비인간적 도덕을 반대하는 정치적 판프렛트들을 오래전부터 많이 창작하여 내었다。 그중에서 『황색도시의 악마』, 『공화국왕중에서의 한 왕』, 『도덕의 승려』, 『답답한 왕국』, 『미국잡지의 리력서에 주는 대답』등 판프렛트들은 비록 몇十년전에 출판되었다 할찌라도 오늘의 월가의 정치와 도덕을 폭로함에 있어서 자기의 정치적 사회적 의의를 조금치도 잃지않는다。 그럼으로 고리끼의 창작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막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쏘베트문학의 이러한 거대한 사회적 의의는 막심·고리끼로부터 시작하여 그는 세계로동계급을 사회주의적 정신으로 교양하고 있으며 투쟁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단련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 의식을 확고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문학은 근로대중속에 볼쉐위끼당의 사상을 배양하였고 또 배양하고있으며 세계의 공산주의적 혁신의 위대한 강령을 실천함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방조하고있다。

인민의 원쑤는 위대한 창작가인 막심·고리끼를 대단히 두려워 하였으며 증오하였다。 고리끼의 영향은 세계의 로동계급운동에 위대한 전변들을 일으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의 원쑤이며 살인도당으로 변절한 뜨로쯔끼, 지노비예브 일파들은 세계 인류문화의 횃불인 막심·고리끼를 암살하였다。 그러나 그놈들이 막심·고리끼의 육체는 없새었으나 그의 사상 작품들은 없새지 못하였다。 또 없샐수도없었다。 몰로또브는 막심·고리끼의 장례석에서 고리끼의 서거에 대하여 『레닌 이후 고리끼의 서거는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의 가장 아까운 손실』이라고 말하였다。 불란서 혁명작가 앙리 발르뷰스는 고리끼에게 대하여 다음과같이 썼다。 『고리끼는 전세계에 새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횃불이다』

고리끼의 형상은 二十세기의 저명한 문인들이 모범받아야될 새세계의 대변자이며 혁명의 예언자이다。 불란서 인민의 위대한 작가 로—맨로—랑은 『딴떼처럼 고리끼는 지옥으로 부터 나왔다。 그러나 그는 거기로부터 혼자 나오지않았다。 그는 자기뒤에 고통을 같이받던 자기의 동무들을 구제하여 끌고나왔다。 고리끼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길을 개척함에 자기의 모든 력량을 그에 다 바친 세계적 예술가중에서 가장 고상한 첫사람이다。

위대한 문인들중에서 어느 한 문인이든지 이와같이 고상한 역활을 논 문인이없다」 고 썼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이 승리한후 이전 문인들중에서 정치적 분렬이 생기였다。 그것은 예전 문인들중에서 어떠한 문인들이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의 진리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것이다。 혁명전 시기의 로씨야문인들의 다부분은 위대한 문호 고리끼의 뒤를 따라 사회주의 혁명과 쏘베트주권의 편에 섰었고 그 일부의 문인들은 쏘베트주권을 반대하여 나섰고 결국 외국으로 도망하고 말았다。 례를 들어 부—닌, 바르몬트, 메레스꼽스끼, 안드레예브 이러한 문인들은 끝까지 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의 진리와 성격을 리해하지못하고 로씨야를 떠나 외국으로 가버렸다。

그러나 이전 위대한 로씨야문호들중에서 부록크 브르쏘브같은 문인들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동정하였고 그에 참가하였으며 로씨야 문학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공훈을 끼치었다。 고리끼는 브르쏘브를 「서구라파의 가장 문명한 시인」 이라고 명칭하였다。 이 밖에도 고리끼의 뒤를 따라 혁명적 문호인 쎄라휘모비츠, 마야꼽쓰끼 및 기타 문인들은 쏘베트주권이 수립된 첫날부터 새로운 사회주의적 예술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공민전쟁당시에 볼쉐위끼공산당과 쏘베트주권의 심중한 배려에 의하여 쏘베트문학은 급속한 장성의 사상적 물질적 전제조건을 쌓게 되었다。 특히 레닌의 직접 고려와 후원을 받아 쏘베트문화의 형성은 장족의 세로 촉진되었다。 레닌은 문화혁명의 내용과 그의 과업을 악화한 프로문학가들의 오유를 시정하여 주었다。

새 문화와 인테리들의 력량을 집중하는 당과 쏘베트정부의 사업에 있어서 막심·고리끼는 적지않은 공훈을 끼치었다。 당시 쏘베트로씨야의 문화교육인민위원의 책임으로 있은 루나챠르쓰끼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예술을 위한 투사로 자기의 문학평론을 통하여 과거의 고전유산을 비판적으로 리용할것과 사회주의적 예술의 제문제들을 제출하였다。

쏘베트문학은 자기발전행정에서 부르죠아의 영향과 부르죠아의 개인주의적 타락적 경향을 재생시키려고 기도하는 문학의 각 학파들과 그루빠들과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제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쏘베트문학은 자기 발전의 첫 시기로부터 로동자와 근로대중의 영웅적 투쟁과 그들의 고결한 애국주의를 ·묘사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군자 공산주의당시의 쏘베트문학의 기본 쟈느르는 뽀에시야(詩)이였다。 공민전쟁당시에 쏘베트의 뽀에시야의 장래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준 작품들을

마야꼽쓰끼는 처음으로 창작하여내었다。 그중에서 례를 들면 「一五〇밀리온」 「예술인들에게 주는 명령」 「왼발을 맞추며 행진하라」 「밋세르붓프」 등이다。 이밖에 부록크의 시 「十二」와 「스끼프」 등도 적지않은 영향을 시 발전에 주었다。 브록크의 뽀에마 「十二」와 마야꼽쓰끼의 「一五〇밀리온」 이라는 뽀에마는 혁명의 첫시기의 뽀에시야의 비할데없는 시형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다。

당시 문인들의 작품들의 기본주제로는 낡은 사회를 증오하는 감정과 공민전쟁에서의 볼쉐위끼공산당의 역활과 그의 승리이었다。

위대한 로씨야의 민족적 시인 마야꼽쓰끼는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 사회의 창설을 위한 쏘베트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튼튼히 결속된 새 형태의 애국주의의 표현자로 되었다。 마야꼽쓰끼는 十월혁명에서 해방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이 개화되는 새로운 시대의 첫시초를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야꼽쓰끼의 창작에서 새로 재생된 로씨야에 대한 그의 감정을 볼수있다。 그는 쏘베트조국을 반대하여 무기를 들고 나선 영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침략에 대하여 무자비한 폭로와 타격을 주었다。 마야꼽쓰끼는 조국을 로력과 투쟁에서 탄생된 인간의 봄처럼, 찬양하였다。 그는 어느때든지 인민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의 충실한 아들로써 그들과같이 행복과 비애를 나누었다。

공민전쟁당시에 마야꼽쓰끼는 국내국외의 반혁명으로부터 조국의 옹호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정력을 다 바치었다。

그는 잠도 자지않고 쉬지도 않고 「오크노·싸찌라·로스따」 통신사에서 공작하였다。 쏘베트인민이 공민전쟁에서 승리자로 나섰을때 마야꼽쓰끼는 자본주의적 포위와 그들의 흉악한 음모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시인은 대륙에서, 해상에서 즉 분란, 파란, 중앙아세아 및 발칙크해에서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한 영국의 간책을 폭로하였다。

一九二七년여름에 쏘베트로씨야의 국제정세는 가장 긴장한 분위기에 처하여 있었다。

쏘베트동맹의 사회주의적 경제의 공고는 자본주의적 체계의 존재에 큰 타격으로 된다는것을 자본주의국가들은 알았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은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방해하며 파탄시키려고 새로운 공격을 기도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마야꼽쓰끼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책을 폭로하는 시들을 많이 써 내었다。 웅변적인 시인의 목소리는 전세계를 떨치었다。 자본주의적 포위에 대한 그의 시중에서 「그러나 안 그러냐?」, 「명심 하여 행진하라!」, 「호소」, 「직관표본」 및 기타 시들은

쏘베트인민들에게 혁명적 각성과 예리성을 교양하여 주었다。

마야꼽쓰끼는 쏘베트인민이 독일파시즘을 반대한 위대한 조국애호전쟁까지 살지못하였다。그러나 그의 시에는 파시즘을 반대하는 예리한 정치적 예견이 표현되었다。그때 파시즘은 주권을 장악하려고 겨우 힘을 준비하던 때였다。그러나 마야꼽쓰끼는 파시즘을 반대하여 「파시즘들과 불혀로 탄환으로 뾰죽한 창끝으로 말하여라!」 라고 호소하였다。

마야꼽쓰끼는 현대 부르조아사회의 사회적 불공평과 미제국주의의 야수적 성격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쏘베트동맹에서의 공업화와 미국의 기술화를 대립시켜 미국에서의 기술적 「진보」는 로동계급의 수억만대중의 빈궁화와 무직업자들을 탄생하고있으나 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기술적 진보는 근로대중의 생활상 복리의 수준을 상승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방조한다는 내용을 자기의 시에 표현하였다。외국에 대한 마야꼽쓰끼의 기행문과 시에는 애국주의와 쏘베트인민의 영웅성과 용감성이 가장 혁혁하게 표현되었다。

「불시에
마치
불덩이에 데운듯
각하님이 입을 찡그린다。
그것은 관리각하께서
나의
붉은 뚜껑의 대공민증을
받았음이다。
마치
폭탄을 쥐는듯
고슴도치를 쥐는듯
날카로운 면도를 쥐는듯
마치
스무혜뿔으로 휫파람부는
두메리의
독사를 쥐는듯
운반부의 눈은
의미깊게
껌뻑이어

짐짝이라도
무료로 들어다줄듯
헌병은
의문스레 형사를 바라보고
형사는
헌병을 바라본다
아주 멋있게
헌병의 손에
내가
얼어맞고 벌이라도 당할번—
내손에
망치와 낫그린
쏘련공민증이
쥐어있는 죄로、
나는 숭냥이 처럼
관료주의를
씹어버릴테다。
위임장을 도무지
존중히 여기지 않아、
어떤 종이장이거나
저갈데로 다가라
그러나 이것만은……
나는
넓다란 바지 주머니속에서
부본으로
고귀한
짐을 끄집어 내노니
자 읽으라
부러워하라 나는
쏘베트동맹의
공민이다」
(「쏘베트공민증」에서)

쏘베트문학의 발전계단에서의 제一기의 말년에 와서 산문작품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다。부흥기의 쏘베트문학의 기본주제는 공민전쟁에 대한 주제이

었다。실례로서 一九二四년에 쎄라휘모비츠 작 「철류」、一九二五년에 프루마노예브의 작 「차빠예브」 및 「소동」、一九二三년에 이와노브의 작 「빨찌산에 대한소셜」 등 기타 작품들이 발표되었다。이 작품들의 중요인물들은 인민이었으며 그의 내용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그들의 투쟁이었다。그러나 민족문학에 있어서는 산문작품들이 당시에 아주 적게 발표되었다。그 반면에 시 창작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인민경제의 부흥기와 공업화가 시작됨에 따라서 레닌이 내세운 "누가 누구를"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이 맹렬하였다。신경제정책시기의 맹렬한 계급투쟁의 환경에서 국가의 생활체계에 심각한 변천이 생기었다。죽어가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인민의 사상에 자기의 영향을 침투시키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쏘베트문학은 예술에서의 심보리즘과 악마주의적 경향을 회복시키려는 시도와의 투쟁에서 장성하여졌으며 공고하여졌다。

이 시기에 문학의 정치적 사상적 창작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그루빠들이 발생하였다。실례로 「랍빠」、「구즈니츠」、「문학전선」、「쎄라삐오노보의형제」 등 문학적 그루빠들이 발생하였다。이외에도 부르죠아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한 인민의 원쑤인 뜨로쯔끼주의자들과 부하린파들은 문학에서의 사상투쟁을 리용하여 쏘련에서의 부르죠아의 사상을 회복할 목적으로 르・쎄・페・쎄・르에서의 반동적 문학그루빠 「뻬레발」、백로씨야에서의 『우수비챠』 기타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부르죠아의 민족주의자들은 신경제정책 당시에 문화전선에서 이미 상실한 자기들의 진지를 회복하려고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였다。그러나 레닌 쓰딸린의 직접 지도와 볼쉐위끼공산당의 지도밑에서 쏘베트의 문인들은 이러한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경향과 반 맑쓰주의적 뜨로쯔끼 지노비예브의 경향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一九二〇년에 볼쉐위끼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프로문화에 대한 편지를 발표하였으며 그 편지는 쏘베트문학의 발전의 사상 창작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주었으며 또 문학에 있어서의 보그다노브의 학파들을 종결적으로 분쇄하였다。一九二五년에 볼쉐위끼공산당은 예술문학에 대한 특별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그에는 문학에 있어서의 반 혁명적 현상들을 반대하는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할것과 공산주의적 비판을 발전시킬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혁명을 철저히 리해하지못하고 동요하고 있는 문인 인떼리들에게 대하여 특별한 심중한 고려를 돌려야된다는것을 지적하였다。이외에 볼쉐위끼공산당은 十二차 및 十三차당대회에서 예술문화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쏘베트문학의 발전의 첫 시기에 있어서 과제예브의 「괴멸」、레베젠쓰끼의 「주간」、말리쉬끼의 작 「다이리의 함몰」、솔로호브의 「고요한돈」 제一부、바그리쯔끼의 「오빠나쓰에 대한 생각」、드레니요브의 희곡 「류로비야로바야」 등 작품들은 당시에 광범히 소개되었다。이 작품들의 다수 주제들은 공민전쟁과 련결된것이며 당시 로씨야에서 진행된 계급적 분렬과 밀접히 관련된 주제들이다。당시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발전을 묘사한 작품들도 발생하였는데 그중에서의 첫 작품으로는 랴스꼬의 「용광로」、표돌・그라드꼬브의 「쎄멘트」 등이었다。여기에는 생활의 주인으로 자기를 감각하는 새로운 쏘베트인간의 형성과 그들의 창조적 로력의 빠뽀스가 무르녹았다。이외에 농촌에서의 혁명적 혁신을 묘사한 쏘베트농촌에 대한 첫 작품들로는 쎄이플리나의 「위리네야」 「부식토」、까라바예바의 「제재공장」、빤페로브의 「부르쓰끼」 등이 발표되었다。당시 쏘베트문학에 있어서 인테리들의 운명에 대하여 묘사한 작품들도 발표되었는데 이는 베르싸예브의 「절명에서」、알렉쎄이・똘스또이의 「자매」 「十八년」、케・페진의 「형제」 「도시와해」 및 기타 작품들이었다。

고리끼와 마야꼽쓰끼의 작품들은 쏘베트문학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특히 마야꼽쓰끼는 공산주의를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과 련결된 심각한 혁명적 내용을 가진 새형태의 서정시들을 창작하였다。마야꼽쓰끼는 쏘베트사회의 영웅적 투사들의 형상을 반영한 수다한 시들을 창작하였다。또 그는 이외에도 관료주의와 악풍습을 발대하는 정치적 풍자시를 창작하였다。특히 그중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한 「회의꾸레기」란 정치적 시는 레닌의 특별한 환영을 받았다。마야꼽쓰끼는 쏘베트의 뽀에시야에 있어서 레닌의 형상을 묘사한 「울라지미르・일리츠・레닌」이란 뽀에마를 처음으로 창작하였다。쓰딸린대원수가 「마야꼽쓰끼는 우리쏘베트시대의 우수한 천재시인이었으며 또 그런 시인으로 남아있을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이와같이 마야꼽쓰끼의 뽀에시야의 영향은 아쎄예브、바기르츠끼、쎌빈쓰끼등 시인들의 창작에서 관찰할수가 있으며 민족시인 사리얀 브르군 떠친나 가프르굴얌 및 기타 민족시인들에게서도 볼수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선동적 시를 창작한 시인 찌미얀・베드니의 영향도 쏘베트문학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활을 리행하였다。

쏘베트문학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변들과 성과들을 인민대중속에 전파함에 있어서 가장 용이한 수법으로 수필 문체를 리용하였다。그리하여

쏘베트문학발전의 제一기에 있어서 수필이 발전되었다。이 수필 쟈느로의 대표자로는 「스땁쓰끼、아갑쁘브、골로쓰、브서ㅣ가 및 기타 문인들이었다。쏘베트문학은 자기의 발전의 첫 시기에 있어서 위에 지적한 그러한 발전의 경로를 사회발전과 함께 걸어왔다。

× × ×

쏘베트문학발전에서의 제二기는 一九三〇년—一九三一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정할수 있다。이 시기는 쏘련에서의 농촌경리의 전반적 단합화의 토대위에서 토호를 계급으로서 영영 청산하는 맹렬한 계급투쟁과 관련되어 전개되었다。「一九三〇—一九三四년의 기간에 볼쉐위끼당은 정권장악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가장 곤난한 력사적 과업 즉 수백만의 소 소유자적 농민경영을 꼴호즈의 길로、사회주의 길로 이행시키는것을 해결하였다。가장 수많은 착취계급인 부농의 청산과 기본 농민대중의 꼴호즈의 길로의 이행은 국내자본주의의 최후의 근간을 절멸시키고 농업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승리를 완성하게 하였으며 농촌에 있어서의 쏘베트권력을 종결적으로 강화시켰다。조직적 성질을 띤 여러가지 곤난을 극복한 후 꼴호즈는 철저히 강화되었으며 유복한 생활의 길에 들어섰다。

제一차五개년계획수행의 성과로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경제의 견고한 토대가 확립되었다。즉 제一급의 사회주의적 중공업과 기계화된 집단농업의 건설、실업자의 절멸、인간에 의한 인간착취의 근절、쏘베트조국의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상태를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지어졌던것이다。이러한 위대한 성공은 당과 정부가 취한 대담하고 혁명적이고 총명한 정책하에 우리나라의 로동계급 꼴호즈원 근로자전체의 손에 의해서 달성된것이다」(「볼쉐위끼 공산당력사」五七二—五七三페지)

쏘련의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이러한 물질적 정치적 전변은 쎄•쎄•쎄•로의 각 민족들의 의식에 새로운 맑쓰—레닌주의적 세계관을 주입함에 있어서 막대한 전제조건으로 되었다。이러한 사회발전의 법칙적 결과에 문인자체의 사상적 전변과 예술적 표현방법이 새로운 계단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미 지적한바와같이 쏘베트문학에 있어서의 예술적 방법은 쓰딸린대원수가 규정한바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이다。一九三二년 四월二十三일부 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력사적 결정은 브오아프 랍쁘 및 기타문학 그루빠들을 청산하고 쎄•쎄•쎄•르에서의 모든 문인들을 유일한 동맹에 단결시켰으며 그 내부에 공산주의적 그루빠를 두었다。이러한 단결은 다만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와 쏘베트주권의 정강에 인테리들의 모든 기본인재들을 고정화한 결과에서 가능할수 있었다。

一九三二년十월二十六일에 고리끼의 사택에서 쓰딸린과 문인들의 력사적 회견이 있었다。이 회견에서 쓰딸린대원수는 쏘베트문학의 예술적 방법이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임과 또 사회주의적 사회에서의 문인들의 역활을 지적하면서 문인들은 「인간 정신의 기사」라고 명칭하였다。

특히 당시 쏘베트문학발전에서 문인들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전취함에 있어서 제一차 전로문사동맹대회는 중요한 요소로 되었다。제一차 전로문사동맹대회에서 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아•스다노브와 막심•고리끼가 쏘베트문학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그들은 자기의 보고에서 전세계 문학발전에 있어서 볼쉐위즘의 승리를 지적하였다。

이 시기의 쏘베트문학의 형성에 있어서 평론과 문학에 있어서 또 고리끼가 시작한 언어에 대한 론쟁에 있어서 옳지않은 사회학자들과 자연주의와 형식주의를 반대한 「쁘라우다」에 발표된 론문이 거대한 역활을 놀았다。이 론문들은 문학에서의 형식주의적 경향과 문학의 비 정치성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또 문학의 진정한 인민성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제二기의 쏘베트문학의 저명한 작품중의 하나인 숄로호브의 「개간된 처녀지」는 꼴호즈농촌을 주제로한 작품으로서 쏘베토문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이 소설에는 쏘베트농촌에서 볼쉐위끼공산당의 지도밑에서 전반적 단합화가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며 그 기반위에서 농촌의 수다한 개인요소들을 숙청하는 맹렬한 계급투쟁이 전개되었으며 농촌의 농민들이 대중적으로 꼴호즈 제도로 전환한 력사적 사변들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방법으로 묘사한 일대 걸작이다。숄로호브는 이 소설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의 생활성과 백전백승의 위력、그의 진정한 인민적 내용을 표현하였다。특히 이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 볼쉐위끼 다비도브의 형상은 쏘베트문학에 있어서 긍정적 형상들중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모범으로될 형상이다。왜 그러냐하면 다비도브의 형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요소를 가진 개인소유에 대한 증오심、혁명과 레닌 쓰딸린당에 대한 헌신성、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이러한 특징들이 다비도브의 형상에 종합되었기 때문이다。다비도브는 볼쉐위끼당의 파견을 받은 二만五천명중의 한사람으로 농촌을 사회주의적 길로、꼴호즈제도로 인도하는 사업에서 꼴호즈의 지도자로、당의 강철같은 의지를 상징하여준다。그는 함대에서 해군으로 복무하였고 다음으로 공민전쟁에서 혁명을 위하여 싸웠

고 마지막으로 쏘베트주권의 공업화를 위하여 제일선에서 싸운 뜨질로브공장의 로동자이었다。 그는 이러한 투쟁적 행로에서 혁명적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소설에서 알수있다。

이후 쏘베트문학에서 끌호즈생활을 묘사한 작품들은 로씨야문학에서만 볼수있는것이 아니라 쏘련의 민족문학에서도 많이 볼수있다。 실례로 그루지야의 끌호즈생활을 묘사한 레오끼야첼리의 소설 「그바지비그바」、아르메니야의 끌호즈생활을 묘사한 작품중에서 자리얀의 「하짜반」 등 기타 작품들이 있다。 특히 끌호즈화의 복잡한 행정을 묘사한 작품들 중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판페로브의 「부르스끼ー」、스땁쓰끼의 「질주」、끌로스의 「드리그바」투와르돕스끼의 뽀에마 「무라브 나라」、르네츠크의 희곡 「우크라이나의 초원에서」 및 기타 많은 작품들이다。 이와같이 쏘베트농촌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적 공격은 쏘베트문인들의 창작의 주제로、원천으로 되었다。

쏘베트문학의 제二기에 있어서 광범히 전개된 국가의 공업화와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의 굉장한 건설의 행정을 반영한 다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의의있는 작품들은 표돌・그라드꼬브의 「정력」、말리쓰킨의 「궁벽한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까따예브의 「시간은 나아간다」、사기냔의 「수력발전소」、아이니의 「사람은 물과 싸운다」、지미르챠의 「선장」、뽀고진의 희곡 「템뽀(속도)」 「도끼에 대한 뽀에마」 및 기타 작품들이다。

제二기의 쏘베트문학에서 쏘베트인민의 행복、승리에대한 환희、자유롭고 자각적이며 행복한 로력으로된 쏘베트제도에서의 로력에 대한 공산주의적 관계、새로운 인간에 대한 교양 및 애국주의에 대한 주제들이 그의 성격적 주제로 되었다。 그뿐만아니라 이전과 같이 공민전쟁의 영웅들이 쏘베트문인들의 많은 작품에서 계속 반영되었다。

특히 이러한 작품중에서 오스또롭쓰끼의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는 쏘베트청년들을 공산주의적 사상으로、애국주의로 교양함에 있어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볼쉐위크 빠베르・꼴챠낀의 형상은 지금에 있어서도 자기의 혁명적 의의와 교양적 의의를 잃지않는다。 독일파시즘을 반대한 쏘련의 조국애호전쟁에서 쏘베트의 청년들은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를 참호에서 읽으며 원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 싸웠다。 외국 평론가 싸두엘리는 느・오스또롭쓰끼의 소설에 대하여 「오스또롭쓰끼의 소설과 유사한 책을 이때까지 창작한 적은 없다。 이 소설은 폭풍으로써 탄생한 새사람에게 대한 사시이다」라고 썼다。

이외에도 공민전쟁의 주제를 기본으로 하고 창작한 작품들중에서 현하에 있어서도 자기의 예술적 정치적 의의를 잃지않은 작품들이 허다하다。 그중에서 실례를 들면 야놉쓰끼의 「기병대」 또 쏘베트주권의 원쑤인 토호의 야수적、용모를 적라라하게 예술적으로 반영한 븨르따의 소설 「고독」、원동에서의 공민전쟁을 묘사한 파제예브의 소설 「우데게이로부터 온 마지막 사람」、짜리찐의 영웅적 방어에 대하여 묘사한 아・똘쓰또이의 소설 「곡물」 기타 많은 작품들이다。 특히 당시에 있어서 공민전쟁에 대한 저명한 작품이며 세계문단에서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렉세이・똘스또이의 三단작품 「고통의 행로」、숄로호브의 「고요한 돈」 등이다。

소설 「고요한 돈」은 쏘베트 에뽀쓰의 훌륭한 대본중에서의 하나이다。 이는 혁명전 시대의 짜리로씨야의 돈변강에 사는 까자크들의 생활、또 제一차세계전쟁당시、二월혁명과 十월혁명당시、마지막으로 공민전쟁당시의 돈 변강에 사는 까자크들을 묘사한 일대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숄로호브의 「고요한 돈」을 「돈까자크들의 생활의 백과사전」이라고 명칭할수있다。

알렉세이・똘스또이의 三부작 「고통의 행로」는 로씨야의 인테리들이 十월혁명과 공민전쟁 당시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그들이 인민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고 하였던가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이 작품의 첫부분은 「자매」라는 명칭을 가지고 一九二一년에 발표되었고、제二부는 「十八년」이란 명칭하에서 一九二六년에 발표되었고、마지막 제三부는 一九四一년에 「히미한 아침」이란 명칭하에서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장구한 력사적 기간을 포괄한 일대 작품이다。 그와같이 이 소설에는 로씨야에서의 전쟁과 혁명으로써 생긴 거대한 사회적 사변들이 반영되었다。 소설제一부 「자매」는 전쟁전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전쟁시기ー十월혁명시기까지 망라되었다。 소설 제二부에는 공민전쟁과 무장간섭시기의 어려운 사회적 사변들이 전개되었다。 그와함께 거기에는 자매 까쨔와 다샤의 개인생활이 묘사되었다。 기사 쩰레긴에게 대한 다샤의 사랑、이와 반대로 백파장교 로쉰과의 맺어진 까쨔의 불행한 가정생활은 광범한 사회적 정치적 토대위에서 묘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자매」는 우리에게 전쟁전、혁명전 로씨야부르죠아사회의 와해와 데까단들의 부패성을 보이어준다。 소설제二부 「十八년」에는 인민의 유일한 진리와 볼쉐위즘의 진리가 확증되었다。 벌써 여기에서 쩰레긴은 자기 인민과 자기나라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붉은 군대의 대렬에서 그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볼쉐위즘이 로씨야의 행복과 자유를 가져온다는것을 철저히 인식한 찔레긴은 백파군대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그러나 백파장교 로쉰은 다른 길을 걷고있었다。 물론 그도 자기관점으로서 로씨야를 사랑하기는 하였으나 인민을 믿지않았다。 그는 로동자와 농민에게 대하여 적대적 관계를 취하였고 자기의 모든 희망을 낡은 군대의 무력으로써 찾으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파군대의 대렬에서 로씨야를 구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는 사회발전에서 로쉰은 백파장병들의 사욕적 행위, 음주, 략탈등 무제한 그들의 야수적 도덕으로 로씨야를 구재할수 없다는것을 점차적으로 감각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로쉰에게는 백파군대가 와해되는것이 더 똑똑히 보이였다。 그와같이 그는 무서운 번민과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작자 알렉세이·똘쓰또이는 정반대되는 두 형상을 묘사하면서 공민전쟁의 어려운 풍파를 돌파하는 볼쉐위즘의 위력을 확증하였다。

똘쓰또이는「고통의 행로」제三부를 파시스트 독일이 로씨야를 불의에 침공하던날—一九四一년六월二十二일에 끝을 마치었다。 여기에는 인민속으로부터 아무 고통과 동요가 없이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람들은 똘쓰또이의 작품「곡물」에서 이완고—라와 아그리삔나의 형상들이다。

소설「고통의 행로」의 주인공들은 그들과같이 결국 길을 걸었다。 이것은 로씨야의 인데리들의 훌륭한 부분들의 인민과의 결속을 말하여 주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공민전쟁의 중요한 사변을 배경으로하고 인테리들의 사상적 활로와 오유들을 적발하였고 결국 그들의 이 오유들을 극복하면서 인민과 조국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을 묘사하였다。

이외에도 똘쓰또이 창작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작품중에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될것은 력사소설「뾰똘제一세」이다。 알렉세이·똘쓰또이는 이 소설을 통하여 뾰똘제一세는 로씨야의 짜리 개혁자라는 형상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와같이 당시 쏘베트문학에 있어서 력사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례를 들면 로씨야인민이 영·불 무장간섭자들을 一八五四—一八五五년에 반대한 세바쓰또뽈의 방어를 묘사한 작품 세르게이 쩬쓰꺼의「쎄빠스또뽈스까야 스뜨라—다」, 로씨야의 저명한 인사들의 형상을 묘사한 유·뒤냐노브의「아뿌쓰긴」, 차삐긴의 소설「쓰떼빤라—진」, 쉬스꼬브의 소설「예미르얀·뿌가쵸브」, 보로진의「드미뜨리돈쓰끼」및 기타 력사적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쏘베트시인들과 문인들은 쓰딸린적 인민의 친선

에 대한 주제로써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때에 있어서 쏘베트문학발전에 인민의 수령 레닌과 쓰딸린의 형상을 묘사한것이 지대한 의의가 있었다。 실례로써 이러한 작품들은 보고지나의 희곡「총가진 사람」「크레믈리의 꾸란트」, 꼬리네츠끄의「진리」, 드레네브의「네바 강변에서」등 기타 작품들이 있다。

이와함께 쏘베트문학발전에 있어서 아동문학이 광범히 발전되었다。 그러나 아동문학이 제二기로부터 자기의 발전을 가지게된것이 아니라 벌써 제一기에 자기의 창작적 출로를 가지었다。 실례를 들면 벌써 그때에 말샤크, 츠꼽쓰끼, 쉬ㅅ꼬브등 아동 작가들은 훌륭한 아동작품들을 창작하여 내었다。 특히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실행당시에 훌륭하고 재능있는 아동작가 까씰리 가이다—르, 바르또, 미하르꼬등 작가들은 훌륭한 아동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쏘베트문학발전의 제二기에 있어서 쏘베트문학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로씨야인민들의 생활에서 흘러나오는 다양다채한 생활의 현실과 과거 로씨야 인민들의 영웅성을 묘사한 작품들이 창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있다。

× × ×

一九四一년六월二十二일에 독일팟쇼들은 쏘베트동맹에 불의의 침공을 시작하였다。 팟쇼독일은 독일 인민들의 피로써 자유와 평화를 고수하는 인민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이때까지 인류의 력사에서 가장 포악한 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붉속에서 단련되었고 인류를 새로운 광명의 세계로 령도하는 사업에서 가장 풍부한 과학적 경험으로 무장된 볼쉐위끼공산당이 지도하는 쏘련인민은 전세계의 자유애호인민의 저주를 받는 독일팟쇼를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애호전쟁에 총궐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인민의 위대한 조국애호전쟁은 쏘베트제도의 성색의 거찬 검열로 되었으며 동시에 이 위대한 조국애호전쟁은 쏘베트인민과 그들의 조국앞에 가장 엄중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서 인민의 생활과 인민의 미래와 그들의 애국주의를 반영하는 쏘베트문학에도 그와같이 엄중한 과업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쏘베트의 문인들은 조국과 자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원적으로 쏘련군대의 대렬에 가입하여 정치일군으로, 군대출판기관의 근무자로, 군사특파기자로, 전선에서 원쑤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전선에, 참가한 문인들중에서 二백四十명의 문인들은 희생을 당하였다。 희생당한 문인들 중에는 쓰땁쓰끼, 가이다르, 클리모브, 아피노게노브, 페뜨로브, 페—빈, 우트낀, 조우랴등의 저명한 문인들도 있었다。

이 반면에 조국전선에서 영웅성을 발휘한 문인,

三백명은 정부로 부터 훈장을 받았다。

조국애호전쟁당시에 위대한 쏘베트의 시인 마야꼽쓰끼가 조직한 「오크노 로스따」의 전통을 계승하여 「오크노따쓰」가 조직되었다。「오크노따쓰」는 조국애호전쟁에서 일어나는 풍부한 사변들을 예리한 감정과 풍자로써 인민들에게 시시 각각으로 선전하였다。이 사업에 시인 마르샤크, 레베제브꾸마츠 기타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와함께 당시 사변들을 상시적으로 전달함에 있어서는 간단한 기행문, 수필, 정론들이 필요하였다。그리하여 이러한 작법으로써 위대한 문인 알렉세이·똘쓰또이, 일리야·엘렌브르그, 고르바또브, 레오노브, 완다·와씰렙쓰까야, 느·찌호노브, 위씨넵쓰끼, 이싸아깐, 끼꼬제등 문인들은 새사변들을 신문 잡지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선전 해석하였다。

조국애호전쟁당시에 니꼴라이·찌호노브, 크·씨모노브, 쑤르꼬브, 스웨뜰로브, 안또꼬르쓰끼, 트바르똡쓰끼, 씨빠쵸브, 이싸꼽쓰끼, 자리얀, 가프르굴얀, 리드쓰끼, 되친나, 굴리쇼브등 문인들의 창작에서 서정시가 급속히 발전되었다。이들의 서정시에는 쏘베트동맹의 많은 민족들의 전투적 통일과 형제적 친선에 대한 열렬한 감정과 애국주의가 광휘있게 표현되었다。이때에 미하르꼬브, 엘리·에레기쓰딴 두 문인은 쏘베트동맹의 국가를 창작하였다。

전쟁행정에서 신문과 희곡이 발전되었고 쁘에시야에 있어서, 쁘에마가 중요한 비중을 가졌다。실례로써 꿀리쇼브의 쁘에마 「려단의 기치」, 니꼴라이·찌호노브의 「끼로브는 우리와 함께」, 웨라엔베르그의 「뿔꼽쓰끼의 메레지안」 및 기타 훌륭한 쁘에마들이 많이 있다。이외에도 빨찌산들과 붉은 군대의 군인들이 조국을위하여 자기들의 마지막 숨길까지 바치며 투쟁하는 그들의 영웅심과 애국주의, 인내성, 또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않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용감성등을 묘사한 산문들이 발표되었다。그중에서 一개의 실례로 쓰딸린그라드의 방어를 묘사한 찌모노브의 작 「낮과 밤」, 빨찌산의 영웅적 활동을 묘사한 웰찌고—라의 「깨끗한 량심을 가진 사람들」, 이그나또브의 작 「이그나또브의 형제부대」 등 기타 많은 작품들이 있다。

독일팟쇼들의 림시적 점령지대에서 적들의 야수적 고통을 받으면서 승리를 믿고 파시즘과 강경히 투쟁한 쏘베트인민들을 묘사한 작품들도 많이 발표되었다。그중에서 일부의 례를 들면 완다·와씰렙쓰까야의 「무지개」, 고르바또브의 「정복되지않는 사람들」, 숄로호브의 「증오의 과학」, 또 후방의 영웅적 로력을 묘사한 그라드꼬브의 「맹세」, 샤기냔의 「방어에 선 우랄」 기타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또 쏘련군대의 전투적 경험의 장성과 그들의 위업을 묘사한 작품들중에서 실례를 들면 꼬르네츄크의 「전선」, 뻬레벤쩨브의 「불떵어리된 땅」, 크로쓰만의 「인민은 죽지않는다」, 크로느의 「함대의 장교」 등 기타 작품들이 있다。특히 이 당시의 쁘에시야의 부면에서、트바르똡쓰끼의 쁘에마 「와씰리 쬬르겐」, 말가리따·알리겔의 「조—야」, 찌호노브의 「끼로브는 우리와 함께」 등 쁘에마는 쏘베트군대의 병사들의 애국적 위업의 전형과 헌신성을 묘사한 훌룡한 작품의 일례들이다。

쏘베트문학은 전쟁시기에 있어서 쏘베트인민의 선진적 혁명적 이데올로기와 쏘베트인민의 고결한 도덕 및 쏘베트동맹의 각 민족들의 형제적 통일을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으로 반영하였다。쏘베트문학은 파시즘을 사상 정치적으로 진멸하는 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역활을 리행하였다。완다·와씰렙쓰까야의 「무지개」, 아·파제예브의 「청년근위대」, 숄로호브의 「증오의 과학」 등에는 인간을 증오하는 파시스트들의 야수적 용모가 뚜렷하게 반영되었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심오하게 폭로하였다。그 반면에 쏘베트문학은 쏘베트사람들의 고귀하고 위대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파시즘의 완전한 소멸의 력사적 조건과 필연성을 력설하였다。

쏘베트문학은 어려운 력사적 시련에서 확고된 인간사회의 발전의 가장 진보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인간의 최고원칙에 기초한 쏘베트제도의 백전백승의 위력을 반영하였다。그렇기때문에 쏘베트문학은 제二차 세계전쟁 당시에 있어서 인류사회의 가장 포악한 독일파시즘을 진멸하는 결사전으로 전 인민을 고무 격려시켰던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쏘베트문학은 자기의 력량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기양양한 정신으로 쏘베트청년들을 교양주었기때문에 쏘베트인민은 불쉐위끼 공산당과 쏘베트정부의 지도밑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의 거대한 난관들을 돌파하였고 세계의 패권을 공상하던 독일파시즘과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전세계 피압박 약소민족들에게 새로운 민족적 력사발전의 새 페지를 열어주었다。

그러므로 쏘련볼쉐위끼 공산당 책임비서로 있던 아·스다노브는 잡지 「레닌그라드」와 「별」에 대한 자기의 보고에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만약에 우리가 청년들을 타락적 정신과 우리사업에 대한 불신임적 정신으로써 교양하였을것같으면 어떻게되었을까? 그리하였다면 우리는 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였을것이다。다시말하면, 쏘베트국가와 우리당은 쏘베트문학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청년을 용감한 정신과 자기의 힘을 믿는 정신으로써 교양하였기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 있어서의 큰 난관들을 극복할수가 있었고 독일파

일본에 대한 승리를 얻을수가 있었다」이 스다노브의 말씀에서 우리는 청년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쏘베트문학이 고상한 역할을 리행하였다는것을 알수있다。

위대한 조국애호전쟁당시에 있어서 쏘베트국가의 정책과 쏘베트문학의 유기적 련결과 통일은 가장 원만하게 표현되었다。쏘베트동맹에 대한 파시스트들의 침공은 쏘베트인민의 새롭고 거대한 애국적 위기를 더한층 환기시켰으며 독일파시즘을 반대하는 전인민적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쏘베트 문학의 기본 빠뽀스가 애국주의로 규정되었다。이 세계사적 전투의 위기의 시각에 쏘베트문인들은 조국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에 자기의 예술적 무기를 들고 복무하였다。이 어려운 전쟁당시에 문인과 인민간의 사상정치적 완전무결한 통일을 표현하는 문학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쏘베트인민은 위대한 조국애호전쟁에서 독일파시즘과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한 세계사적 승리를 쟁취한 후 평화전설기의 전환기에 걸음을 옮기면서 쏘베트문학앞에 새로운 과업을 내세웠다。즉 이 과업은 아·스다노브가 자기의 보고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리인민은 인민이 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체험한 큰 경험을 쏘베트의 작품들이 사색하고 보편화하기를 요망하고 「적을 구축한후 인민경제를 재전하고 있는 인민의 영웅주의를 표현하고 보편화하기를 요망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초기에 있어서 쏘베트문학은 조국애호전쟁과 사회주의건설의 영웅들을 묘사하였다。그러한 작품들중에서 일부의 훌륭한 작품들을 렬거하면 아·파제예브의「청년근위대」、오베치크의「전선으로부터 받은 축하」、까베린의「두 선장」、기타 많은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조국애호전쟁이 승리적으로 종결된 후 쏘베트문학가들중에서 일부 어떠한 작가들은 사상전선에 있어서 특히 사상교양사업에 대한 문제에 정상적 당적고려를 무시한 그러한 실례들이 있었다。이러한 결과에 잡지「별」과「레닌그라드」에는 사상적으로 저급하고 쏘베트인민을 비방하며 만화시킨 쇼센꼬의「원숭이의 이변」과같은 아무 내용이 없는 소품들과 녀류시인 아흐마또브의 반동적인 비애와 미몽과 개인주의적 사상으로 일관된 시들이 발표되었다。이러한 비당적이며 반인민적인 현상에 대하여 쏘련 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는 제때에 볼쉐위끼적 비판을 주었으며 퇴폐하고 반동적인 소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를 사상전선에서 재생시키려고 기도하던 문인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

는 동시에 쏘베트문학발전에 새로운 사상적 문제들을 제기하는 결정을 一九四六년八월十四일에 채택하였다。

사상교양사업의 문제에 관한 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쏘베트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창작적 상승에 대한 위력한 자극을 주었다。그렇기 때문에 몰로또브는 一九四七년十一월六일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三十주년기념보고에「우리의 인테리겐챠 문화인 과학예술방면에 나선 인사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고귀한 쏘베트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공산주의와 밀접한 사상적 련결이 있는 작가들의 문학작품들이 현재 가장 우수한것은 우연한 사실이라고 할수없는것이다。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는 홍발적 로동과 조국을 위한 영웅적 투쟁과 고상한 사상을 가진 창작사업에 인민을 고무시킨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조국전쟁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헌신적으로 고수한 쏘베트사람들의 영웅심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반영한 많은 새 문학적 작품들이 발표되었다。그중에 있어서 파제예브의「청년근위대」、부베노브의「백화(白樺)」、빠—노바의「동반자」、니크라쏘브의「쓰딸린그라드참호속에서」、뽈레브의「참된사람의 이야기」、끄슬로브의「크림반도의 지하에서」、칠스꼬브의「승리자들」、비르따의「쓰딸린그라드의 전투」및 베레스꼬의「장군의 밤」등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이와함께 전후 평화기의 평화적 노력에 대한 예술작품들도 많이 발표되었다。그러한 작품들은 바브렌꼬의「행복」、바바예브의「금별을 받은 기병」、네도고노브의 뽀에마「농촌쏘베트위의 기빨」、싸프로노브의「한 도시에서」등 기타 작품들이 발표되었다。특히 지적할것은 꼰싼찐·씨모노브의 희곡「로써야문제」는 자본주의 세계의 야수적 도덕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으며 또 부르죠아의 민주주의의 허위와 기만을 폭로하였다。그러면서 작자는 그러한 불상용적 계급적 모순을 가진 조건에서 진정한 사람들은 패권자들로부터 추궁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것을 본 희곡에 보여주었다。특히 이 희곡에 있어서 현하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의 수중에 예속된 미국 반동적 출판물들의 허위적 기만적 술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미국의 진보적 출판계의 인사들을 보이어 주었다。

최근에 있어서 쏘베트문학은 특별히 거대한 상승기에 처하여 있다。그것은 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무된 쏘베트문인들은 쏘베트의 애국주의의 창조적 력량과 쏘베트인민의 로력적 위업과 현대 쏘베트생활의 새 현상들을 재능있게 반영한 저명한 문학예술적 작품들을 많이 창작한

그에 있는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쏘련정부의 부수상 몰로또브께는 위대한 十월사회주의 혁명 三十一주년에 대한 보고에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우리는 최근에 와서도 쏘련예술의 성과 특히 쏘련문학의 성과를 당당히 자랑하여 마지않는바 이것은 당의 솔선적 지도사업의 적지않은 성과인것이다。우리의 문학 영화 기타·각종예술은 자기의 형상을 통하여 쏘베트시대의 각 사변과 인사들의 사업의 사상적 의의를 명백하게 발현시켰다。참된 예술은 리해하기 쉬우며 사람의 인식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오늘 쏘련예술향상의 의의가 쏘련인민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시킴에 있어서 그처럼 막대한 것이다。쏘련예술은 자본주의 출판물들이 근로자돌의 목전에서 은폐하거나 혹은 의곡시키려고 애쓰는 우리조국의 업적을 반영하면서 멀리 국외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一九四八년도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쓰딸린상을 수여함에 대한 쏘련정부의 결정은 쏘베트문학의 새 상승에 대한 증거로된다。산문 시 및 희곡작품에 있어서 쓰딸린상을 받은 작품들은 쏘베트의 인민과 제국가의 인민들의 무한한 애독을 받고있다。

一九四六년—一九四七년도에 「원동」이란 잡지에 와셸리·아자예브의 소설 「모쓰크바로부터 먼곳」이 발표되였다。그후 작자 자신의 부분적 수정이 있은 후 一九四八년도에 「신세계」 잡지에 재차 발표되었다。이 작품은 광범한 독자와 저명한 명성을 짧은 시일내에 전취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특징과 형상과 작품에 묘사된 쏘베트로동계급의 선진적 성격을 종합한 점에 대하여 간단히 지적하려고 한다。작자 아자예브가 자기의 소설에 묘사한 주인공들은 어떠한 고요하고 안정한 그러한 구석을 찾는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자연의 힘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현대 쏘베트의 인민들이다。「모쓰크바로부터 먼곳」이란 소설은 원유도관(導管) 건설에 대한 이야기다。이 소설에 묘사된 제반 사건들은 모쓰크바부근에 독일파시스트들이 총 진격을 개시하고 모쓰크바로 돌진하던 一九四一년—一九四二년 엄혹한 겨울에 진행된다。

이 시기가 쏘련인민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엄혹하며 위기적이며 또는 비관적이란것을 누구든지 잘 기억할수 있다。이 시기는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지어 쏘베트동맹내에서까지 전쟁의 출구에 대한 각종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조차 있게된 시기였다。그러나 이 시기에 쏘베트정부와 볼쉐위끼당과 쓰딸린 대원수는 독일파시즘에 대한 쏘베트인민의 확고한 승리에 대하여 예고하였고 력설하였다。

그와 동시에 우랄의 공장들에서, 씨베리야의 전원에서, 꾸스바스의 광산에서, 바시끼르와 원동의 원유생산지에서 승리는 단련되었다。다시말하면 쏘베트인민은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모든 조해와 결정적으로 투쟁한 결과에 그를 쟁취하였다。

승리를 위하여 원유도관을 건축할 필요를 국가는 절실히 느끼었다。이러한 거대한 건축을 위하여서는 적어도 三년이라는 세월을 경과하여야만 될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일하는 어떠한 전문기술자들이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조국이 위기에 박도한 쏘베트국가는 그와같은 장구한 시기를 기다릴수 없었다。낡은 기술의 정량과 한계에 묻히우고 인민들의 새로운 창조력에 대하여 적게 신임하는 그러한 낡은 전문기술자들을 교대하여 새 사람들이 나서게 되었다。이러한 새 사람들은 소설에 묘사된 건축소소장 바뜨마노브 기사들—브리드셰, 꼽쏘브, 당과 정권기관 일꾼들 및 기타 원유도관 건설자들이다。원동변강의 엄혹한 자연과 밀림이 원유도관 건설자들의 의지와 목적을 굴복시키지 못하였고 도리어 저들이 강인한 저항에 굴복되고 말았다。볼쉐위끼적 조직성은 자연과의 투쟁에서도 승리하였다。원유도관은 한해동안에 건설되었다。

작자는 어떻게 한해동안에 이러한 거대한 건축을 완수하였는가? 또 어디에 그와같은 위업을 실천한 력량이 있는가? 에 대하여 말하여 준다。전축소장으로 부터 땅파는 보통건축자들까지 공산주의적 의식으로 고무되었다。그들은 하나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고 있었나니 어떠한 힘으로써든지 어떠한 손이든지 헤아릴것이 없이 정부의 결정을 꼭 실행할 그 욕망뿐이었다。국가의 고상한 복리와 공산주의는 이것을 요구하였다。통신련락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업에 있어서 적지않은 지장을 주었다。그리하여 기사 딴야·와씰첸꼬는 가장 용감하고 인내성 있는 청년들로써 련락원 브리가—드를 조직하여 가지고 자기가 친히 그 브리가—드의 선두에서 달반동안에 머나먼 건축장까지 밀림을 통하는 전선을 늘이었다。도로가 없었다。뜨락또르 운전수 씰린과 자동차운전수 쓰몰츠꼬브는 직직한 밀림속에다 자동차와 뜨락또르가 다닐수있는 길을 닦아놓았다。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몇백키로메—돌의 길이 요구되는것을 그들은 잘알았다。그러나 이러한 길을 누구에게서든지 방조 받을수 없었다。다만 자기의 힘으로써만이 이러한 길을 개척할수밖에 없었다。이 보다도 더 무서운 일은 건축도본에 길건축에 대하여 명시되지않은것이었다。그리하여 기사 브리제와 꼽쏘는 방향을 바로 정하기 위하여 깊은 밀림으로 쎌매를 라고 다니며 라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정한다。하루 이틀 일주일씩을 그들은 밀림속에서 방황한다。그들은 눈위에서

밤을 새우며 무서운 설풍과 치위를 영웅적으로 극복하면서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위업들은 소설에 묘사된 주인공들이 자기의 개인의 향락과 안일을 만족시킬 목적으로써 이러한 위업을 실천한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조국과 사회와 공산주의의 고상한 리익으로써 그러한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이와같이 이 작품은 쏘베트인민들이 조국을 위하여 공산주의를 위하여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전 인민적 승리를 쟁취한 위업에 대하여 묘사한 작품이다.

까짜크 문인 묵따르·아우에소브의 소설 「아바이」도 쓰딸린상을 받았다. 이 소설의 작자는 까짜크의 위대한 시인이며 계몽자인 아바이의 형상을 고상한 예술적 수법으로 묘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작자 아우에소브는 아바이가 로씨야인민을 까짜크인민의 위대한 친구로 본 그의 고결한 사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이 소설에는 十九세기 후반기 까짜크의 근로대중의 생활이 사실주의적으로 혁혁히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묵따르·아우에소브의 소설 「아바이」는 다민족적 쏘베트문학의 보고의 값있는 보물로 된다.

작가 꼰싼찐·페진은 소설 「첫 기쁨」을 발표한후 一九四八년도에 소설 「비상한 여름」을 발표하였다. 이 두 소설에는 로씨야의 남쪽에서 진행된 一九一九년의 력사적 사변들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예술적으로 말하여 준다. 소설에는 새 쏘베트국가의 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혁명적 투쟁의 영예로운 학교를 경과한 볼쉐위크 끼르흐 이스베꼬브의 진실한 형상을 창작하였다. 무엇이든지 겁내지 않는 용감성을 가진 전문적 혁명가인 볼쉐위크 로고신의 형상은 꼰싼찐·페진의 창작중에서의 볼쉐위크적 형상을 성과적으로 창조한 형상중의 하나이다. 꼰싼찐·페진은 이러한 긍정적 형상을 창작한 반면에 혁명의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폭로하며 또 중간적 립장에서 투쟁에서 남아있으려고 기도하는 그런자들에게 역시 무자비한 예술적 비판을 내리었다.

현대 쏘베트농촌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쏘베트문인들은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내었다. 특히 이러한 작품중에서 젊은 작가인 바바옙쓰끼가 소설 「금별을 받은 기병」을 창작하였다. 작자는 이 소설에 쏘베트생활에서의 일반적인 현상 즉 웃시레빈쓰크촌에 구역전기발전소를 건축하는 사실을 전형적 현상으로 묘사하였다.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는 제二차세계전쟁에 참가한 쏘베트의 영웅 소위 쎄르게이·뚜따리노브와 그의 친구 특무병 쎄멘꼰챠렌꼬이다. 이 두 사람은 제二차세계전쟁이 끝난후 최고쏘베트의 칙명에 의하여 군대로부터 제대되어 자기향촌으로 돌아왔다. 향촌은 무한

한 기쁨으로써 그들을 맞아들였다. 병정들은 승리를 쟁취하였고 승리의 영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와 함께 조국은 제대된 병정들앞에 광활한 전로의 대문을 열어놓았나니 「일하고싶으면 일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라!」 이와같이 쎄르게이·뚜따리노브는 향촌으로 돌아오면서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두었다.

그러나 그는 향촌의 생활에 대하여 무관심한 관계를 가지지않았다. 그리하여 향촌에 돌아온지 이틀만에 그는 나가서 꼴호즈전원을 살펴보았다. 웃시·레빈쓰크의 농촌에는 세개 꼴호즈가 놓이였다. 부촌이름을 가진 꼴호즈의 발에는 수백명의 꼴호즈남녀들이 영예로운 로력을 자랑하는 곡초의 푸른 파도가 춤을 추고 있는것을 보고 쎄르게이·뚜따리노브는 순결한 감정으로써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이 꼴호즈와 린접하여 있는 보로쉴로브의 이름을 가진 꼴호즈의 전원에는 종곡으로 사용하려고 파종한 채밀밭외에는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난것을 보았다. 쎄르게이·뚜따리노브는 보로쉴로브 꼴호즈전원에 이러한 잡초가 자라나게한 원인은 독일팟쇼들의 습격과 전쟁의 결과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그 결점을 속한 시일내에 퇴치함에 대한 방법들을 연구하였다.

여기에서 제二차 세계대전의 시련을 영예롭게 극복하고 지금 공산주의의 건설자들의 첫 대렬에서 나아가는 승리자들의 세대에 속하는 쏘베트의 새 사람들의 성격이 표현되었다. 쎄르게이·뚜따리노브는 쓰딸린시대의 인물이다. 그는 자기조국의 부강과 위력에 대한 끊임없는 고려를 가지고 자기조국의 충실한 사들로서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젊은 쏘베트 청년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볼쉐위끼의 가장 고귀한 성격인 새것에 대한 감정, 이것이 그로하여금 자기향촌의 꼴호즈생활과 사업에 있어서 자기가 전선으로 돌아온 그이튿날에 지적한 결점들과 융화할수 없게 하였으며 묵과할수도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웃씨·레빈쓰크의 촌에는 라디오방송지구가 없습니까? 어찌하여 영화극장이 없습니까? 또 꼴호즈니크들의 수공업적 로력을 용이하게 할데 대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당신이 생각하여 보았습니까?」란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하였다. 뚜따리노브는 향촌의 향상에 대한 문제를 로의할 목적으로 자기의 오랜 친구인 농촌쏘베트회장 싸바·오쓰또로우호브를 찾아갔다. 역시 오쓰또로우호브도 오래전부터 농촌을 문화적으로 만들며 농촌을 전기화함에 대하여 상상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네가 상상하였다면 반드시 활동할것이다」라고 뚜따리노브는 자기의 친구 농촌 쏘베트회

밤을 새우며 무서운 설풍과 치위를 영웅적으로 극복하면서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위업들은 소설에 묘사된 주인공들이 자기의 개인의 향락과 안일을 만족시킬 목적으로써 이러한 위업을 실천한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조국과 사회와 공산주의의 고상한 리익으로써 그러한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이와같이 이 작품은 쏘베트인민들이 조국을 위하여 공산주의를 위하여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전 인민적 승리를 쟁취한 위업에 대하여 묘사한 작품이다。

까짜크 문인 묵따르·아우에소브의 소설『아바이』도 쓰딸린상을 받았다。이 소설의 작자는 까짜크의 위대한 시인이며 계몽자인 아바이의 형상을 고상한 예술적 수법으로 묘사하였다。그뿐만 아니라 작자 아우에소브는, 아바이가 로씨야인민을 까짜크인민의 위대한 친구로 본 그의 고결한 사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이외에도 이 소설에는 十九세기 후반기 까짜크의 근로대중의 생활이 사실주의적으로 혁혁히 반영되었다。그러므로 묵따르·아우에소브의 소설『아바이』는 다민족적 쏘베트문학의 보고의 값있는 보물로 된다。

작가 꼰싼찐·페진은 소설『첫 기쁨』을 발표한후 一九四八년도에 소설『비상한 여름』을 발표하였다。이 두 소설에는 로씨야의 남쪽에서 진행된 一九一九년의 력사적 사변들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예술적으로 말하여 준다。소설에는 새 쏘베트국가의 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혁명적 투쟁의 영예로운 학교를 경과한 볼쉐위크 끼르호 이스베꼬브의 진실한 형상을 창작하였다。무엇이든지 겁내지 않는 용감성을 가진 전문적 혁명가인 볼쉐위크 로고신의 형상은 꼰싼찐·페진의 창작중에서의 볼쉐위크적 형상을 성과적으로 창조한 형상중의 하나이다。꼰싼찐·페진은 이러한 긍정적 형상을 창작한 반면에 혁명의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폭로하며 또 중간적 립장에서 투쟁에서 남아있으려고 기도하는 그런자들에게 역시 무자비한 예술적 비판을 내리었다。

현대 쏘베트 농촌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쏘베트문인들은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내었다。특히 이러한 작품중에서 젊은 작가인 바바옙쓰끼가 소설『금별을 받은 기병』을 창작하였다。작자는 이 소설에 쏘베트생활에서의 일반적인 현상 즉 옷시레빈쓰크촌에 구역전기발전소를 건축하는 사실을 전형적 현상으로 묘사하였다。이 소설의 주인공으로는 제二차세계전쟁에 참가한 쏘베트의 영웅 소위 쎄르게이·뚜따리노브와 그의 친구 특무병 쎄멘꼰차렌꼬이다。이 두 사람은 제二차세계전쟁이 끝난후 최고쏘베트의 칙명에 의하여 군대로부터 제대되어 자기향촌으로 돌아왔다。향촌은 무한

한 기쁨으로써 그들을 맞아들였다。병정들은 승리를 쟁취하였고 승리의 영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그와 함께 조국은 제대된 병정들앞에 광활한 전로의 대문을 열어 놓았나니「일하고싶으면 일하고 공부하고싶으면 공부를 하라!」이와같이 쎄르게이·뚜따리노브는 향촌으로 돌아오면서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두었다。

그러나 그는 향촌의 생활에 대하여 무관심한 관계를 가지지않았다。그리하여 향촌에 돌아온지 이틀만에 그는 나가서 끌호즈전원을 살펴보았다。옷시·레빈쓰크의 농촌에는 세개 끌호즈가 놓이였다。부존이름을 가진 끌호즈의 발에는 수백명의 끌호즈남녀들이 영예로운 로력을 자랑하는 곡초의 푸른 파도가 춤을 추고 있는것을 보고 쎄르게이·뚜따리노브는 순결한 감정으로써 대단히 기뻐하였다。그러나 이, 끌호즈와 린접하여 있는 보로쉴로브의 이름을 가진 끌호즈의 전원에는 종곡으로 사용하려고 파종한 채밀밭외에는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난것을 보았다。쎄르게이·뚜따리노브는 보로쉴로브 끌호즈전원에 이러한 잡초가 자라나게한 원인은 독일팟쇼들의 습격과 전쟁의 결과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그 결점을 속한 시일내에 퇴치함에 대한 방법들을 연구하였다。

여기에서 제二차 세계대전의 시련을 영예롭게 극복하고 지금 공산주의의 건설자들의 첫 대렬에서 나아가는 승리자들의 세대에 속하는 쏘베트의 새 사람들의 성격이 표현되었다。쎄르게이·뚜따리노브는 쓰딸린시대의 인물이다。그는 자기조국의 부강과 위력에 대한 끊임없는 고려를 가지고 자기조국의 충실한 사들로서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젊은 쏘베트 청년이다。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볼쉐위끼의 가장 고귀한 성격인 새것에 대한 감정, 이것이 그로하여금 자기향촌의 끌호즈생활과 사업에 있어서 자기가 전선으로 돌아온 그이튿날에 지적한 결점들과 융화할수 없게 하였으며 묵과할수도 없게 하였다。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옷씨·레빈쓰크의 촌에는 라디오방송지구가 없습니까? 어찌하여 영화극장이 없습니까?또 끌호즈니크들의 수공업적 로력을 용이하게 할데 대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당신이 생각하여 보았습니까?」란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하였다。뚜따리노브는 향촌의 향상에 대한 문제를 로의할 목적으로 자기의 오랜 친구인 농촌쏘베트회장 싸바·오쓰또로우호브를 찾아갔다。역시 오쓰또로우호브도 오래전부터 농촌을 문화적으로 만들며 농촌을 전기화함에 대하여 상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가 상상하였다면 반드시 활동할것이다」라고 뚜따리노브는 자기의 친구 농촌 쏘베트회

장인 싸바에게 말하였다。 그때부터 이들은 함께 일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끌호즈열성자회의를 소집하고 향촌의 전후경제의 부흥과 발전에 대한 五개년계획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와같이 인민의 창의는 국가계획을 받들어 궐기하였다。 전 농촌은 높은 수확 목축장려 끌호즈 수력발전소 건축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였다。 쏘베트의 영웅 뚜따리노브는 이 인민적 운동의 선두에 서서 이 운동을 령솔하였다。 이 소설의 제二편에서 알려진바와같이 뚜따리노브는 구역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직위에서 일하였다。 그와함께 그는 지금에 있어서 자기 향촌의 혁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하지않고 전체 구역의 혁신에 대하여 상상하였다。 그는 끌호즈니크를 한재를 방지하는 자연과의 투쟁의 광범한 전선으로 령솔하였다。

쎄르게이·뚜따리노브는 자기의 사업행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때 마다 그들의 새로운 볼쉬위끼적 자각성과 목적을 발견한다。 이러한 실례는 쎄르게이·뚜따리노브가 자기가 책임진 구역을 시찰할 목적으로 순회할때에 불의한 기후로 인하여 부득불 농장 초막에서 밤을 지나게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끌호즈니크인 타곡기의 기술자 옙핌·메르꿀로브를 만났다。 그리하여 그날 밤에 이들사이에는 아주 재미있는 담화가 전개되었다。 이 담화에서 겸손한 보통끌호즈니크 옙핌·메르꿀로브는 자기를 국가적 사업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으로 예측케 하였다。 그것은 그가 국제문제에 대하여、처칠에 대하여、「백만장자」월가에 대하여、어떻게 하여야할、립장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우선 자기의 로력으로 나라를 더 훌륭하게 장식할것과 증대시킬것과 관련하여 끌호즈작업의 기계화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러한 결과에 그는 아주 상세한 기계화의 강령을 작성하여 그를 모쓰크바끌호즈사업에 관한 쏘베트로 보내었다。

이러한 장면에서 쏘베트국가의 끌호즈농민들이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물질적 복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조선에있는 우리들로서도 상상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국가의 사업과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주야로 분투노력하는 국가적 인물인것을 알수있다。 이 밖에도 이 소설에는 훌륭한 궁정적 인물들을 볼수있나니 높은 수확의 쟁취자 스텟판 뻬뜨로위츠 라굴린、부락 끌호즈 회장중에서 그랏사 니스마스나、노력을 사랑하는 공청동맹원 마르샤와 슈—라 등 형상들을 볼수있다。

작가 바바옙쓰끼는 이 소설에 새것이 투쟁이 없이 자기의 예전 진지를 양보하려고 하지않는 낡은것과의 투쟁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장면은 본 소설의 궁정적인물을 대상하여 반대하여 나선 부정적 인물들과의 투

쟁에서 볼수있다。 실례로 국가를 기만하는 인간다운 량심을 잃은 끌호즈회장 옙쎄이·나리쓰니와 당증을 자기의 협낭에 넣고있으며 갖은 비법적 행사로 끌호즈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억압하는 농촌관료주의자로 끌호즈회장의 중책에 앉아있는 아르따모노브의 형상이다。 이밖에도 새것의 급격한 진보로부터 락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발전상 도상에서 객관적으로 장애물이 되어버린 표도르·루끼츠 호흐락꼬브의 형상도 볼수 있다。 그는 어느한때에 진정하고도 열성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공민전쟁당시에 직접 전투에 참가한 투사이었으며 꼬츠베이장군의 전우의 한사람이었다。 오랫동안 구역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적 사업을 리행하였다。 물론 그때에 나쁘지않게 일하였다。 그러나 어느한때에 「새로운 감정」을 잃어버리고 옛성과의 공훈에 대하여 자만자족하였기때문에 결국 현실생활로부터 락후되었다。 쎄르게이·뚜따리노브는 이러한 락후분자들을 구역당비서의 지지와 끌호즈의 선진적 인사들과 함께 끌호즈를 와해시키던 아르따모노브와 나르쓰니를 끌호즈에서 축출시켰고 호흐락꼬브를 구역집행위원회위원장의 직책에서 철직시켰다。 뚜따리노브는 호흐락꼬브의 옛공훈으로보아 그가 반성하여 새로운 감정으로 현실생활을 감각하도록 그에게 갖은 도움을 준다。

뚜따리노브는 자기가 향촌으로 다려고온 친구 꼰챠렌꼬가 장가를 든후 안일한 향락을 꿈꾸고 있는데 대하여 용서하지않았다。 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우리생활을 이와같이 보고있다。 마치 강에 빨리 흐르는 물결과 천천히 흐르는 물결이 있는것같이。 그때 우리는 너와함께 반드시 빨리 흐르는 물결에서 헤염치어야한다。」 이것은 오늘의 선전적 쏘베트인민들이다。 앞으로 향하여 빨리 나아가려는 욕망이다。 이상과같은 내용으로써 전후 끌호즈농촌의 새로운 발전에서 제대된 쏘베트병정들의 선진적 역활과 끌호즈농민들의 애국주의적 위업을 훌륭히 묘사한 작품중의 하나이다。

작가 윌리스·나찌스는 라트비야인민의 생활에 대한소설을 창작하였다。 이 소설을 「폭풍우」 라고 명칭하였다。 이 작자는 소설에 자유로운 쏘베트 라트비야를 위한 라트비야공산당의 투쟁을 반영하였다。 이 소설은 지하에서 새 라트비야를 위하여 혁명적 활동을 감행한 로숙한 로동자들과 공산당원들의 형상이 묘사되었으며 또 그들이 쏘베트주권이 라트비야에 수립된후 쏘베트라트비야의 사회주의적 건설에서 활동하는 현상이 반영되었다。

현대 쏘웨트문학은 쏘베트인민의 다각한 생활을 반영한다。이에 관련하여 빨직크해변으로부터 츄코트지역에까지 뻗친 쏘베트조국의 끝없는 대원에서 일어난 위

대한 사회주의적 변혁을 진실스럽게 묘사한다。츄교트인민들의 재생을 묘사한 「알리쩨트는 산으로 간다」란 쩌혼·쎄무스낀의 저명한 소설은 그에대한 실증의 하나인것이다。작자는 미개한 민족으로 인증된 츄교트의 인민들이 로씨야인민의 지도밑에서、공산당의 지도밑에서 새로운 자유의 생활을 건설하는 그들의 생활을 묘사하였다。이와 동시에 작자는 미국인 똠쏜과 부라운이 혁명전까지 츄교트에 기어들어서 축치들을 야수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사실들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이 반면에 작자는 츄교트에 새 쏘베트생활을 가져온 공산당원 니끼트·로쉬와 안드레이·슈교브를 깊은 정열로 묘사하였다。

조쏘문화협회三차대회에 참가한 쏘련대표의 한사람인 아르까질·뻬레벤쪼브는 우리시대의 젊은 사람에게 대한 소설을 창작하였다。이 소설을 「청년시대의 영예」라고 명칭하였다。이 소설은 단시일에 쏘베트청년들이 애독하는 서적중의 하나로 되었다。여기에는 쎄르게이·라구노브의 형상이 나타난다。소설에 반영된 그의 영아시대、청년시대、그의 전투적 훈련、그의 순결성등은 애국자로 형성됨에 있어 청년들에게 많은 방조를 줄것이다。

지금까지 돈바스에서 기사로 근무하는 우라지미르·뽀뽀브는 「강철과 슬라크」란 소설을 썼다。이 소설에는 전쟁시기가 포괄되었다。여기에 나타나는 로동자 드미뜨리·류크、당단체책임비서 마뜨뻬이·엔교、젊은 기사 크라이·네브、공청동맹단체책임비서 왈라·쩨쁠로바 및 기타 많은 형상들은 쏘베트인민의 생기발발한 형상을 상상케한다。

작자·엘리자르·말쩨브는 「전심으로」란 소설을 창작하였다。이 소설에는 전쟁전후기의 아르따이변강에서 일어난 사변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준다。작자는 이 소설을 통하여 쏘베트녀성들이 조국의 위력을 공고화함에 있어서 원쑤에 대한 승리를 쟁취함에 있어서 막대한 역활을 리행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이 소설에 묘사된 구린나·와쌀례바는 공산당의 지도밑에서 장성하여 국가적 활동가로된 새인간의 형상이다。

아호하스작가 교루기·굴리아는 「싹끼베의 봄」이란 중편소설을 창작하였다。쏘베트주권당시에 먼 싹끼네의 촌락에서의 일어난 기본적 변혁에 대하여 이 소설은 이야기하여준다。싹겐츠사람들은 새생활의 백절불굴의 건설자로 이 소설에 묘사되었다。작자는 그와 함께 이 소설에 사회적 관계의 변혁으로 인하여 쏘베트사람들의 호상관계가 변하였다는것을 자미있게 반영하였다。

젊은 작가 도브로볼쓰끼는 쏘베트대학생들의 생활을 반영한 「재색외투를 입은 세사람」이란 중편소설을 창작하였다。

시인이며 소설가인 위짜리온·짜야노브는 쏘베트비행사들에 대한 「하늘과 땅」이란 재미있는 소설을 창작하였다。

작가 싸효노브는 위대한 로씨야의 학자인 미추린、찌미랴셰브、또꾸챠예브、윌리얌스、리쎈교 및 그들의 후계자들의 초상을 상상하는 「화원속의 땅」이란 소설을 창작하였다。

작가 빤페로브는 쏘련인민들이 독일팟쇼강점자들을 반대한 영용한 그들의 투쟁을 반영한 「전패된 나라에서」란 소설을 창작하였다。

이밖에도 산문부문에 있어서 一九四八년도에 쓰딸린상을 수여받은 작품들이 수다하다。그러나 이 론문으로서는 일일이 다 말할수가 없다。

시창작면에 있어서도 산문과같이 거대한 상승으로 발전되었다。특히 시창작에 있어서 미하일·이싸꼽쓰끼의 「시와노래」란 시집은 독자들로 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작가 꼰싼찐·씨모노브는 「친구와 적」이란 훌륭한 시집을 발표하였다。이 시집에 기입된 시들에는 쏘베트인민의 친구들과 공산주의자와 및 반팟쇼자들에게 대한 거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이 충만된 반면에 평화와 민주의 원쑤와 전쟁방화자들을 폭로하는 분노와 증오가 표현되었다。꼰싼찐·씨모노브의 시집은 현대 쏘베트 시창작의 훌륭한 달성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되었다。

니교라이 찌호노브는 一九四八년도에 「구루지야의 봄」이란 시집을 창작하였다。이 시집에 기입된 시들은 구루지야의 자연에서의 일어난 변천들을 예술적 예감으로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준다。이밖에도 시빠쵸브、루교닌 그라바쵸브 굴리쇼브 시인들도 훌륭한 시들을 창작하였다。

쏘베트 희곡발전에 있어서 반동적 평론가 교스모폴리트들이 많은 해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一九四八년도 희곡창작에 있어서 훌륭한 애국주의적 희곡작품들이 창작되었다。그중에서 일례로써 아·쏘프로노브의 「모쓰크바성격」이란 희곡、쁴르따의 「한나라에서」란 희곡、교루내이츄크의 「마까르드브로브」란 희곡들이 발표되었다。

희곡가 니교라이·쁴르따는 「한나라에서」란 희곡에 한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사변에 대하여 묘사하였다。작자는 비상한 천재로서 미국독점자본주의 정탐 및 파괴공작들을 반영하였으며 저들은 (미제국주의자들) 이러한 바 인간적 수단으로써 어느 한 신민주주의국가에 반동적 정체를 수립하려고 기도하는것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이 희곡의 막대한 예술적 가치는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창설을 위한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의 영용한 투쟁을 옳게 묘사한 그에 있다。

교르녜이……츄크의희곡 「마까르드구로브」는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한 돈바스탄광로동자들의 생활을 묘사하였다。

회곡가 쑤로브는 낡은것과 새것과의 투쟁、쏘베트인민들의 보수주의자들과 외국문화의 숭배자들과의 강경한 투쟁을 묘사한『푸른 거리』란 회곡을 창작하였다。이 회곡의 주인공인 젊은 기관수는 예전 기술자들이 규정하여놓은 기관차의 속도의 정량을 돌파하고 그보다 더 빠른속도를 규정한다。물론 여기에 있어서 낡은 보수주의적 기술자들과 서구라파의 부르죠아의 국한적 기술을 숭배하는 기술자들은 젊은 기관수가 달성한 속도에 대하여 갖은 수단으로 비과학적이라는것을 증명하려고 한다。그러나 젊은 기관수 씨비랴끄브는 실제적 생활로써 그들의 과학이 오늘에 있어서 비과학적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싸프로노브의『모쓰크바성격』이란 회곡은 쏘베트인민들의 새로운 성격에 대하여 무대화시킨 애국적 작품의 하나이다。이 회곡의 주인공의 한사람인 뽀따뽀브는 기계공장 지배인이다。그가 관리하는 공장은 년년이 국가에서 주는 생산계획을 넘쳐실행한다。그와 련쇄하여 뽀따뽀브는 五개년계획을 三개년반에 완수하려는 영예로운 과업을 자기의 공장앞에 내세우고 투쟁한다。뽀따뽀브가 관리하는 기계제작공장근처에 쎄베로바녀사가 관리하는 직조공장이 있다。이 직조공장에서는 새로운 염색기계를 발명하였다。그리하여 직조공장지배인 쎄베로바는 새로 명한 염색기계를 제작하여 달라고 기계제작공장지배인 뽀따뽀브에게 요청한다。그러나 뽀따뽀브는 쎄베로바의 요청이 국가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여버린다。그가 거역한 리유는 자기공장이 그 주문을 실천하게만 된다면 자기공장의 五개년계획을 三개년반에 실천할수없다는 그것이었다。여기에서 뽀따뽀브의 옳지않은 지방적 견해와 협소한 리기주의적 성격이 표현되었다는것을 알수있다。물론 뽀따뽀브가 자기공장의 생산계획을 三년반에 실천하자는것이 나쁜일은 아니다。그러나 그가 전국적으로 자기사업을 전개하지못한 그에서 그러한 옳지않은 견해와 행동들이 표현되었던것이다。쎄베로바의 새기계주문에 대한 실천은 국가적 립장에서 뽀따뽀브의 주장보다 대단히 고상하다。그것은 아직까지 누구든지 발명하지 못한 새기계를 제작하여 더 질적으로 훌륭한 물품을 생산하는 그에 있기때문이다。이것을 뽀따뽀브는 알지못하였다。구역당위원회에서 뽀따뽀브의 옳지못한 견해에 대하여 심의한후 뽀따뽀브는 자기의 실수를 자인하고 쎄베로바의 주문을 실천하여 준다。그러나 우리는 이 회곡에서 뽀따뽀브의 형상이 부정적 형상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한다。그는 비관이 없는데서와

성과에서 뇟병을 만나게되었다。그의 뇟병을 볼쉐위끼공산당이 제때에 치료하여 주었다。그리하여 그는 완전무결한 쏘베트국가일군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이와같이 쏘베트의 회곡작가들도 산문작가 시인들처럼 쏘베트인민의 애국주의를 주제로한 훌륭한 작품들을 一九四八년도 한해만하여도 수십편을 창작하여 내었다。

쏘베트문학의 이러한 거족적 장성은 볼쉐위끼공산당과 친히 쓰딸린대원수가 지도하였기때문이며 쏘베트사회의 제반 생활이 애국적 위업으로 되었기때문에 쏘베트의 선진작가들의 작품들도 그와같이 깊은 사상적 내용을 가진 애국주의적 작품으로 되었다。『위대한사업은 위대한 언어를 요구한다』고 고리끼는 일찌기 말하였다。

× × ×

쏘베트작가들의 작품들은 쏘련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들까지 다량한 부수로 번역출판되고있다。특히 그중에서 작가 숄로호브、파제예브、알렉세이・똘쓰또이、일리야・에렌브르그、와씰리・그로쓰만、고르바또브 및 기타 작가들의 예술적 작품들은 널리 소개되고있다。

쏘련의 위력한 무력에 의하여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의 기반에서 해방된 조선인민은 해방후 四년이되는 이 짧은 기간에 민족문화의 재생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성과들을 쟁취하고있다。

특히 문화발전에 있어서 쏘련의 선진적 문화는 우리민족문화를 재생 발전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기여로 되고있다。그렇기때문에 우리공화국 북반부에서만 하여도 이 짧은 기간에 현대 쏘련 작가들의 저명한 작품들중에서 파제예브의 소설『청년근위대』、일리야・에렌브르그의『폭풍우』、그로쓰만의『인민은 죽지않는다』、쏠로호브의『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운다』、아・오쓰또롭쓰끼의『강철은어떻게 단련되었는가』、아・똘쓰또이의『로씨야성격』、씨모느브의『낮과 밤』및 회곡 시들이 적지않게 번역출판되었다。

위에 지적한 예술작품들은 조선인민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있다。그 원인은 예술작품들에 표현된 형상들이 세계적 의의를 가지고있는 그에 있다。또 쏘베트문학작품에 표현된 긍정적 형상들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투사이기때문이다。그뿐만아니라 이 형상들은 인간이 인간을 반대하는 제도、인간을 참혹한 구렁에 끌어넣으려고 발악하는 반동과 반동분자들의 죄악을 폭로하며 저들과 맹렬히 투쟁하는 진보적 인사들의 형상이며 새로운 로력의 사회를 창건하는 건설자들의 형상이기때문이다。 례를 들면 푸루마노브의 소설『차빠예브』는 수십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이

소설의 주인공 차빠예브와 클리치꼬브의 형상은 반동을 반대하는 제 투쟁기간에 있어서 막대한 역할을 리행하였다。 실례로 이 쓰빠니야에서 프랑코파시스트정권수립을 반대하여 투쟁하던 시기에 二十一개의 민족투사들로 편성된 대대는 차빠예브의 이름을 가지고 파씨즘을 반대하여 싸워왔다。 이 대대는 二十一개의 민족언어로 대대의 행진곡을 작곡하였는데 다음과같은 말로써 끝을 맺었다。

「우리는 모두다 차빠예브의 아들이다。
우리는 히틀러와 프랑코를 반대하여 싸우자。돌격의 대대여! 육박전으로 나아가자」

이와같이 쏘베트문학이 창조한 영웅들의 형상은 반동을 반대하여 인민의 적을 반대하여 싸우는 판갈이 싸움에서 거대한 고무적 역할을 리행하고 있다。

현하 우리조국에 조성된 복잡첨예한 정세에 있어서、민주와 반동파의 맹렬한 투쟁이 전개되는 목하에 있어서、국토의 완정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조선인민이 궐기한 환경에있어서 쏘베트문학의 선진적 사상성은 우리를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한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할

그· 굴데제르말

여러해 이전 아직 로씨야 제一차혁명의 전야에 레닌은 그의 저서 「무엇을할까?」에 어떠한 다른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모든 당면과업보다도 가장 혁명적인 당면과업을 력사는 로씨야 로동자들에게 내세웠다고 썼다。 이 과업의 실현은— 짜리즘의 전복—「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를 국제적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대로 되게할것이다」(전집五권 三四五페지)라고 레닌이 지적하였다。

력사는 이 레닌의 예언을 빛나게 확증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이 예견한 바와같이 로씨야에서 짜리즘의 전복은 오직 자본주의의 전복을 위한 서곡이었다。 一九一七년十월에 볼쉐위끼당이 지도하는 로동계급과 빈농민들은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였다。

이 혁명은 로씨야에서 로쇠된 자본주의 제도를 근절하고 국제제국주의 전선을 끊어 놓고 전세계력사에서 전환점으로 되었다。

이 위대한 력사적 승리는 로씨야 로동계급의 용감성을 명쾌하게 보이였으며 그들을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대에 서서 전진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전세계 해방운동의 선봉적 대열로 되게하였다。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쏘베트국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기원을 만들어놓았다。 볼쉐위끼당의 지도하에 쏘베트동맹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미증유의 사회주의 제도를 건설하였다。

쏘베트동맹의 실례(實例)는、즉 승리적 사회주의 국가의 형제적 원조는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을 고무시킨다。 쓰다노브동지가 말한바와 같이 현재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생활의 일정(日程)에 올랐다」

쏘베트동맹에서의 승리적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로동계급과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그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보

이면서 다른 나라의 공산당들을 위하여 올바른 지남침으로 되고있다。

(一)

위대한 十월사회주의 혁명과 쏘베트동맹에서의 승리적 사회주의 건설은 낡은 자본주의 사회의 묘굴인(墓掘人)으로서의 또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의 창건자로서의 로동계급의 전세계사적 역할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을 전적으로·확증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로서의 맑쓰와 엥겔쓰의 가장 위대한 공로는 로동계급의 력사적 역활을 발견한데 귀결된다。구라파 각국에서 十九세기 四○년대 초기에 활동한 많은 사회주의 대표자들 가운데 로동계급의 전세계사적 역활과 그의 과업、그의 사명을 해득한것은 오직 맑쓰와 엥겔쓰뿐이 없다。즉 로동계급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모든 근로자들과 피착취자들을 자기주위에 단결시키며 혁명적 투쟁에로 궐기시킨다。

맑쓰와 엥겔쓰 이전에는 대다수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는 다만 가장 불행한 동정을 받아야할、고통을 받는 계급이며 사우려한 독립적인 력사적 활동을 기대할수없는 계급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새 사회제도를 실현하려는 자기들의 계획에서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의 「교육있는」 계층、부자들이 「몽매하고」 「무교육한」 프로레타리아트 보담、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가장 빨리 포착한다고 단순히 간주하면서 그들(「교육있는」 계층、부자들)의 지지에 더 자주 기대하였던것이다。더우기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서 문화의 창조를 보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립적 출현을 무서워하기까지 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는 사회사상사에서 특별히 근본적 변혁을 의미한다。독상자(獨想者)의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이전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대비하여 맑쓰와 엥겔쓰는 프로레타리아대중의 사상 즉 혁명적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의 사상을 표현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조하였다。프로레타리아트에게서 맑쓰와 엥겔쓰는 그들이 가장 착취받는 계급일뿐만아니라 자기 자체와 모든 근로자들을 계급적 압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킬 력사적 사명을 가진 가장 혁명적 계급을 보았다。이 천재적 사상은 一八四四년—一八四五년에 쓴 맑쓰와 엥겔쓰의 공저(共著)인 「신성 가족」과 一八四五년의 「영국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상태」에 관한 엥겔쓰의 저서에서 비로소 명확히 표현되었다。프로레타리아트는—맑쓰와 엥겔쓰는 교시하였다—개인소유가 프로레타리아트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자기자신에 내리게되는 그 판결의 집행자로되는것이다。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가 소속된 생활조건을 폐기

참고재료

함이 없이는 자기를 해방하지못한다。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든 비인간적 생활조건을 폐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자신을 해방함으로써 전사회를 해방하며 계급적 착취와 사회의 계급적 분렬을 종말시키는것이다。

맑쓰와 엥겔쓰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은 반드시 프로레타리아트 자신의 사업으로 된다고 선언하였다。그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의 환상과 관계를 끊고 사회주의는 계급간의 평화적 타협의 성과가 아니라 착취자 세계의 모든 낡은 세력을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화해없는 계급투쟁의 결과임을 발견하였다。부르죠아지의 폭력적 전복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지배—그의 독재의 수립, 이러한것은 맑쓰와 엥겔쓰의 사상에 의하면 사회주의 실현의 주요한 수단이다。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에 의거하면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가장 철저한 혁명적인 계급이다。근로자들, 농민들, 소수공업자들, 기타를 포함한 모든 다른 피압박계급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로동계급의 동맹자로 될수있다。그러나 그들의 선두에 서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것은 오직 혁명적 로동계급만이 할수있다。이것은 자본주의 생산 체계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객관적 조건으로서 스스로 명백하게 된다。

첫째로 프로레타리아트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박탈당하고 자기의 로동력 밖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자기의 프로레타리아적 조건으로 인하여 가장 혁명적인 그러한 계급으로 된다。이런것에 의하여 로동계급은 다른 근로계층들과 구별된다。다른계층 례를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와 련결되어있고 그 자신이 천부적(天賦的)으로 착취의 근본적 기초를 페절하기위한 철저한 최후까지의 투쟁을 감당하지못하는 계층들과 구별되는것이다。프로레타리아트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모든 면에서 흔들어놓는 온갖 착취를 폐절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방을 얻을수없는것이다。프로레타리아에게는 혁명에서 잃을것은 철쇄(鐵鎖) 밖에 없으며 그들은 전세계를 얻을것이라고 「공산당 선언」에서 맑쓰와 엥겔쓰가 성명하였다。

둘째로 프로레타리아트는 가장 선진적 경제 형태인—대규모 생산과 련결된 그러한 근로계급이다。이와 반대로 농민과 소수공업자들은 가장 뒤떨어진 경제형태인—소규모 생산과 련결되어있다。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하여 농민이 존재할 기초는 이렇게 붕괴되고 그들은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연하게 계급으로 분해되며 씻어(洗) 흘려내린다。로므베

타니아트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계급으로 발전하며 그런 까닭에 미래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농민, 소수공업자들, 근로자들의 기타의 소부르죠아계층들과 다른 특수성으로부터 로동계급은 새롭고 자본주의 보다 더 고상한 생산 방법인 사회주의적 생산 방법의 구현자로 되는것이다。

셋째로 프로레타리아트는 대규모 생산에서 로동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대중을 집중하여 쉽게 조직에 족속시킨다。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락후한 근로자들의 계층은 분산되고 세분되어 조직에 족속시키기 힘들다。프로레타리아트는 어떠한 다른 근로계급 보다도 일치하고 자각적인 조직행동에대한 능력이 더 많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세계사적 역활을 실현하기위한 필요한 조건은 맑쓰주의당의 지도이다。오직 정당의 출현으로만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근본적 계급적 리해를 자각하며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자기의 력사적 과업을 실현하기위한 의식적 투쟁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로동계급은 사회에서 자기의 립장을 단번에 깨닫지못하며 자기의 발전에서 여러계단을 경과한다는것을 력사는 말한다。처음에는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개별적 공장들의 로동자들이 진행하고 다음에 당해 지방에서 개별적 로동 부문의 로동자들이 진행하였다。이 발전 계단에서는 로동계급은 아직 불완전하다。그는 아직 자기의 근본적 리해를 자각하지 못하였으며 「계급 자체」에 끓지고 있다。그러나 력사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로동계급의 결성(結成)을 가져온다。로동자들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적 투쟁을 위하여 자기의 조직을 만들며 공동으로 나서기 시작한다。때가 경과함에 따라서 로동자들의 부분적 지방적 투쟁은 전국민적 계급적 투쟁에 합류하며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로동자들은 부분적 착취자를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전체 자본가 계급을 반대하는,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수단과 그것을 보호하는 국가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이행(移行)한다。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계급적 리해를 자각하고 「계급자체를 위한 계급으로」 된다。이렇게 「프로레타리아들의 계급으로의 결성 또 그에 의한 정당으로의 결성」은 실현된다。(「공산당선언」六〇페지 로문판) 여기서 「계급으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결성」은 정당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이 명백하다。당은 로동계급에게 사회주의 의식을 주입한다。당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근본적 계급적 리해를 자각한다。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지도자로, 그의 정치적 수령으로, 그의 전투적 사령부로 된다。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들의 계급적 적에대한 승리를

보장하는것은 경험있고 숙련된 혁명적 당이 없이는 불가능 하나는것을 력사는 확실히 증시하였다。맑쓰와 엥겔쓰가 다른 당들과 완전히 독립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자립적 정당을 창건하는것에 자기의 혁명적 활동의 주요한 과업을 본것은 이 때문이다。더우기 로동계급의 해방은 다만 자본주의제도의 폭력적 전복의 길로서만 실현될수 있는까닭에 이 당은 반드시 혁명적 당이라야한다는 거기로부터 그들은 출발하였다。

맑쓰—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은 다수한 각양 각색의 소부르죠아 사회주의와의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세계사적 역활에 대한 자기의 학설을 고수(固守)하였다。맑쓰와 엥겔쓰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으로 락오한 찌끄러기들(「룸펜 프로레타리아」들이라고 부르는)을 혁명적 「폭동」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선포한 소부르죠아 사회주의자들 및 웨이틀링그、바꾸닌등과 같은 무정부주의자를 치명적으로 비파하였다。레닌과 쓰딸린은 로씨야에서 「장래의 인간」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아니라 농민층이라고 한데관한 인민파적 몽상에 대하여 치명적 비판을주었다。

모든 근로대중에게 프로레타리아트를 「용해(溶解)하려는」 온갖 시도(試圖)는 맑쓰주의—레닌주의의 창시자들로부터 날카로운 반박을 받았다。

레닌은 쁠레하노브가 그의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강령 초안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근로자 및 피착취자대중의 투쟁」이라는것으로 살짝 바꾸어 놓았을 때에 쁠레하노브를 결정적으로 반박하였다。쁠레하노브는 모든 근로대중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를 구별못하였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지도적 역활을 아주 비하(卑下)시켰다。

「반드시—레닌은 썼다—우에는 모든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분하며 오직 단일(單一)하게 독특하게 프로레타리아트 하나만을 분별한다—그리고 다음에는 프로레타리아트가 모든것을 해방하며 모든것을 부르며 모든것을 초대한다。

나는 이 「다음에는」에 동의한다。그러나 나는 이보다 먼저 이 「처음에는」을 요구한다! 우리 로씨야에서 「근로자들과 착취받는 대중들」의 악마적 고통은 아무런 인민적 운동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잠시동안은 「한숨」의 공장—작업소 로동가들도 투쟁을—계급투쟁을 시작하지 않았다。그러나 오직 이 「한숨」이 그 투쟁의 지도、지속、확대를 보증한다」(레닌선집 六권五九페지 로문판)

유일하게 철저한 혁명적 계급으로서 프로레타리아트를 구별할 필요성을 그렇게 날카롭게 강조하면서 레닌은 그와동시에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로동자들의 협소한—직업적 리익에 국한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시도를 반대하여 항상 투쟁하였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는 전체혁명운동의 수령이되어야하며 부르죠아 민주혁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혁명에서도 역시 지도자적 역활을 차지하여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가 마치 동맹자가 없이 단독으로 자본주의를 바대하여 투쟁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것같이 주장하는 제二인터나쇼날의 썩은 반혁명적 견지(見地)를 레닌주의는 거부한다。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을 계승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 역활에 대하여 레닌과 쓰딸린은 혁명운동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의 사상을 완성하였다。그들은 자본은 다만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수천만 반(半)프로레타리아층까지도 착취하는 까닭에 그들도 자본주의적 압박으로부터 자기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자로 될수있으며 또 되어야한다는 다툼수없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였다。자본주의의 전복은 고립된 프로레타리아트가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로서 실현된다。(즉 혁명운동의 지도자로써、수령으로써) 그들은 대다수의 농민층을 포함한 도시와 농촌의 반(半)프로레타리아 대중에게서 자기자신을 위하여 자기들의 동맹자를 이끌어 온다。「프로레타리아트는 이 헤게모니 사상을 자각하며 실지생활에 실현하는 그만큼 혁명적이다」、라고 레닌이 가르쳤다(레닌전집 十七권 二〇一페지)

생활은 레닌—쓰딸린의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사상을 완성히 확증한다。로씨야에서 그의 력사적 발전의 특수성에 의하여 로동계급이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으로 만들어지었다。로씨야에서의 자본주의적 압박은 농노적、식민지적、군사적 압박으로써 엉키운 것이며 기업소에서의 추악한 착취방식、참을수 없는、정치적 압박—모든 이 사실들이 혁명적 반항의 특별한 력량을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일으키게 하였다。서구라파와는 달리 로씨야에서는 매개의 중요한 스트라이크는 로동자들이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제도를 적대하면서 거대한 정치적 행동으로 귀결되었다。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조직화는 산업의 비상한 집중화와 일치하게 촉진되었다。로씨야에서의 대 기업소에서는(五백명 이상의 로동자를 가진) 전체 로동자들의 五四%가 로동하였다。이때에 미국에서는 전체의 三三%가 그렇게 되어있었다。쓰딸린동지가 말한바와 같이 벌써 이 한가지 사실은 불쉐위끼당과 같은 그런한 혁명적 당의 현존(現存)함과 함께 「로씨야의 로동계급을 국가의 정치적 활동의 가장 위대한 력량으로 되게하였다」(쓰딸린전집 六권一二八페지)

일찌기 벌써 로씨야 로동운동 발전의 혁명기에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력사적 역활의 예언자인 방직로동자 뻬트르・알렉세예브의 유명한 목소리가 들렸다。짜리 헌병에게 체포된 뻬트르・알렉세예브는 一八七七년에 법정에 나서서 벼력같은 연설, 단호한 말을 하였다。법정회의의 보고에 전달된 그말은 다음과같다。

「뻬트르・알렉세예브(손을 들면서 말한다)……수백만 로동대중의 억센 손은 궐기한다。………

재판장 원로원의원 뻬쩌르쓰(격분하여 벌떡 일어서면서 외친다)떠들지말라! 말말아라!

뻬트르・알렉세예브(목소리를 높이면서)……그러나 병사들의 총검으로써 둘러싸여있는 폭정의 멍에는 부서져 버리고야 말것이다!」

레닌은 알렉세예브의 이 예언적인 말로써 一九〇〇년十二월에 「이쓰크라」신문 제一호에 발표된 자기의 강령적 론설 「우리운동의 당면과업」을 끝맺었다。로동계급의 부분적 요구를 위한 투쟁은—레닌은 가르치었다—부분적 양보를 전취하는것— 이것은 작은 전초(前哨)적 격투이다。그러나 결전적 격투는 아직 앞에 있다는것을 기억하여야 한다。「우리의 앞에는 좋은 투사들을 빼앗아 가는 포탄과 풍운과 총탄을 우리에게 퍼붓는 모든 권력을 쥐고있는 적(敵)의 요색이 서있는 것이다。우리는 반드시 이 요색을 집어치워야하며 또 우리는 만약 전투적인 프로레타리아트의 모든 력량을 로씨야의 혁명자들의 모든 력량과 함께 한개의 당에 즉 로씨야에서 활기있으며 성실한 모든것을 끌어들이는 한개의 당에 결합시킨다면 우리는 그 것을 탈취할수 있는것이다」(레닌전집 四권 三四六페지)

이러한 당을—로씨야에 있은 생기었고 적실한 모든것을 자기의 주위에 결합한 로동계급의 당을—레닌과 쓰딸린이 창조하였다。이 당은 기회주의의 진흙탕에 빠진 제二국제당의 사회—민주당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그는 새 형태의 당이며 가혹할 계급적 격투의 조건에서 장성하였으며 가장 철저한 혁명적 리론으로써 무장한, 기회주의에 대하여 비타협적인 사회혁명의 당이다。볼쉐위끼당의 모든 탁월한 특징들—그의 철저한 혁명성, 투쟁에서의 불요불굴의 견고성, 혁명의 원쑤에 대한 비타협성—은 로동계급의 가장 훌륭한 특징의 권화(權化)이다。로동계급의 선봉대로써 출현한 이러한 당의 지도아래 로씨야 로동자들은 위대한 혁명의 학교를 수업하였다。그의 지도아래에서 로씨야 로동계급은 자기의 주위에 광범한 농민대중을 결합하였으며 혁명의 수령으로 되었다。

로씨야 로동계급은 모든 자기의 력사를 통하여서 인민의 수령의 역활에 대하여 준비되었다。일찌기 一九〇五년—一九〇七년 로씨야 제一차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의 시기에 부르죠아지는 짜리즘과의 투쟁에서 선두에 서있을 능력이 없음이 폭로되었다。그들은 혁명적 대중을 무서워하고 짜리즘과의 협정에 대하여 즐겨 준비하고 있었다。로씨야에서 농민들은 중대한 혁명적 세력임을 보이었다。그러나 그들은 짜리즘에 대한 승리를 독자적으로 획득할수 없었다。력사의 경험을 일반화 하면서 쓰딸린동지는 오직 로동계급과의 동맹과 그의 지도하에서만 농민은 자기의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왜 뿌가쵸브 당시와 또는 쓰쩨빤—라진 당시의 농민 봉기가 패멸되었는가? 왜 그때에 농민들은 지주들을 쫓아낼수 없었던가? 그것은 그들에게는 로동계급과 같은 그러한 혁명적 지도자가 없었으며 또 있을수 없었던 까닭이다。왜 불란서 혁명은 부르죠아지의 승리와 추방된 지주들을 귀환시킴으로써 끝맺었는가? 그것은 불란서 농민에게는 로동계급과 같은 그러한 혁명적 지도자가 당시에 없었던 것이며 또 있을수 없었던 까닭이다。그때에 부르죠아 자유주의자들이 농민들을 지도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로씨야)는 로동자들과 농민의 동맹이 지주와 자본가들로 부터의 승리를 전취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혁명운동의 선두에 투쟁에서 검열된 로동자계급이 서있었으며 계속하여 서있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쓰딸린전집 八권 一四三페지)

투쟁에서 검열된 이 로동계급은 세번의 모든 로씨야 혁명의 기본적 세력이었다。즉 一九〇五년과 一九一七년 二월의 부르죠아 혁명과 一九一七년十월의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적 세력이었다。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에 의한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들과의 동맹의 덕택으로 로씨야에서 부르죠아—민주주의적 혁명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완수하였다。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에 의한 프로레타리아트와 빈농민과의 동맹의 덕택으로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 성장시킬수 있었던 것이다。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이 민속히 비교적 쉽게 승리하게된 원인을 분석하면서 쓰딸린동지는 다른 원인과 함께 혁명의 선두에 「투쟁에서 단련되었으며 짧은 기간에 두 혁명을 경험하였으며 셋째번혁명의 전야에는 평화를 위한, 토지를 위한, 자유를 위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전취한 계급인 로씨야 로동계급과 같은 그러한 혁명적 계급이 서있었던 것이다。로씨야의 로동계급과 갈은 인민의 신뢰(信賴)를 얻은 혁명의 지도자가 존재하

지않았다면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동맹이 없었다면 十월혁명은 승리할수 없었을것이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三六六폐지 평양판) 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一九一七년 十월에 볼쉐위끼당의 지도하에 레닌·쓰딸린의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사상이 로씨야에서 실현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을 위하여서도 이 사상은 귀중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다른 력사적 조건 하에서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이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제국주의 반동과 그의 주력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선두에서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 혁명적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는 반드시 민족적 독립과 그 국가들의 주권을 옹호하는 기빨은 자기의 손에 굳잡아야하며 자기의 주위에 그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 투쟁에서 인민들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을 집결시켜야한다。

(二)

자본주의를 전복한후 프로레타리아트는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비(非) 프로레타리아 ·근로대중에게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의 의의는 중대하며 가능성은 확대된다。

국가주권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소부르죠아지들 중에 공고치못하고 동요하는 동맹자들을 자기편에 끌어넣기 위하여 중요한 무기로 된다。「한 계급 즉 프로레타리아트의 손에 쥐어진 국가주권은—레닌은 썼다—비 프로레타리아 근로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의 편에 끌어오며 이 대중을 부르죠아지와 소부르죠아지들의 당으로부터 전취하여 찾아오는 무기로 될것이며 되어야한다」(전집二四권 六三八폐지)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 혁명의 경험은 주권을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 당시에 동요적 립장을 가지고 있던 중 · 소부르죠아지 주민층은 주권을 전취한 후에야만, 그가 대(大)토지소유자와 자본가들을 처치한 후에야만 그들을 지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이어 주었다。 만약 사회주의 혁명의 첫 단계에 프로레타리아트가 반(半)프로레타리아트와의, 무엇보다도 빈농민들과의 동맹을 실현할 가능성을 가졌더라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강화된 후에 그는 중농민을 포함한 광범한 소부르죠아지층을 자기의 편에 전취할 실제적 가능성을 받았을 것이다。(실지로 받았다—역자)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주의에로 과도하는 시기에 비·프로레타리아 근로대중에게 영향을 주기위한 로·

동계급의 투쟁은 특히 농민들에게 대하여서 중지되지않고 다만 새로운 형식을 취할뿐이다。 과도기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은 사회주의 반역자들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첨예하여진다。 사회주의적 사회변혁은 장구하고 완강한 계급투쟁이다。 거기에서는 사멸하여가는 착취계급들의 반항을 폭력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계급들은 결코 자원적으로 무대에서 물러가지 않으며 자기의 립장을 양보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의 반항은 그들의 멸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흉포하게된다。 자기들의 멸망을 예감하면서 그들은 저항을 강화하며, 자기들이 예리한 투쟁방법에 달려붙는다。 그들은 소부르죠아 대중을 로동계급에게 대치하는 결과에 이르게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소부르죠아 대중, 특히 농민들에게 영향을 주기위한 투쟁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과도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계급적 투쟁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오직 로동계급만이 소부르죠아적 근로층들의 동요를 극복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로 이끌고가는 투쟁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가로쳤다。「오직 피압박 계급중에서 이 계급만이 자기의 독재로써 계급들을 폐절할수 있다。 이 계급은 수十년동안 자본가들과의 동맹과 업과 정치적 투쟁에서 훈련되고 단결되고 교양되고 단련되었다。 —오직 모든 도시의, 대자본주의적 문화를 섭취한 이 계급만이 모든 자기의 전취물을 유지하고 더 발전 시키며 고수할 결의와 능력을 가지며 그것들을 모든 인민에게, 모든 근로자들에게 도달할수 있게한다— 력사가 불가피적으로 그들에게 부과한 모든 중하(重荷)를, 시련을, 불행을, 커다란 희생을 감당할줄 아는 이 계급만이 오직 과거를 파렬(破裂)하여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자기의 앞길을 대담하게 관철한다— 오직 이 계급만이 소부르죠아에게서, 소 사무원들에게서, 「인텔리겐챠」들에게서 번영하는것 같은 그러한 모든 시정배(市井輩)적, 속물적(俗物的)인 성질에 대한 증오와 경멸로써 가득찬 훌륭한 사람들이다。 오직 「로동으로 단련되는 학교를 나온」 이 계급만이 온갖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온갖 성실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의 로동능력에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도록 할수 있다」(레닌전집 二四권 三一五—三一六폐지)

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활을 명백하게 보이어 주었다。 이 역활은 특히 국가 발전의 전환기에 현저하게 나타났다。 례를 들면 一九一八년 여름과 가을에 농촌에서 굴라크를 반대하

는 첨예한 투쟁이 전개되었을 때에 레닌—쓰딸린당
은 농촌에 로동자들의 해군을 조직하였다。식량조
달대(食糧調達隊)가 농촌으로 갔다。그들은 빈농민
들이 쿨라크를 반대하여 조직하는 그들의 결정적
투쟁을 방조하였으며 고무하였다。빈농위원회의 지
도부 구성에 저명한 프로레타리아 핵심(례를들면 땜
보브스끄현에 있어서는 빈농위원회 위원장들중에 대
략 四분의 一의 로동자가 들어있었다)이 있은 것은
모범적인 실례이다。이렇게하여 이것은 장래에있어
서도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발전의 결정적 계기로 되
었다。「선진 로동자들은 빈농의 지도자로 농촌근로
대중의 수령으로, 로력 국가의 건설자로서 「인
민속으로」 들어갔다」 (레닌전집 二三권 三一페지)
一九一八년 부농층을 억제함에있어서, 도시들의 식량
을 확보함에 있어서 혁명의 위험이 달려있었을 때인
쏘베트공화국의 준엄한 시기에 그러하였다。一九二
九년—다른 력사적 조건에서!에도 농촌에 심각한
혁명적 전변이 일어나며 할때에, 또 집단화 사업을
「우리 나라의 선진적 로동자들이 자기 손에」를
어쥐고」(「레닌주의의 제문제」二七〇페지) 나잤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불위끼[illegible]은 그때에 집단화 사업방조를 위하여
농촌에 二五,〇〇〇명의 선진 로동자를 파견하였다。
선진적 로동자들은 농촌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져
갔으며 로동계급의 정치적 조직적 경험을 근로농
민에게 전달하였으며 계급으로써의 쿨라크를 청산
하는 쿨라크와의 투쟁에 빈농과 중농을 고무하였
다。실례로써 므·숄로호브가 그의 소설 「개간된 처
녀지」에 표현한 다뷔도브를 뚜젤롭쓰끄 「二만五천」
로동자의 전본으로 들수있다。그 소설에는 로동계
급으로부터의 농민의 지도에 대한 구체적이며 예술
적인 사상이 형상되어있다。
인민의 적들—뜨로쓰끼도배, 부하린도배, 지노비에
브도배와 기타—와의 투쟁에서 불쉐위끼당은 로동
계급과 기본적 농민대중과의 동맹에 대한 사상을 고
수하였으며 이 동맹에서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할
을 확보하였다。농민은 원칙적으로 사회주의에 「적
의(敵意)를 가진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동계급
과 농민과의 사이를 분렬시키려고 시도하는 뜨로
쓰끼도배와 지노비예브도배를 쓰딸린동지를 수령으
로하는 당은 분쇄하였다。농민과의 동맹에서 로동
계급의 역할을 부인하며 쿨라크들파의 「타협」을
전도(傳道)하는 부하린도배와 뤼꼬브도배를 쓰딸
린을 수령으로한 당은 분쇄하였다。모든 이들
반역자들은 제국주의자에게 영합(迎合)하여 쏘
베트국가를 자본주의에로 복구하는 길로 돌리게
우려고 시도하였다。
로동계급의 헤게모니에 대한 레닌의 사상을 발전

시키면서 쓰딸린동지는 부르죠아 정권을 박멸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는 정치적 령역의 사
업에서의 一九一七년十월에 농민을 령도한것과 마
찬가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경제적 령역의 사
업에서, 로동계급은 기본적 농민 대중과의 관계
에서 령도자가 되어야하며 될수있다고 가르치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이 농민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근
로 농민을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인입(引入)하
며 사회주의 초기에 그의 경제를 개건하기 위하
여 국가정권을 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쓰딸린동지는 사회주의 공업화는 이 과업의 실현
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노는 사명을 가진것이
었다고 진술하였다。
국가의 공업화와 농촌경리의 집단화를 위한 레
닌! 쓰딸린 정책의 성과적 실현은 쏘베트동맹의 로
동계급은 경제령역에서도 기본적 농민대중과의 관
계에서 실제적으로 지도자로 되게하였다。로동계급
의 지도의 덕택으로 그의 당은 주권을 잡은 이후에 프
로레타리아 혁명과업—수천만 농민대중을 사회주의
의 길에 인도하는—의 곤난을 해결할 가능성을 보
게되었다。자기의 주위에 모든 근로자들을 집결한
로동계급의 강의성(剛毅性)과 견인불발성과 조직
성의 덕택으로 착취계급을 청산하며 그들을 쏘베
트 명위로부터 완전히 멸망시킬수 있게 되었다。
기본적 과정(課程)들을 수업(修業)한 쏘베트
동맹의 근로자들의 방법은, 특히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계급투쟁의 첨예화의 불가
피성에 대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과
그 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결론은, 다른 나라
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특히 신 민주주의국가들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신민주
주의 제국가에서 실현된 제개혁들, 례를 들면 지
주의 토지소유를 청산한것, 대산업과 은행을 국유
화한것 등은 로동계급당의 지도의 덕택으로써만
수행될수 있었던 것이다。례를 들면 체코슬로바키야,
항가리야, 불가리야와 기타 신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대산업 국유화는 력량의 축적됨에 따라 실시된
것은 주지하는바이다。최초에 다만 대기업소의 부
분을, 무엇보다도 독일인에게 속하는, 인민의 반역
자들에게 속하는 기업소들이 국유화되고 그 다음에
더 국유화를 확대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었다。이
법령의 채택은 동요분자들의 반항의 앞에서,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진행되었다。로동계급당
의 지도가 없이는 이 나라들에서의 더 심각한 사
회주의적 변혁을 보장할수 없었던것이다。
철저하고도 유일한 혁명적 계급으로서의 로동계
급의 지도적 역할을 부이하며 혹은 비하(卑下)
하는것은 맑쓰주의—레닌주의를 악변시키는 것이며 제

급과 계급투쟁에 대한 맑쓰—레닌주의를 파탄시키는것이다。이러한 맑쓰주의의 악변은 례를 들면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고 농민을 「가장 견실한 유고슬라비야 국가의 기본」으로 간주하는 유고슬라비야에서의 찌또 그루빠의 립장에서 표현된다。반역적 찌또 도배는 로동계급과 직업동맹들은 마치 유고슬라비야 인민해방투쟁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듯이 주장하면서 로동계급을 비방한다。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의 부인은 이들 반역자들로 하여금 계급적 조직의 최고형태이며 로동계급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당에 대한 맑쓰—레닌적 학설의 수정에까지 이르게한다。찌또와 그의 졸도들은 국가에서의 지도적 력량은 로동계급의 당이 아니라 인민전선이라고 공언한다。유고슬라비야공산당은 계급적 관계에서 극히 각양각색의 요소(로동자들、근로농민、개인경영농민、쿨라크들、상인들、소기업가들、부르죠아 인테리겐차들과 기타)를 포함한 비당적 인민전선에 실질적으로 용해된것을 표시한것이다。로동계급을 무장해제에 이끌고가는 이들 반역자들의 견지(見地)와 계급투쟁의 첨예화의 불가피성을 부인하는것과는 밀접히 관련된다。유고슬라비야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장성과 계급투쟁의 첨예화하는 사실을 부인하면서、개인경영의 농민을 유일한 완전한것으로 보면서 찌또 그루빠는 인민적 부농적 당의 립장으로 옮겨갔다。그는 벌써 이전에 불쉬위끼들에게 분쇄된 사회—혁명당과 우익 기회주의자들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에대한「리론」을 다시 들고나온、계급투쟁이 없이 사회주의전설의 가능성에 관한 악독한 기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설교(說敎)하게되었다。

찌또 그루빠의 이 모든 견지는 그의 민족주의의 표현에 나타난다。특히 민족주의적 죄악에 떨어진 찌또와 그의 졸도들은 맑쓰주의적 계급투쟁정책을 버리고 유일한 「민족적」전선에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련합」정책으로 대체한데 이르렀다。특히 민족주의적 타죄(墮罪)는 쏘베트동맹 및 신민주주의 제국가로부터 유고슬라비야를 리탈시키는 파멸적 길에、쏘베트동맹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리용하는것을 거부하고 특유한 「유고슬라비야식」사회주의에의 길을 설교하는데로 찌또와 그도당들을 밀어던졌다。「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정형에 관한」수개공산당 보도국 결정에는 맑쓰주의—레닌주의와 그의 계급과 계급투쟁에 대한 리론을 완전히 부인하는것을 표시하는 이 반맑쓰주의적 반레닌주의적 견지가 모든 면으로 예리하게 비난되어있다。

(三)

쏘베트국가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레닌—쓰딸린당에 지도되는 로동계급과 근로농민들이 온갖 착취로부터 해방되었으며、모든 또 온갖 착취자들과 압박자들은 영원히 최후를 고하였다。사회주의 경제체계의 승리의 기초에서 쏘베트동맹에서 모든 착취계급들이 청산되었다。

쏘베트사회는 벌써 자본주의 조건에서와 같이 적대적 계급들이 상호간 대립하여 분렬되어있지않다。그는 우의적 친선에 의하여 생활력이 강한、공동적 리해를 가진、서로 친밀한 계급들—로동자들과 농민들—사회적 계층들—인테리겐차들로써 구성되었다。

一九二九년 쏘베트국민 성분 조사 자료에 의하면(새 공화국들과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및 백로씨야를 제하고) 다음과같이 표시된다。도시와 농촌의 로동자와 사무원은 주민의 四九·七%、농민은—꼴호즈원 및 조합원—수공업자—四六·九%、개인경영농민 및 비조합원 수공업자는—二·六%、비력자는 ○·○四%로써 구성되었다。

쏘베트동맹의 로동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간에 매우 장성하였다。그의 성분에는 심각한 질적 변화가 생겼다。즉 개인자본경영의 기업소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은 없게되었다。왜냐하면 벌써 그러한 기업소들은 존재하지않는것이다。

농촌 프로레타리아 즉 쿨라크에게 착취받던 고용농은 없게되었다。이제는 모든 쏘베트 로동자들은 완전히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 기업소에 종사하고있다。「이렇게 된후에 우리 로동계급을 프로레타리아트라고 부를수 있을가? 그렇게할수 없음은 명백하다」라고 쓰딸린은 지적하였다。「……쏘베트동맹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아주 새로운 계급이 되었다。즉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폐절하고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확립하고 쏘베트사회를 공산주의의 길로 인도하는 쏘베트동맹의 로동계급으로 되었다」(「레닌주의의 제문제」五一一폐지)

쏘베트동맹의 농민은 다만 지주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었을뿐만 아니라 쿨라크、상인、고리대금업자、투기업자들의 착취로부터 해방되었다。농민은 벌써 분해되고 분산되었으며 또한 락후된 기술、자기의 개인소유에 대한 노예적 애착심을 가지고 자기의 소경리에서 고립적으로 하는 소상품생산자 계급이 아님을 표시한다。이와 반대로 쏘베트 농민은 압도적 대다수가 꼴호즈 농민으로 구성되었다。즉「그는 그의 로동과 그의 재산을 개인적 로동과 뒤떨어진 기술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집단적 로동과 현

계획적 기술에 의거하는것이다」。그들의 경제의 계초는—쓰딸린동지는 가르친다—「개인소유제가 아니며 요 집단적 로동의 토대에서 성장한 집단적 소유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五一一—五一二페지)

농촌경리의 집단화는 로동자들과 농민들을 서로 더 접근시키는것을 보장한다。무엇이 꼴호즈 제도가 승리하기 이전까지는 로동자와 농민을 갈라놓았던것인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농민은 자기의 경리를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의 기초에서 영유하였던것이다。무엇이 그때에 중농민의 불가피적 동요를 발생시켰는가? 그것은 중농은 소상품생산자이며 천연적으로 二중성을 가졌던 것이다。그러나 기본적 농민 대중이 꼴호즈의 길로 옮겨서면서부터 그들의 기본적 존재는 벌써 개인소유가 아니라 집단적 소유로 되였다。기본적 대중인 농민을 소소유적 경리에서 떼여내어 꼴호즈에 련합시키고 사회주의의 직접적 건설자로 만들었다。깔리닌의 표현에 의하면 「꼴호즈 농민은 자기의 생각에 있어서나, 세계관에 있어서나, 생활경험에 의하여서나, 목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의 지향에 의하여서나, 로동계급과 해마다 더욱 접근한다。즉 이제는 농민과 로동자는 통일한 로동을 하는 한 형제이라고 철제적으로 말할수있다」(깔리닌「농촌경제의 사회주의적 재건」一一六페지) 사회주의의 승리는 로동계급의 창조력을 특히 명백하게 보여주었다。그것은 로동계급은 다만 파괴할줄만 알고 창조할줄 모른다고 하는데 대한 부르죠아지의 견설을 엎질러 놓았다。그것은 (창조력) 로동계급과 그들에게 지도받는 근로대중은 낡은, 사멸되는것을 파괴하는것과 같이 새로운것을 역시 성과적으로 건설할수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사회주의건설의 수년동안에 국가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개변되었다。과거에 존재하던 짜리로씨야의 경제적 기술적 및 문화적 락후는 영원히 사라졌다。쏘베트동맹은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 선진적 공업 국가로 되었다。인민경제의 전체 생산에서 산업의 비중은 一九一三년의 四二•一%로부터 一九三八년에는 七七•四%로 장성되였다。새로운 산업부문들은 광범하였다—자동차 제조부문, 트락또르 제조부문, 비행기 제조부문, 공작기계제조부문, 정밀공구제조부문 기타—이것들은 낡은 로씨야에는 전체적으로 없었던것이다。농부와 목부의 나라 변방에와 중앙아세아 기타 지대에 새로운 산업구역이 자라났다。국가의 제二의 석탄—제철 야금근거지(우랄—꾸즈네쯔 지역)、제二의 석유 근거지(볼가와 우랄사이의 지역)를 창설하였다。쏘베트동맹의 기술—경제적 자립성은 확보되었다。예를 들면 만약 一九一三년에 로씨야에서 수요되는 석탄의 二九•八%、자동차의 一〇〇%、자전거의 一

〇〇%、목면(木綿)의 四六•九%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면 一九三七년에 와서는 벌써 쏘베트동맹은 이 물품들을 수입하는것을 그만두고 또한 많은 다른 물건들은 전부 국내 생산으로써 자기의 수요를 보장하게되었다。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위에서 농촌경리의 기술적 재 장비가 실현되었다。전쟁전야에 쏘베트동맹의 전야(田野)에서는 五八만의 뜨락또르、十八만二천의 콤바인、二十二만八천의 화물자동차가 일하고 있었다。

이 모든 장엄한 결과는 로동계급을 선두로한 쏘베트 동맹의 근로자들의 창조적 에네르기에 의하여 달성된것이다。로동계급의 로동에 대한 영웅성은 수천만 쏘베트로동자들을 포옹하는 사회주의경쟁에서, 쓰따하노브운동에서 명백히 표현되었다。일찌기 모든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의 속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번저넘어가서 그다음에는 꼴호즈전원에서 수천만 꼴호즈원을 포옹하였다。그후에 전쟁종결후 레닌그라드 로동자들의 발의에 의하여 쏘련인민경제 부흥발전 五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를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로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에 의하여 제기된「五개년계획을 四개년에!」란 호소는 전체 인민을 틀어쥐었다。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창조적 에네르기는 다만 물질적 생산의 부문에서만 표현되지않았다。로동계급과 농민은 착취로부터 해방되면서, 볼쉐위끼당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군중들속에서 경제의 천재적 조직자, 국가적 활동가, 문화의, 과학의, 예술의 가량(技倆)있는 일군들을 뽑아낸다。그들은 쏘베트인테리겐차의 새로운 핵심(약드로)—(八〇%—九〇%)으로써 구성되었다。일찌기 쓰딸린동지는 一九三六년에 쏘베트 인테리겐차의 八〇—九〇%는 로동계급、농민층 및 다른 근로자들 계층에서의 출신으로써 구성된다고 말하였다。

로동계급은 사회주의 조건에서도 사회의 국가적 지도를 틀어쥔 가장 선봉적 계급으로 계속하여 되고있다。로동계급은 쏘베트국가의 지도적 력량을 대표하는 볼쉐위끼당에 의거하여 사회의 국가적 지도를 실현한다。쏘베트동맹에서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활에 대한 가장 높은 표현은 쏘베트국가에서 국가적, 경제적 및 문화적 건설의 모든 사에 있어서 한개의 당이 즉 로동계급의 최종의 투쟁목적—공산주의 건설—실현에 복무하는 강령을 가진 볼쉐위끼당이 지도하는것으로써 실지로 나타난다。

쏘베트동맹에서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활은 무엇든다도 사회주의 경리의 최고형태를 대표하며 모 인민경제에서 지도적 역활을 하는 국가기업소에서의 로동에 표현되는 그 존재의 경제적 기초와

관련된다。 뿐만아니라 수십년동안 축적된 계급투쟁의 정치적 경험으로 보아 그의 조직성, 단결성, 및 사회주의 의식의 정도로 보아 로동계급은 남아있는 근로자들 층의 가장 높은 수준에 서고있다。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최고형태의 구현자로서의 로동계급은 농민의 로동까지 포함한 전체의 사회적 로동의 조직화에서 지도적 역활을 한다。 사회주의적 도시는 꼴호즈 농촌을 자기뒤에 인도한다。 농촌경리의 국가적 지도의 가장 중요한 공간(槓杆)은 꼴호즈농촌관계에서 사회주의 공업의 인도적 역활의 권화(權化)로되는 기계—뜨락또르정류소이다。 농촌경리의 기술적재무장, 농촌의 경제적 및 문화적 장성은 사회주의적 도시의 방조와 지도하에 실현되었다。 최근 수년동안에 광범한 발전을 보인 농촌경리의 전기화에 있어서의 이 방조는 특히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쓰베르들롭쓰크주와 모쓰크바주기타의 주들에서 성과적으로 수행된 농촌경리의 전기화는 지도적 공업 기업소들로부터 농촌에 보여준 방조의 결과를 현저하게 표시하는것이다。 볼쉐위끼당에 의거하여 로동계급의 지도의 덕택으로 꼴호즈에서의 개인소유적 경향의 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하며 꼴호즈건설의 더한층 강화를 보장한다。

볼쉐위끼당의 지도하에 혁명적 투쟁의 시기에 쏘베트동맹 로동계급에게는 탁월한 도덕적 성격이 형성되었다。 즉 견인불발성, 인내성, 집요(執拗)성, 견고한 동지적 련결 등을 만들어 내었다。「수백번 시험해 보며 수백번 고쳐가면서라도 어떻게하여서든지 목적을 달성하는 인내성, 불요불굴성, 준비성, 결단성 및 숙련—이 프로레타리아트의 특징들은 十월혁명전에는 十년 十五년 二十년동안에 형성되었던것인데 이 혁명은 그것들을 二년동안에 형성하였다」고 一九二○년에 레닌은 썼다。(「레닌전집」二五권 一五一—一五二페지) 로동계급의이 장엄한 성품(性品)들은 공민전쟁시기의 「공산주의 토요로동」에, 제一차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시기의 로동계급의 대중적 로동영웅정신에, 히틀러독일을 반대하는 조국전쟁 시기에 세운 위대한 로동의 공적에 명백히 표현되었다。 로동계급의 이 성품은 또한 현재 전 국가적으로 전후에 전개된 거대한 부흥사업에 표현되었다。

위대한 十월혁명의 三十년은 로동계급에게 국가의 주인이란 감정과 쏘베트동맹의 모든 사회적 국가적 생활에서 자기의 선진적 선봉적 역활을 가진 의식을 심어넣었다。 이 수십년동안에 쏘베트동맹의 로동자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 고유의 환경에서 자본주의의 관습으로부터 해방되는 커다란 사회주의 교양의 학교를 수업하였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여러해 동안의 계급투쟁에 의하여 형성된 로동계급의 장엄한 성품에는 쏘베트국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에 의한 쏘

베트적 제도로부터 산출된 새로운 성품이 결합되었다。 사회주의 기업소에서의 로동은 사회사업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로동에대한 새로운 관계를 산생하였으며 자기의 로동에있어서 공산주의건설에로 지향하는 전체 창조적 로동의 일부분을 볼수 있겠금 우리의 로동자를 가르치었다。 사회주의 기업소를 무장하는 높은 기술은 그의 높은 생산적 문화, 숙련을 필요로하였으며 자기의 로동을 정확히 조직하며 시간의 요인을 존중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적 생산방법은 로동의 창조적 성격을 로동에 부여하였으며, 그의 창조적 발의를 발휘하기 위한 가장 넓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혁신적 창조적 특성은 전후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의 알렉싼드르·샤스꼬브, 니끌라이·루끼체브, 마리야·볼꼬봐, 레온찌·보리스낀 및 기타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영웅들의, 로동에 명백히 나타났다。

쏘베트의 기업소들에서는 많은 젊은사람들의 보충을 하게되었다。 수백만 청년로동자들이 직업학교와·철도학교, 직잣학교 및 기타 학교들에서 준비되고있다。 이들 젊은 세대를 로씨야 로동계급의 영웅적 전통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혁명적 혁신적 정신을 그들에게 붙여(接)주며 로동에 대한 사랑, 조직에 대한 숙련, 직업적 긍지, 생산에 대한 주인다운 관계등의 정신으로 교양주는것은 필요한 것이다。

쏘베트동맹의 젊은 로동자들은 쏘베트국가의 생활에서 지도적 역활을 연출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력사를 가진 계급에 그들이 속한다는 합당한 긍지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쏘베트조국전쟁당시에 깔리닌은 로동예비조직의 로동자들에게 대하여 부탁하면서 말하였다。 즉「생각하여보시오。 우리는 바로 로동청년의 새로운 간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쏘베트제도의 강화가 장차 달려있는것입니다。 쓰딸린동지는 우리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어떻게 보충되는가 하는데 대하여 무관심하게 대할수 없다고 한 두번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쏘베트 주민들이 더좋은 운명을 밟아가도록, 정치적 지성(知性)적 관계에서 로동계급은 쏘베트사회에서 높은 수준에 립각하도록 바랍니다」(「공산주의적 교양에 대하여」一六二페자) 이 깔리닌의 말은 로씨야로동계급의 영웅적 전통의 당당한 후계자와 자기 선조의 영원한 영예의 계승자들이 젊은 로동의 세대에서 나온다고 호소하면서 꼼소몰 교육자들 사업의 모든 중요성을 강조한것이다。

(「몰로도이 볼쉐위크」一九四八년十四호에서)

였기때문이다。 근로대중들이 파시즘과의 투쟁에서 성공하였고 인민민주주의를 확립한것은 공산당의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민족해방투쟁과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확보하였다。 공산당은 근로자들의 리해관계를 위한 헌신적인 투쟁으로써 인민대중의 무한한 신망을 획득하였다。

공산당들은 착취자들을 반대하고 파시즘과 [illegible]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국가의 민족적주권을 위하여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투쟁함으로써 독일파시스트 강점자들을 반대투쟁하는 이 국가들의 인민들중에서도 공산당은 가장 적극적인 투쟁자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공산당들은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서의 민주주의적 개혁의 발기자이며 선도자(先導者)이다。 반동에 대한 모든 투쟁은 공산당들의 발기에 의하여 또한 그들의 가장 열성적인 참가로써 집행되었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자본주의로부터 떨어져나온 국가들의 사회적 및 국가적 구조를 변혁시킨 새[illegible]한 개혁들을 실행하였다。 인민정권은 수립되자마자 광범한 근로대중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킬 목적에서 지주를 청산하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과 토지적은 농민에게 분여한 토지개혁실시에 착수하였던것이다。

「토지는 경작하는 자가 소유한다」하는 원칙에 의하여 [illegible] 실시되였다。 [illegible] 인민민주주의 [illegible]에 따라 토지개혁실시의 기한 및 속도와 [illegible] 개인 [illegible] 상이하며 [illegible] 토지의 [illegible] 소유제와 봉건적잔재를 청산하고 토지와 농기구를 [illegible] 없는 [illegible] 또는 토지적은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illegible]이 실시되였다。 [illegible]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서 [illegible] 토지 [illegible] 조치(措置)는 [illegible] 중(重)[illegible] 국 [illegible]자와 [illegible]스트 [illegible]을 몰수한것이다。

[illegible] 및 운행의 [illegible]는 [illegible] 기본 [illegible] 속도에 있어서 각 인민민주주의국가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어느 국가에서든지 그것은 예외없이 모든 광범분야에 걸치고있으며 부르죠아지의 경제적세력을 몰락시키였다。 산업 및 운행의 국유화는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서의 근로계급으로 하여금 경제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지하자원 [illegible] 교통 제관 및 대 중의 기업소들을 점유하게 하였다。 산업국유화는 전체인민경제에 있어서 지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적 (사회주의적) 부문을 이 국가들에 창설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사회적 및 국가적 구조

느·파르베로브

제二차세계대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세력관계를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변동시켰다。 이러한 변동의 가장 중요한 립증으로 되는것은 쏘베트동맹의 강화, 그의 경제적 및 군사적위력의 장성, 쏘베트인민들의 도덕적 정치적 통일의 공고화, 쏘베트국가의 국제적위신의 향상이다。

중구라파 및 동남구라파의 일련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체계에서 떨어져 나온것도 또한 자본주의체계와 사회주의체계간의 변동된 세력관계를 특징짓는다。

제국주의에서 떨어져나온 중구라파 및 동남구라파 제국가 인민들은 쏘베트군대가 그들의 강토에 진주하여 독일파시스트 강점자들을 구축하고 영·미의 간섭을 미연에 방지하여 준 덕택으로 자기들의 국가에 대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정치조직인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창설할수 있었다。

쏘베트동맹과 그의 군대가 없었더라면 이 국가들의 인민들은 영·미와 간섭자들과 국내의 반동이 포행과 테로의 방법으로써 인민들을 강제로 파시스트적 군주제도하에 몰아넣고있으며 류혈적 국내전쟁에 끌어넣고있는 희랍과같은 운명을 면하지 못하였을것이다。 파시즘을 무력적으로 격멸하고 독일파시스트강점자들을 구축한 쏘베트군대의 승리는 중구라파 및 동남구라파 제국에 있어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는데 결정적조건으로 되었던것이다。

이 국가들에서 낡은 제도의 전복은 부르죠아지와 지주들의 상층부가 장악하고 있던 정권을 없이하고 로동계급을 수위로하는 근로자들의 수중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이 국가들의 인민대중속에서 로동계급의 위신과 영향은 혁혁히 장성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파시즘과 투쟁하며 착취계급의 정권을 전복하고 근로자들의 정권을 수립하기위한 투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웅성과 비타협성을 발휘하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의 산업에서의 국가적 부문은 현재 전체산업생산의 八〇—九五%에 달하고 있다。

산업 및 은행의 국유화는 토지개혁과같이 착취계급들이 격렬하게 반항하는 정세가운데서 가혹한 계급투쟁으로써 진행하였다。이러한 개혁들의 성공을 보장한것은 그 개혁들이 광범한 근로대중의 절실한 리해관계에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완전한 지지를 받은것이었다。

새로운 인민정권앞에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할 과업이 나서고 있었다。새로운 국가기구가 없이는 국가정권이, 사실에 있어서 인민적인것으로 될수없을것이다。「국가기구밑에는 두말할것도 없이 무엇보다도 상비군(常備軍)과 경찰 및 관리(官吏)가 속한다」라고 레닌은 지적하였다。(전집 二十一권 二五六페지) 반동적인 장관(將官)들과 군관들에 의하여 령도되고있던 낡은 군대 대신에 새롭고 완전하게 인민적인 군대를 창설하며 근로자들을 압제(壓制)하던 경찰을 청산하고 상층부르죠아와 지주들의 리해관계를 위하여 복무하던 관리들을 경질(更迭)하여 버리는것이 필요하였다。로동계급 및 모든 근로자들의 리해관계를 보호하는데 적응하는 새로운 국가기관들을 창설하여야만 되었었다。

낡은 국가기구의 폐지와 새로운 국가기구의 창설은 적대분자들이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적으로 반항하는 정세가운데서 진행되었다。그러나 로동계급과 그의 당의 단호하고도 철저한 정책은 인민들과 같이 새로운 정권을 보지하였고 근로자들의 경각성과 적극성은 전쟁전의 반인민적 정권에로 복귀하게하는 낡은 국가기구를 유지하여보려는 반동의 책동들을 분쇄하였다。새로운 국가기구의 창설은 인민정권의 공고화를 보장하는 인민민주주의의 거대한 승리중의 하나이었다。

인민정권 강화의 중요한 조건은 새로운 군대를 창건하는것이었다。새로운 군대의 골격(骨格)은 빨찌잔부대들이었다。새로운 지휘간부들은 빨찌잔부대들과 기타 반파시스트투쟁에서의 공훈있는 지도자들중에서 주로 선발되었다。군인들에게 정치적교양을 실시하는 기구가 창설되었다。반동적인 장관들과 군관들은 군대에서 축출되었다。낡은 경찰과 헌병의 기관들은 청산되고 인민대중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위하는 인민적 보안기관이 창설되었다。인민적보안기관의 기본적 간부들은 반파시스트 애국자들중에서 모집되었다。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실시한 결과로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은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시작하였다。

× × ×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의 사회적 및 정치적 제도에서의 심각한 변화는 새로운 헌법의 채택을 요구하였다。알바니야(一九四六년 三월) 불가리야(一九四七년十二월) 루마니야(一九四八년四월) 및 체코슬로바키야(一九四八년五월)에서 각각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다。파란에서는 파란공화국 최고기관의 구성 및 권한에관한 법령과 공민의 권리 및 자유에대한 선언이 채택되었고(一九四七년二월) 항가리에서는 국가기구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었다。(一九四六년 二월)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의 헌법초안 작성에는 모든 진보적 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쏘련에서의 쓰딸린헌법 초안에대한 전 인민적 토의의 좋은 경험들은 이 국가들에서 리용되었다。이 국가들의 헌법초안은 모두 전인민적토의에 붙이었고 여기에는 광범한 근로대중들이 참가하였다。특히 이와같은것은 인민적공화국들에서의 주권이 민주주의적 성질을 가지었다는것을 완전하게 말하여준다。

인민적 공화국들의 헌법은 새로운 사회 및 국가제도의 근본원칙과 국가주권기관들, 국가집행기관들 및 사법기관들의 구성 및 활동을 확정하고있으며 공민의 기본적권리와 의무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있다。그 헌법들은 주권이 로동계급을 선두로하는 근로인민들의 수중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인민공화국을 공고화하고있다。인민민주주의제국가들에서의 국가정권기관들은 전복된 착취계급들의 반항과 자본주의제도 및 부르죠아지의 통치를 회복하여보려는 모든 시도를 진압하며 국외의 제국주의자들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며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위하여 복무한다。

인민공화국들에서 인민경제에대한 지도적부문들은 국가의 수중에있다。그러나 이 국가들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적근원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의 요소들은 아직도 잔존하고있고, 발전하고있으며 그들은 국제적반동의 지지를 리용하여 기왕의 자본주의적 질서를 회복하려고 애쓰고있다。

인민민주주의국가라는것은 독일파시즘에대한 쏘베트동맹의 력사적승리의 직접적인 산물이다。파시스트 침략국가들이 무력적으로 격멸되었으며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가 급격하게 첨예화하였고 쏘베트동맹의 위력이 막대하게 강화된 정세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 앞에는 쏘련과 친밀한 협동을 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제도에 의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移行)을 실현할 가능성이 열려졌다。

이리하여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행하고있는 로동계급을 선두로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주권의 특수한 력사적형태이다。인민민주주의제도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기능을 훌륭하게 실행하고있다。즉 그는 전복된 착취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고있으며 근로대중들에게 로동계급에 의한 국가적 지도를·주면서 그들을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에로 끌어넣고 있고 사회주의적사회를 건설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성립 및 발전과정에서 공산당들은 정권의 핵심으로 되었으며 지배적정당들로 되였다。

一九四八년에 이르기까지 알바니야를 제외한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산당이 있는 동시에 사회민주당도 존재하고 있었다。인민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통일은 강화되었다。一九四八년에 맑쓰—레닌주의의 기초위에서 공산당과 사회민주주의당이 합동하여 로동계급의 통일적당들이 탄생한것은 로동계급의 정치적사상적 및 조직적 통일의 공고화를 표시하는것이었다。사회민주주의적 당내에서 우익적분자와 반동분자를 축출한것은 이러한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되였었다。

로동자당들의 통일은 로동계급대렬의 분렬을 종결시키고 그들을 결속시키는것이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력량을 강화하는것을 의미한다。또한 로동자당들의 통일은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서의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일층 공고화하는것을 의미한다는것도 의심할바없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서는 공산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실시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의 헌법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적구조에 관한것이 기입되어있다。이 국가들의 헌법은 인민민주주의국가에는 현재 세계의 기본적 경리형태 즉 사회주의적(국가적 및 협동조합적)、개인자본주의적 및 소상품적 경리형태가 있다는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이것에 적응하여 생산수단은 (一)、전인민적 재산 즉 국가적소유 (二)、인민적 협동조합단체들의 소유 (三)、개인적소유들로 되어있다는것을 헌법은 규정하고있다。이와같이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의 경제에는 많은 형태가있다。

이 국가들에서의 국가적소유는 중요한 생산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으로써 인민경제발전의 주요한 지주(支柱)와 인민공화국들의 번영 및 자주의 물질적 기초를 구성하고있다。

국가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높은 형태이며 선진적인것이지만 아직 이 공화국들내의 전체 인민경제에서 압도적인것으로 못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리형태의 기초이다。 인민적공화국들내에는

개인적 대자본이없다。자본주의적 독점은(트레스트、카르텔、콘체른)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고있다。법령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소유와 그의 상속권 및 개인경리의 창발성은 허용되고있다。그러나 누구든지 개인소유권을 사회에 유해하게 리용할수없다는것이 헌법에는 지적되고있다。이와같이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헌법은、사회적 인민적 리익의 유원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있다。인민적공화국들의 헌법은 부르죠아헌법들을 특징짓고있는 개인소유는 불가침이라는 원칙을 포기하고있다。인민적공화국들의 헌법은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생산수단을 인민의 리해관계가 이를 요구한다면 국가소유로 전환시킬수있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이러한 경우에 그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법령으로 규정된 액수의 보상을 받을수있다。

인민적 제국가의 헌법은 「토지는 경작하는 자가 소유한다」라는 토지개혁의 기본적원칙을 법적으로 공고화하였다。개인적 대토지소유제는 폐지되었고 개인이 소유할수있는 토지의 면적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있다。인민민주주의국가들은 근로농민들의 경리에 대하여 기계트락토르보급소의 설정과 장기대부(長期貸付)와 파종에 소용되는 물질로써 방조를 주고있다。또 그 국가들은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 특히 농업로력협동조합의 발전을 도와주고있다。여기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인 원조를 주고있으며 특전을 주고있다。

불가리야에 있어서는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토지는 누구보다도 먼저 농업로력협동조합에 단합되고있는 농민들에게 분여되었다。협동조합경리들은 三년동안 직접세(直接稅)의 면제를 받고있으며 협동조합은행으로부터의 특전적 대부를 받고있다。

이러한 대책과 기타의 방법을 실시한 결과로 불가리야에서는 지금 전체 촌락의 四분의一에서 농업생산협동조합이 조직되고있다。불가리야전국에는 七만六천명의 조합원을 단합하고 있으며 三十만헥타르의 토지를 경작하고있는 이와같은 협동조합이 二천개이상 있다。농업노력협동조합에 가입한 매개농민은 자기가 경작하고 있던 모든 토지와 역축(役畜)과 농기구를 조합에 넘겨주되 동시에 토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은 보류하고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 있어서의 농업생산협동조합은 농업경리의 단합적생산과 집체적 토지경작의 첫형태이다。생산협동조합의 더욱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리야정부는 막대한 대부를 주고 있으며 이 나라에서는 이미 七〇개 이상의 국영 기계트락토르정소가 창설되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구조의 원칙들은 계획적 경제발전의 조건들을 지어

놓고있다。 인민민주의국가는 국영경리 및 협동조합경리부문에 립각하고 개인경리부문에 대한 일반적 통제를 실시하면서 유일한 경제계획에 의하여 경제생활을 지도하고있다。 계획화를 할수있는 조건은 주요한 생산수단들과 은행들이 사회주의적소유로 이행되었으며 이것으로써 인민경제전체에 대하여 계획적 영향을 줄수있는 기본적 공간들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기때문이다。 중요한 생산수단들을 관리하고있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생산력의 장성과 국방의 강화를 확보하며 자기들의 민족적주권을 옹호하고 공고화하면서 자기국가의 경제적및 문화적생활을 지도하고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一九四六년—一九四七년에 있어서 계획작성에 착수하였었다。 파란과 항가리에서는 三개년의, 그리고 불가리야와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二개년의 인민경제계획을 채택하였다。 항가리에서는 一九四八년 十二월 三十一일에 三개년계획을 二년五개월동안에 즉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二개년계획을 완수한 결과로 一九四八년말에 이르러 산업생산은 전쟁전 수준을 一〇%나 초과하였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제고되었다。

一九四八년에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인민경제발전의 五개년계획을 채택하였고 알바니야에서는 二개년계획을 채택하였다。 불가리야에서는 불가리야로동당(공산주의자들의) 제五차대회에서 심의한 五개년계획이 준비되었다。 파란에서는 六개년계획이 작성되었는바 그것은 파란로동자들의 두정당—파란로동당과 파란사회당의 합당대회에서 토의되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훌륭하게 실현할수있는 조건은 로동계급이 조직되어있고 단결되어있으며, 공산당이 령도하고 있고, 개인자본을 제한하며 구축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형태의 경제가 장성하며 확대되는데있다。 인민경제계획실현에 있어서 계획의 실현을 전인민적 사업으로 취급하는 인민대중들의 앙양된 로력이 중요한 역활을 리행하였다。 계획은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직업동맹과 협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기타 조직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야 헌법 제一六四조에는 「유일한 경제계획을 실행하며 수행할데대한 어떠한 과업을 받은 각자는 자기의 개인적 및 경제적 능력에따라 충실하고 절약성있게 그를 수행하여야한다」라고 씌어있다。

정권이 근로자들의 수중에 넘어간것과 주요한 생산수단들이 국가소유로 전환된 사실은 이 국가들에서의 로력의 성질을 변하게하였다。 인민적 제공화국들에서의 로력은 사회경제의 기본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로동능력있는 매개공민의 영예이며 의무적인것으로 인정되고있다。 인민적 제국가들의 헌법은 로력에대한 일반적인 법령상 및 도덕적 의무와 로력의 질과 량에 따르는 정당한 임금에대한 권리를 확고하게 규정하고있다。

사회경제적 구조의 새로운·원칙들은 이미 아주 훌륭한 결과들을 나타내고있다。 산업에서의 국영부문은 지도적인것으로 되었고 협동조합들은 국가의 지지와 원조에 의하여 발전되고 있으며 인민경제계획(二개년, 三개년, 五개년)의 실시는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수준의 향상을 보장하고있고 사회주의 건설에대한 위대하고도 고결한 목적은 로력경쟁운동과 돌격운동이 광범하게 발전되고있는 그러한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근로자들을 단결시키고있다。

경제분야에서의 근본적인 개혁들은 계급적 세력관계에 있어서도 그의 구성에 변동을 일으켰다。 대산업 및 은행들의 국유화와 관련하여 도시들에서 대자본가들이 청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산업 및 상업부문에서의 소자본가들은 남아있다。 자본주의적 요소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과업의 해결은 국영산업을 일층 발전시키며 공고화하고 국가 및 협동조합상업을 발전시키는것과 관련되고있는것이다。

토지개혁은 지주계급을 청산하고 근로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었으나 농촌에서의 계급분화와 부농계급(富農階級)의 장성을 근절하지못하였다。 인민적 제국가들에서 토지국유화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우리는—지미뜨로브는 말하였다—빈농과 중농들을 농업로력협동조합들에 점차적으로 가입시키며 기계뜨락또르차정소를 증설하고 토지를 소작줌을 금지하며 토지의 매매를 제한 및 금지할것이며 이렇게함으로써 모든 토지를 근로농민들의 영원한 사용에로 넘기는 토지국유화에대한 문제를 실천할수있는 조건을 만들어 낼것이다」 가장 수가 많은 착취계급인 부농계급에 대하여서는 현재 이를 제한하며 배제하는 정책을 쓰고있다。 부농을 계급으로 보아 청산하는것은 쏘련의 경험이 말하여주는 바와같이 대중적인 농업집단화에 기초하여서만 실시할수있을것이다。 농업이 대중적인 집단화 즉 농업을 대규모적인 사회주의농업으로 전변시키기위한 사업은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며 배제하고, 로동계급의 지도밑에 로동계급과 근로농민과의 동맹을 공고화하며 농업부 대규모적 생산을 위한 기계들을 생산하는 사회주의공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을 교양하고 그들에게 집단적 경영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어떠한 준비적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서 기본적계급으로 되고

있는것은 로동계급과 그와 동맹하고있는 빈농 및 중농인 근로인민이다。 그리고 이 동맹에서 령도적 역할을 하는것은 로동계급이다。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은 독일파씨즘과 이 국가들에서의 그의 추종자들을 반대하는 공동적 투쟁에서와 새로운 사회적 및 국가적 제도를 창조하며 인민정권을 공고화하는 공동적인 로력활동에서 강화되었다。 지금 이 로농동맹은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반대하여 나가고있다。 지금 로농동맹은 자본주의 요소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생산력을 제고하고 근로농민들의 경리를 방조하여주며 적당한 조건들을 준비함으로써 농업경리의 생산상의 협동화를 전개하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있었다。

로농동맹에서 지도적 력량으로 되고있는것은 로동계급이다。 인민적 제국가들에서의 현재의 로동계급의 대다수는 이미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착취와 압박을 받지않고있다。 지금 이 국가들의 로동계급은 모든 근로자들과같이 주요한 생산수단들을 소유하고 있다。 로동계급은 사회에대한 국가적 지도를 실현하고있다。 국가적, 사회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산당을 중심으로하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일층더 강화하는것은 인민적민주주의의 주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의 정권이 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개혁들을 발전시키며 심화하게하면 할수록 계급투쟁은 점점 더 첨예화하여 가고있다。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공산당들은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건설의 곤난들을 극복하도록 무장시키면서 그들에게 계급성과 전투적준비에 대하여 교육주고있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경제적 토대가 완전하게 소멸되지않고있는이상 파란통일로동자당의 투쟁강령 파란로동당과 파란사회당의 합동대회에서 채택된 [illegible]는 말하였다—자본주의적 분자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자본주의의 경제의 낡은 제도들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적분자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진행하여야하며 자본주의적 착취의 모든 형태와 그의 경제적 근원들을 완전하게 청산하여 버리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정치적권력을 박탈당하였으며 자기들의 경제적지반을 상실한 자본주의적분자들은 인민정권과 근로자들이 쟁취한 민주주의적 성과들을 박탈하여 보려고 애쓰면서 태업행위, 간첩행위, 해독행위, 테로적활동 및 파괴행동을 취하고있다。

인민민주주의의 국가들에 남아있는 국내반동들은 영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고있다。 루마니야에서의 마니우, 불가리야에서의 페트코프 및 틀체프그루빠 그리고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기타 반동분자들에 대한 재판사건들은 반국가적 음모의 단서(端緖)들이 이러한 잔존의 국내반동분자들을 지지하며 교사(敎唆)하는 영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는것을 부인할수없이 증명하여주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구조는 근로자들의 광범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주는 물질적 토대이다。 인민민주주의제국가들의 헌법은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일찌기 가져보지못하였으며 또 현재도 가지지못하는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주고있다。

공민의 권리들중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사회—경제적 권리들인바 즉 이 권리들은 근로대중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리해관계를 가지는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헌법은 공민들에게 로동에대한 권리, 휴식에대한 권리 및 로쇠와 질병시에 물질적 방조를 받을수있는 권리를 주고있다。

로동에대한 권리는 국가정권의 인민민주주의적특성과 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부문이 현저하게 많으며 또 그것이 점점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것과 그리고 인민경제의 적당한 계획화로써 보장되고있다。

전쟁까지는 인민들의 문화수준이 매우 낮던 동구라파제국의 정세에 있어서 교육에대한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주고 있는것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알바니야의 헌법(제二十八조)은 「…국가는 모든 공민들에게 학교에 입학하며 기타 문화기관들을 리용할 가능성을 보장한다。 학교는 국가에서 관리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제이며 무료이다。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한다」라고 지적하고있다。 전쟁전에는 주민의 八五%가 문맹자이었던 알바니야에서 지금은 四五○개이상의 초등학교와 一六개의 중학교가 개설되고있으며 광범한 문맹퇴치사업이 활동하고있다。

불가리야에서도 인민정권이 수립된이후 인민교육사업에서 현저한 성과들을 획득하고있다。 九○七개의 새로운 초등학교가 개설되였고 중학교의 수는 전쟁전의 二배로 증가되였다。 또 불가리야에는 약 二五백개의 직업학교와 성인로동자 및 종업원들을위한 六九개의 초등 및 중등학교가 창설되였다。 전쟁전에 불가리야에는 대학이 한개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네개이며 一천五백명의 학생들이 국비를 받고있다。

인민민주주의의 특징중의 하나는 완전한 민주주의적평등 및 민족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한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헌법은 민족별 또는 종족별에 관계없이 공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

나 또는 /이와반대로 민주별에 의하여 특권을 부여하거나 그리고 민족들간에 적개심을 선전하는것은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소수민족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구속없이 발전시킬수있는 권리와 모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 권리를 부여받고있다。

일찌기 소수민족은 「멸등」한것으로 취급되고 있었고 초보적인 공민권까지도 박탈당하고있던 루마니야에서 지금은 민족불평등과 억압정책이 영원히 청산되었다。 루마니야령토인 트란시루바니야의 항가리사람들은 루마니야사람들과 꼭같은 권리를 부여받고있다。 약 二천개의 초등학교 二五〇개의 중등학교 및 몇개의 항가리사람들의 학교가 개설되고 있다。 三十종이상의 신문 및 잡지가 항가리말로 출판되고있다。 기타의 소수민족들(세르비야、희랍、아르메니야、독일、및 기타)을 위하여서도 학교들이 개설되고 있으며、 이 학교들에서는 모국어로 교수하고있다。

불가리야내의 소수민족들(토이기、마께도니야 및 기타)도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정권은 이것을 실제로 가능하게하기 위하여 소수민족의 학교를 재설하며 소수민족의 간부들을 양성하는 방도를 취하고있다。 알바니야내의 희랍사람들이 거주하고있는 지방들에서는 희랍민족의 학교가 설치되고 있으며 희랍어로 신문이 발간되고 있다。

민족동등권의 원칙은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 민족적 기관들을 조직하며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나타나고있다。

체코슬로바키야 헌법에 의하여 슬로바키야지방의 립법권과 집행권은 슬로바키야 민족의기관인 슬로바키야민족회의 및 대표자협의회가 실시하고있다。 슬로바키야인민들의 민족적리해관계의 대표자인 이기관들은、 통일적 국가체계에 있어서 슬로바키야사람들과 체코사람들의 동등권을 확보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슬로바키야의 대표자들은 체코슬로바키야의 국민회의와 정부에 참가하고있다。

특별한 민족적정권기관을 설정할 필요가없는 기타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일반국가기관들내에 소수민족의 대표들의 참가가 보장되고있다。 이리하여 루마니야의 대국민회의에는、 三十명의 항가리민족출신의 대의원이 참가하고있다。 불가리야 대인민회의에는 마께도니야와 토이기민족의 대표자들이 참가하고있다。 희랍사람들이 소수민족으로서 전체인구의 二·四%을 점하고있는 알바니야에서는 인민회의 대의원 八四명중 三명이 희랍사람이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자들이 광범한 정치적자유 즉 언론、출판、집회 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와 단체를 조직할수있는 권리를 가지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공민들은 신앙 및 신교의 자유、 종교의식거행의 권리、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신서의 비밀을 보장받고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헌법은 이 국가들의 공민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자유는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공고화하며 인민대중의 조직적 및 정치적 자주활동을 촉진하여야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헌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목적에 리용함은 유죄로 인정되며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반대하여 발악하는 인민정권의 원수들에게는 자유가 없으며 또 있을수도없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헌법은 광범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는 한편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능력에따라 일하며 조국을 옹호하며 사회적 의무들을 충직하게 취급하여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있다。

× × ×

인민적공화국들의 헌법은 실제로 민주주의적 원칙위에 그리고 진정하게 인민의 주권위에 기초하고있다。

인민적공화국들에서의 모든 주권들은 인민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시방으로부터 최고국가기관에 이르기까지 인민에 의하여 선거된다。

선거법은 인민들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실제로 할수있도록 또 그렇게함으로써 국가적 주권기관들에 인민의 대표들이 확실하게 선거되도록 보장하고있다。 성년(成年)의 모든 공민들은 성별、 민족별、인종별、 신앙、 교육 및 거주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주권기관들에 피선될수있다。(불가리야와 알바니야에서는 十八세에 달한 성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十八세부터 선거권이、 二十一세부터 피선권이 부여되고있고 루마니야에서는 十八세부터 선거권이、 二十三세부터 피선거권이 부여되고있다。 항가리에서는 림시선거법에 의하여 二十세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파란에서는 립법회의(세임) 선거법에 의하여 二十一세부터 선거권이、 二十五세부터 피선거권이 부여되고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의 선거는 평등적이며 직접적이고 비밀투표에 의하여 실시된다。 립후보자 추천권은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선거자들의 그루빠에도 부여되고있다。 정당들은 독자적 립후보자를 내세울수도있으며 공동립후보를 내세울수도있다。 립후보자추천에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한다。 인민으로부터의 당선자들은 선거자들앞에서 자기 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들앞에서 보고하여

야되고 있기전에 소집될수있다。이와같이 국가기관들의 사업에대한 인민대중의 일상적인 검열이 예견되어있는바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의 선거법이 적정하게 민주주의적 성질을 가지었다는것은 그것을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에서 명백하게 나타날 뿐만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실지에서도 나타난다。불가리야에서는 一九四五년과 一九四六년에、알바니야에서는 一九四五년에、루마니야에서와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一九四六년과 一九四八년에、파란에서는 一九四七년에、항가리에서는 一九四五년과 一九四七년에 각각 총선거가 실시되었다。이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준비、조직 및 실시에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또한 인민들이 그것을 관리하였고 또 그 선거는 선거자들에 대하여 아무러한 압박도없이 아주 자유로운 성질을 가진 선거이었으며 근로자들이 거의 례외없이 투표에 참가하였다는 것이 그의 일반적 특징이였다。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는 유권자의 八〇─九〇%가 선거에 참가하였고 개별적 경우에있어서는 그 이상이었다。그러나 一九四六년 미국에서 실시한 국회선거시에는 유권자의 불과 三七·五%가 투표에 참가하였을뿐이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의 선거는 그 국가들의 발전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도적 력량으로 되고있는 지배적 당인 공산당의 주위에 근로자들을 일층 결속시키게하였다。

국가를 관리하는데 인민들이 영향을 줄수없는 부르죠아국가와는 달라서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서는 인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가관리에 참가하여 여러가지의 사회단체를 통하여 중요한 법령과 국가적 대책들을 작성하며 실시하는데 참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주권을 실현하고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은 국민투표(전인민적 문의─問議)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 이는 파란과 불가리야에서 적용되었었다。

一九四六년六월三十일 파란에서는 장차 제정할 헌법의 원칙들에대한 그리고 국가적 경제적 및 정치적 구조에서의 중요한 변경들에 대하여 문의하는 전인민투표가 실시되었다。이 투표에는 유권자의 九〇%이상이 참가하였다。인민들은 실시되는 개혁들을 승인하였으며 전쟁전에 있어서 반동의 소굴이었던 상원(上院)을 폐지할데 대하여 찬동하였고 오─데르강과 나이쎄강까지 미치는 파란의 력사적인 국경을 회복하는것을 환영하였다。

불가리야에서도 인민정권은 국가 관리형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인민자신이 자기들의 의사를 발표할 가능성을 주었던것이다。 파시스트적 범죄로써 오명을 쓰고있던 게오르그왕을 복귀시키는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왕당파적 테로의 만행속에서 진행하였고 인민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수없었던 회랍과는 판이하여 불가리야에서는 一九四六년 九월 八일 전인민적투표가 아무러한 강제도없이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던바 四、五〇六、六四二명의 유권자중 四、一二九、五三四명 즉 九一·六七%가 여기에 참가하였다。투표자중 인민공화국을 찬성투표한수는 三、八三二、〇〇一명 즉 九二·七二%이었다。

「두국가는 비교하여볼때─브·므·몰로또브동지는 말하였다─불가리야에서는 일반이 승인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공화국이 건립되었고 회랍에서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원칙과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가지지 못하는 군주제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있다。」(「대외정책 제문제」 一八〇페지)

× × ×

인민적공화국들에서의 대표기관은 최고 및 지방의 국가주권기관들이다。불가리야와 알바니야에서는 인민회의、루마니야에서는 대국민회의、파란에서는 세임、체코슬로바키야와 항가리에서는 국민회의가 그 국가의 주권기관으로 되고있다。이것들은 「립법기관일뿐만아니라 전권(全權)을 가지는 최고주권기관이다。기타의 모든 주권 및 국가관리기관들과 모든 최고 공무원들은 여기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으며 그앞에서 책임지어야하며、그에게 관할되며 임의의 시기에 그에 의하여 파면될수있다。최고대표기관은 법률을 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 채택한 법률의 실시를 튼튼히 보장하고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최고대표기관에는 소위 상원(上院)이라는 것이 없다。이전의 정치제도에서 반동의 소굴로 되고있었으며 다소라도 진보적인 모든 정책의 실시를 곤난하게하고있던(파란、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야의)상원들은 민주주의원칙에 부합하지않는 것이라하여 이 국가들의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부르죠아국가들에서의 상원(제二원)은 보통 반동의 중심으로 되고있으며 그 국가의 전진을 곤난하게하고있다。「아는바와같이─쓰딸린동지는 말하였다─제二원에는 흔히 제一원보다 권리가 일층더 부여되는것이요、또 통례로 제二원은 비민주주의방법으로 혹은 그의 의원들을 위로부터 임명하는 방법으로 조직되는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十一판 五三〇페지)

과연 불란서에서 제二원인 공화국의회는 간접선거로 선거되고있으며 또한 이 선거에서도 로동자

들의 선거권을 압축할 목적으로 산업지대보다 농촌에게 우세권을 주고있다。一九四八년에 다수과정부에 의하여 시인된 새로운 선거법에 의하여 전쟁전의 불란서 상원을 선거하는데 적용되고 있던 과거의 제도、즉 일반적투표는 폐지되고 공화국의회의 대의사를 선거하는 선거자를 선거하는 권리는 오직 시협의원(市協議員)에게만 부여되는 제도가 사실에 있어서 부활되었다。이태리에서도 제二원인 상원은 매우 높은 표준에 의하여 또한 제一원(하원)의원 선거보다 더욱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기초하여 선거되고있다。

인민적공화국들의 최고대표기관은 유일한 립법기관이다。립법권은 그의 독점적 권한이다。

부르죠아국가들에서는 정부만이 법령안을 발의할수있지만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는 정부와 동등하게 최고대표기관의 대의원과 그의 상임위원회 및 기타 기관들도 법령안을 발기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것은 인민적공화국들의 최고대표회의는 정부의 활동에 대하여 실제적인(부르죠아국가들에서와 같이 외양적인 것이 아니라)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는것이다。합의대통령제(合議大統領制)가 수립되어있는 인민적국가들(불가리야、알바니야、루마니야)에서는 최고대표회의는 직접적으로 정부를 조직하고 있으며 정부의 결정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국가주권의 지방기관들(불가리야、루마니야 및 알바니야에서는 인민협의회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인민 또는 민족위원회 파란에서는 인민들의 라다(회의)도 또한 진정한 인민의 대표기관이며 전권기관(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이다。

국가주권의 지방기관들은 선거자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거되며 그들앞에서 책임지며 그늘에게 관활되고 있고 그들의 의사에 의하여 파면될수있다。

지방주권기관은 지방적인 경제 및 문화건설을 령도하며 사회질서의 보장과 법령 및 공민의 권리를 확보하며 지방예산을 채택하고 그리고 기타의 지방적 사업들을 결정한다。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사업들을 관리하면서 지방주권기관들은 또한 최고주권기관의 결정에 기초하여 자기지방에서의 일반적인 과업의 해결에도 참가하고있다。

지방주권기관들은 근로대중 및 근로자단체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에 립각하여 자기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광범한 근로대중들이 지방주권기관의 사업에 인입되고 있으며 지방주권기관은 근로자들이 국가적 사업관리를 배우는 학교로되고있다。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주권기관들에는 근로자들로서 되는 상임위원회가 조직되고있다。이 상임위원회들은 주권기관의 심의에 붙일 문제들을 결정하며 인민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기업소 및 기관들의 사업을 검열하며 지방주권기관의 결정들을 실시함을 도와준다。

지방주권기관들은 자기의 선거자들앞에서 책임지는 동시에 그의 상급기관앞에 책임지어야하며 상급기관의 지시를 수행함은 의무적이다。이러한것은 지방주권기관들이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 및 二중적종속의 원칙위에 건립되어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서의 국가주권기관들의 성원을 보면 로동자 농민 및 근로인테리겐챠의 대표자가 그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있다。一九四六년十월에 선거한 불가리야 대인민회의는 七三명의 로동자 九○명의 농민 三명의 기사 十五명의 협동조합활동가 및 인민의 기타대표들로써 구성되어있다。대인민회의 대의원의 대다수는 전쟁시 반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다。그들중에서 당시 파시스트에 의하여 五四명이 사형선고 十七명이 종신금고、二三명이 十五년의 금고、一○七명이 그이하의 금고선고를 받았던것이다。

一九四八년三월二十八일에 선거한 루마니야 대국민회의에는 一七七명의 로동자、六六명의 농민 또한 인테리겐챠의 대표들이 들어있다。이것과 전쟁전의 루마니야국회의원들의 사회성분과를 대비하여 보는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一九二八년에 선거한 상원의원 三四七명중 二六一명이 대자본가 및 지주이었다。상원의원중에는 한명의 로동자、농민、수공업자도 없었다。과연 이러한것은 「모든 주권은 인민에게있다」라고 위선적으로 선언하고있던 전쟁전의 루마니야헌법의 조목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인민의 최고대표기관에서 선거된 합의기관(불가리야와 알바니야에서는 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루마니야에서는 대국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또는 역시 최고대표기관에서 선거된 대통령은 인민적공화국(파란、체코슬로바키야、항가리)에서의 최고지도자이다。

인민적국가들에서의 합의대통령은 최고대표기관의 대의원중에서 그 대표기관의 임기(任期)를 기한으로하여 선거된다。그러나 부르죠아국가들에서의 대통령은 대표기관의 의원(議員)이 아니며 대표기관의 임기보다 더 장기간의 임기로서 선출되는것이 법칙으로 되고있다。

합의대통령이 없는 인민적공화국에서는、대통령이 역시 인민의 최고대표기관에서 선출되는바 그것도 약간의 부르죠아국가들 례를들면(미국)에서와같이 국가를 팟쇼화하기위하여 반동분자들에 의하여 리용되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을 조성하게하는 특수한 선거방법에 의해서 선출되는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있는 파란과 체코슬로바키야에서도 합의기관(파란에서는 국가협의회(쏘베트)、체코슬로바키

아에서는 국민회의상임위원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과 공동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한다。

인민적국가들에서의 합의대통령은 자기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인민들이 선거한 최고대표기관앞에 책임진다。쓰딸린동지가 지적한바와같이 합의대통령제는 「원하지않는 우연한 일로부터 국가를 보장하여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것이다」(「레닌주의의제문제」十一판 五三一페지)

인민적공화국들의 국가주권의 최고집행 및 관리기관으로 되고있는것은 정부 즉 내각이다。

합의대통령을 가지고있는 인민적공화국들(불가리야, 루마니야, 알바니야)에서는 정부가 최고대표기관에 의하여 조직된다。최고대표기관이 휴회중일때에는 그의 상임위원회에게 내각구성의 변경을 제의하여 경질할수있으며 여기에 관하여서는 최고주권기관의 차기(次期)회의에 승인을 받아야한다。정부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가들(파란, 체코슬로바키야, 항가리)에서는 정부의 구성 및 정강은 인민대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모든 인민적공화국들에서의 정부는 최고대표기관앞에 책임지며 복종하고 합의대통령제도가 수립되어있는 국가들에서는 그에게도 책임진다。

국회를 가지는 부르죠아국가들에서도 정부는 형식적으로 역시 국회앞에 책임지는것으로 되어있다。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그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독자적일뿐만아니라 국회를 압도하고 있으며 국회의 중요성을 상실하게하고있다。부르죠아국회의 기본적 기능인 립법권까지도 정부에 의하여 매우 심하게 찬탈(簒奪)당하고있다。

인민적국가들에서 정부는 모든 국가적 관리를 지도하고있다。정부는 각성(省) 각종위원회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사업과 계획에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기타의 기관들의 활동을 지도하며 협동하여주고 있다。국가기관들에 대한 계통적인 관리를 확보하기위하여 국가통제기관들이 창설되었다。

공산당은 인민적공화국들의 정부에서 지도적역활을 하고있다。대부분의 인민적공화국들에서 공산당의 대표들은 수상 및 중요한 대신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다。인민적공화국들의 정부에는 자기의 구성에 전인민적 통일전선 즉 민족(조국)전선에 참가하고있는 정당의 대표들을 모두 참가시키고있다。

인민적공화국들의 헌법은 재판기관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규정하고있다。즉 재판소는 선거되며 재판은 인민적 참심원의 참가에 의하여 실시한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재판관들은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재판은 합의제의 기초에서 진행되며 사건의 심리는 법

령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피소자는, 변호권 사건의 자료들을 조사할 권리 및 재판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며 통역을 리용함을 보장받고있다。중앙집권적 검찰기관들은 혁명적민주주의법령들을 준수함을 확보하고있다。

× × ×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에 규정되고있는 인민공화국의 인민주권원칙이라든지、그 기관들의 조직 및 활동의 기본원칙이라든지、또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체계라든지에서 우리는 쓰딸린헌법이 미치는 좋은 영향을 간과(看過)하여서는 안된다。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은 세계에서 제일첫번째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의 쓰딸린헌법에서 확정된 국가건설경험들을 리용하고있다。이것은 쏘베트헌법이 다른나라인민들에게는 그 행동강령으로 된다는 쓰딸린동지의 소언(所言)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다。

쏘베트동맹의 쓰딸린헌법은 승리한 사회주의의 헌법으로서 쏘련의 기본적 원칙들을 공고화하고있다。쓰딸린헌법은 쏘련에서의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숙청의 소산(所産)인것이며 쏘베트사회는 호상 친선적인 두계급 즉 로동계급과 농민계급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삼고있는것이다。

인민적공화국들의 헌법은 이나라들에서의、사회주의토대를 구축할 가능성을 주는 근로자들의 전과(戰果)를 반영하고있으며 그는 이 나라들의 사회구성이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근로자들뿐으로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비록 철저한 제한정책과 압박정책을 받기는 한다하더라도 아직 착취계급이 남아있다는것을 전제로하고있다。

오늘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이 걷고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걸을 사회주의에 이르는 길은 그 근본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이 이미 사회주의공업화、및 집단화와 계급투쟁 및 착취 계급청산을 경유하여 걸어온 길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근로계급의 무기로 되고있는것은 공산당을 선두로한 로동계급이 령도적역활을하는 근로자들의 주권을 대표하고있는 인민민주주의적 국가제도이다。

불가리야공산당 제五차대회에서의 결론에서 그·므·지미뜨로브는·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맑쓰-레닌주의의 원칙에 적응하는 쏘베트제도와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전혀 동일한 주권 다시말하면 또시와 농촌의 근로자들과 동맹하고 있는 로동계급주권의 두가지 형태이다。이 두제도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두가지 형태이다」

사회주의로 나가는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길은

주의국가들의 일반적 법칙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고있다。이 특수성은인민민주주의국가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자기의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국가 즉 사회주의국가의 강력한 지지에 립각함으로써 결정된다。

인민민주주의의 각개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오직 국제주의의 기치밑에서만 오직 쏘련 및 모든 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의 튼튼한 친선에서만 성공적으로 발전될수있다。국제주의로부터 리탈하고 부르죠아민족주의의 길로 넘어간다는것은 유고슬라비야에서의 민족주의적 찌도도당들의 배반적 행동이 증명하여주는바와같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영에서 리탈하고 제국주의에 예속됨을 면하지못하게하는것이다。

인민민주주의는 국제주의의 올바른 원칙에 의하여 강화된다。민족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량립할수 없는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쏘련은 그들의 주권에대한 확실한 옹호자로되고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강력한 지주(支柱)로 되고있고 야심없는 친우로 또한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서의 방조자로 되고있다。

(「볼쉐위크」지 一九四八년 二十四호에서)、

「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연구자료(十九)

레닌의 협동조합 계획에 대하여

박 영 빈

레닌선생은 一九二二년 가을에 중병으로 인하여 병석에 눕게되었다。그러나 레닌선생은 병석에서도 자기의 사업을 계속하였다。당시에 그는 중요한 제론문「일기장에서의 제페지」「협동조합에 대하여」「로농감독국을 어떻게 조직할것인가?」「적어도 좋으면 좋다」를 썼다。

一九二三년 一월六일에 「협동조합에 대하여」란 론문을 썼다。레닌선생은 그 저명한 자기의 론문 「협동조합에 대하여」에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총계획의 한 부분으로 되는 협동조합 계획을 해명하였다。레닌선생은 자기의 론문에 쓰기를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국가 주권이 로동계급의 수중에 있는 한,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 주권에 속하여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실지에 있어서 주민을 협동조합에 망라하는 과업만이 남아있는것이다。과거에 계급투쟁 및 정권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정당하게 확인하는 사람들로부터 까지도 합법적 조소、비소、멸시적 태도를 당하고 있던 그 사회주의가 주민을 최대한도로 협동조합에 망라하는 조건에서는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게된다」라고 하였다。

로동계급의 독재의 조건 하에서、농민의 기본대중과의 로동계급의 동맹이 성립되고 그、동맹에서 로동계급이 지도적 역할을 하는조건 하에서、또는 농촌경제를 재무장할수 있는 거대한 사회주의적 산업이 존재한 그러한 조건 하에서 수백만 농민군중을 망라하는 생산협동조합은 사회주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는 것을 레닌선생은 교시하였다。

레닌선생은 협동조합이 농촌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농민의 기본대중의 리익에 가장 적절한 형태임을 발견하였다。

레닌선생의 협동조합계획에는 농민대중을 협동조합에 망라시킬 구체적 과업이 지적되었나니 즉 처음에는 판매와 공급의 조직체로써 협동조합에 농민대중을 인입시키어 그것이 점차적으로 생산협동조합으로 전화될것을 론증하였다。

레닌선생은 자가의 협동조합계획에 령세농 경제를 개조함에 있어, 또는 농민의 기본대중을 사회주의 정신으로 재교양함에 있어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수중에서 거대한 수단으로 되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의 기본대중을 사회주의건설의 궤도에로 인입 이행시킴에 대한 구체적 제대책을 지적하였다。

레닌선생의 협동조합계획은 낮은 계단의 형태인 공급—판매 형태로부터 높은 계단의 형태인 생산—꼴호즈 형태에 이르기까지 농촌경제 협동조합의 모든 형태를 망라하였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형태는 근로대중의 한 조직체로서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승리의 조건 하에서 광범한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인입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이다。

볼쉐위끼당은 레닌선생의 협동조합 계획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가장 어려운 과업 즉 소상품 생산자를 사회주의적 궤도에로 이행시키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근로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로 인입시키는 위력한 무기로써의 협동조합의 특수한 의의에 대하여 쓰딸린선생은 다음과같이 론증하였다。「이것은 근로자들의 대중적 조직체—비당원 조직체인바 그 조직체는 근로자들을 우선 소비자로서, 그리고 다음에는 생산자로서 (농촌경제 협동조합) 련합시킨다。 협동조합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확립된 뒤에, 광범한 건설 시기에 특수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농민대중과의 프로레타리아트 선봉대의 련락을 쉽게하며 그 농민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인입시킬 가능을 지어준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一권—一一五폐지)

레닌선생은 인정하기를 농촌에서 거대한 교양사업을 실시함으로써만이 농민대중을 협동조합에 인입시킬수 있다고 하였다。「전반적 협동조합화가 실시되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적 토대 위에 두 발로써 설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반적 협동조합화는 그 자체에 농민 (곧 대중으로서의 농민)의 문화를 포함한 고로 그 협동조합화는 전반적 문화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레닌「협동조합에 대하여」)

레닌선생은 원만히 문명치 못한 나라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은 고려없는 일이라고 인정하던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적(敵)들의 궤변을 분쇄하였다。

레닌선생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리론에 의하여 예정되던 그것보다 다른 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니 즉 도시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변혁은 문화적 변혁, 문화적 혁명전에 실시되었다고 하였다。 이 문화혁명은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바 그 문화혁명은 로씨야를 사회주의 국가로 되게함에 충족하다고 레닌선생은 론증하였다。

쓰딸린선생은 레닌선생의 협동조합계획 실현을 강견히 지지하면서 뜨로쯔끼파와 지노비예브파의 협동조합에 대한 반당적 견해, 즉 중농민의 비중을 과소평가하며 레닌의 협동조합계획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페지하려던 그러한 반당적 견해를 여지없이 파괴 분쇄하였으며 동시에 토호의 「협동조합소굴」을 통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토호가 사회주의로 전생(轉生)될수 있다는 부하린의 리론에서 표현된 우경기회주의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견해를 무자비하게 파괴 분쇄하였다。

레닌선생의 협동조합 계획실천의 첫시기는 대략 부흥기와 합치되는바 그 시기에는 도시와 농촌간에 상업적 련락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농촌경제 협동조합과 산업협동조합은 농촌경제산물과 수공업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조직과 인민에게 생산수단을 공급해주는 것을 위한 투쟁을 성과있게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개인자본을 그에게 극히 「자양불(滋養物)」을 많이 주던 상품순환권(商品循環圈)으로부터 배제시키였다。 一九二八년에 이르러는 농촌경제 협동조합 사업에서는 빈농 및 중농의 경제에 생산원조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농촌경제 대차조직 공작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직접 레닌선생의 협동조합 계획에 지적된 사업의 구현이었다。

레닌선생은 쓰기를 「협동조합에 주는 국가대차는 개인기업소에 주는 대차보다 조금이라도 초과되어야할것이며 심지어 중공업등에 주는 대차액에까지 이르러야 할것이다」라고 하였다。

레닌선생은 지적하기를 현재에 우리가 보통 이상의 정도로 지지할 그 제도는 곧 협동조합제도이니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볼쉐위끼당은 협동조합 형태를 자기의 사리에 적용하려는 토호와 「네프만」, 분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모리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가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국가로부터 협동조합에 주는 할인(割引)、과 원조를 받으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건설기에 있어서 농촌경제 협동조합은 농촌의 빈농—중농대중을 광범한 생산협동조합에로 인입시키는 그러한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一九二九년에 농민의 기본적 대중이 집단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대중적 꼴호즈건설은 국가로부터 커다란

사회주의적 공업의 앞으로의 발전, 쏩호즈와 꼴호즈 조직 및 토호와의 투쟁의 강화는 전반적 집단화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농민의 기본대중은 꼴호즈에 들어갈 필요를 실제에서 더욱더욱 확신케되었다。

대전환의 해인 一九二九년은 농촌에서의 큰 사변으로써 특징된다。 즉 중농민이 대중적으로 꼴호즈로 들어왔다。 자원적 원칙하에서 농민들이 대중적으로 꼴호즈에 들어온 그것은 토호를 반대하는 첨예한 계급투쟁을 전개시켰다。

광범한 농민대중을 새로운 꼴호즈의 길로 인도키 위하여는 농촌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대한 리론으로써 볼쉐위끼당을 반드시 무장시켜야할 것이었다。 집단화에 대한 쓰딸린선생의 리론이 곧 그 리론이었다。 집단화에 대한 쓰딸린적 리론은 꼴호즈의 대중적 운동의 지도를 위하여 볼쉐위끼당을 무장시켰으며 집단화를 반대하며 쏘련의 발전을 자본주의적 길로 돌리려고 시도하며 토호를 옹호한 뢰끄브파, 부하린파를 타도 분쇄키 위하여 당을 무장시켰던것이다。 집단화의 진행과정에서 꼴호즈 건설에 대한 볼쉐위끼당의 로선을 위반하는 사실이 나타났을때에 인민의 그 원쑤들은 집단화를 실패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쓰딸린선생이 그 커다란 위험을 미연에 폭로 분쇄하였다。「성공때문의 현운」이란 쓰딸린선생의 론문이 꼴호즈건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였으며, 농민대중으로하여금 안심케 하였으며, 꼴호즈운동의 새로운 앙양을 환기시켰다。 그리하여, 그 사업의 귀결(歸結)로 보아 쓰딸린선생은 一九一七년十월에 있은 혁명적 변혁과 동등한 그러한 위대한 혁명적 변혁인 집단화의 조직자로 되었으며 고무자로 되었다。 쏘련의 농촌경제의 집단화는 「……심각한 혁명적 변혁, 자기의 귀결로 보아 一九一七년十월에 있은 혁명적 변혁과 동등한 사회의 낡은 질적 상태로부터 새로운 질적 상태에로의 비약인것이다」(쓰딸린)

이 혁명은 단번에 사회주의 건설의 삼개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즉 쏘련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진 착취계급인 토호계급 즉 자본주의 복구의 성색을 숙청하였으며, 농민—쏘련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진 근로자—을 령세 개인경제의 길로부터 거대한 사회주의길로 이전시켰으며, 가장 광범하고 가장 필요한 분야이지만 인민경제에 있어 가장 락후된 분야인 농촌경제에 있어 튼튼한 사회주의적 토대를 창건하였다。

농촌에 집단화가 실시됨과 관련하여 농촌에서의 볼쉐위끼당 단계의 역활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의 농촌경제발선에 대한 그 당단체들의 책임감이 더 높아졌다。 쓰딸린선생은 지적하기를 농

지지원조를 받았다。

레닌선생의 협동조합계획에 의거하여 쓰딸린선생은 리론적으로 연구하고 단합화의 리론에 의하여 가장 이려운 과업인 수백만 농민대중을 령세적 개인소유적 경제의 길로부터 거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이전시켰다。

이 거대한 사업을 볼쉐위끼당은 쓰딸린선생의 령도하에서 실천하였다。 쓰딸린선생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의 꼴호즈 형태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연구하시고 그 현계단에 있어서 꼴호즈 건설의 기본적 또는 중요한 형태는 농촌경제조합이며 그 농촌경제조합은 꼴호즈원들의 개인리익을 그들의 사회적 리익과 부합시킬 가능을 주는 가장 정당하고 또는 농민이 리해할 수있는 형태라는것을 론증하였다。 그리고 토호의 제한과 제외(除外)의 정책으로부터 전반적 집단화에 의하여 계급으로서의 토호를 숙청할 정책에로 넘어갈것을 규정하였으며 기계정류장의 의의는 농촌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재건함에 있어서와 국가로부터 농촌경제와 농민에게 원조를 줌에 있어 지점(支点)으로되는 거기에 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볼쉐위끼당은 기본적 농민대중을 농촌경제의 사회주의적 재건으로 이전시킬 거대한 준비사업을 실시하였다。 레닌선생의 협동조합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대한 현대적 공업을 창설하여야 할것이었다。 이러한 현대적 공업을 토대로 하지않고는 집단화를 실천할수 없었던것이다。 공업화를 위한 당의 투쟁은 벌써 一九二七년 말에, 이르러 결정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농촌경제는 산업보다 다른 형편에 처하여 있었다。 농촌경제는 그 전체로 보아서 전전수준을, 초과하였으나 그의 중요분야인 곡물경제가 아직 전전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던것이다。 상품곡물은 전전수량의 절반에 이르지못했다。 그 원인은 낮은 상품화비률을 가진 분산된 령세농이 국가농촌경제에 압도적이었던 까닭이다。

十五차 당대회에서 쓰딸린선생은 농촌경제가 산업보다 뒤떨어지게된 원인을 깊이 해석하고 그 해결방침을 지적하였다。 쓰딸린선생은 말씀하기를「소규모인, 극소규모인 농민경영을, 점차로, 그러나 동요없이 그리고 강압 수단에 의하지 않고 실증과 설복의 방법으로, 토지의 공통적, 협동적, 집단적 경작의 기초위에서 농업기계와 뜨락또르를 적용하고 농업강화의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대규경영으로 결합하는데있다。 이밖에 다른길은 없는것이다」라고 하였다。 十五차 당대회는 쓰딸린선생의 이 지시에 의하여 볼쉐위끼당을 농촌경제를 근본적인 사회주의적 변혁에로 매진케하였다。

촌에 개인경제가 압도적인 그 당시에는 당은 농촌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에 있어 자기의 간섭을 다만 국부적 원조, 권고, 혹은 충고로써만으로 국한할 가능을 가졌던것이다。 그러나 끌호즈가 조직된 조건하에서는 불쉐위끼당 단체들이 끌호즈의 지도사업을 자기의 손에 잡아야할것이며, 끌호즈사업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부담하여야할것이며, 끌호즈가 과학과 기술에 기초하여 자기의 경제를 추진시키도록 원조하여야 할것이다라고 하였다。

불쉐위끼당은 끌호즈의 강화를 원조할수 있으며 끌호즈를 참다운 불쉐위끼적 끌호즈로 전환할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간부들을 농촌으로 파견하였다。 끌호즈는 경제조직체의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그러나 다 아는바와같이 이 형태자체가 모든것을 다 해결치는 못하는것이다。 이 형태에 어떠한 내용을 주입(注入)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것이다。

불쉐위끼당 단체들은 끌호즈건설의 모든 세밀한 부문에까지 침투하였으며 끌호즈 지도간부들을 선발교양하였으며, 끌호즈원들 사이에 많은 교양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들의 소사유에 대한 잔념을 근절하는 광범한 사업을 전개하였던것이다。 一九三三년에 기계정류장내에 조직된 정치부가 끌호즈를 강화함에 있어 특별히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정치부에 파견된 一만七천여명의 불쉐위끼당 간부들은 두해동안에 끌호즈 열성자를 양성하며 끌호즈를 강화하며 적의(敵意)를 품은 토호 해독분자들을 끌호즈로부터 숙청함에 있어 많은 업적을 쌓아놓았다。 벌써 一九三四년에 이르러는 정치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부는 일반적 당기관으로 개조되어 현존한 구역당위원회와 련합되었다。 불쉐위끼당은 끌호즈의 경제적 지도를 개선하며 새로운 끌호즈 간부를 양성하며 끌호즈원들의 정치적 수준을 높이는 전적 책임을 구역당위원회에 부담시켰다。 불쉐위끼당은 쏘베트농민들중에서 실시되는 자기당 단체들의 사업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간수한다。 불쉐위끼당은 끌호즈원들과 자기 당단체들의 일상적 련락을 광범히 하며 사회경제의 계속장성을 위한 투쟁을 강화 추진하며 끌호즈 대중의 물질생활수준을 제고시킬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인정하였다。

끌호즈제도의 승리는 쏘련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생활의 각방면에 근본적인 혁명적 변천을 초래하였다。 착취계급들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진 농민의 세기적 원쑤인 계급—토호—이 숙청되었다。 쏘련농민은 영원히 착취로부터 해방되었다。 국제적 부르죠아는 쏘련에서의 자기의 사회적 지주(支柱)를 잃어버렸다。 쏘련에서 압도적 대다수의 근로계급인 농민은 벌써 개인경제로부터 거대

한 사회주의적 경제의 길로 이전되었다。 쏘련농민은 협동적 로력과 선진적 농촌경제 기술에 기초하여 농업하게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창조되었다。

농촌경제와 산업은 유일한 사회적 토대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발전케 되었다。 협동조합화에 대한 당의 정책은 새로운 쏘련농민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열성적 건설자로 되게하였다。 끌호즈제도의 승리는 로동자와 농민의 친선 동맹을 일층 공고케 하였으며 쏘베트국가의 위력을 일층 강화시켰다。

쏘련농민은 선진과학과 선진 농촌경제 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농업을 실시한다。 농촌경제에서 낡은 로동도구는 없어져 버리었다。 농촌경제에서 로동은 근본적으로 개조되었다。 농촌경제에서 로동은 더욱더욱 공업로동의 각종형태로 변경된다。 그것은 벌써 一九四〇년에 이르러 주요한 농촌경제 작업이 대체적으로 기계화된 사실만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一九四〇년경에 춘경의 七一%, 추경의 八二%가 기계화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추수의 四三%가 꼼바인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고도(高度)로 기계화된 끌호즈—쏩호즈의 생산을 토대로한 쏘련농촌경제는 높은 템포로 발전되고 있다。 一九四〇년에 농촌경제의 총생산액은 二三二억루블리에 달하였다。 그런데 一九一三년에는 농촌경제 총생산액이 다만 一二六억루블리에 달하였던것이다。

레닌선생이 「협동조합에 대하여」란 자기의 론문에 지적한 문화혁명이 없이는 완전한 협동조합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시를 불쉐위끼당은 깊이 인식하고 쏘베트농촌에 있어서의 문화건설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쏘베트 농촌에는 심각한 문화혁명이 실현되었다。 一九一四—一九一五년에 농촌 학생수가 六백二十만명이었다면 一九三八—一九三九년에는 농촌학생 총수가 二천七백六十만명에 달하였다。 혁명전 황제로씨야 농업대학 및 각종 농촌경제 간부양성소에 一八、六〇〇명이 수업하였다면 一九三八—一九三九년에는 八十만명 이상이, 수업하였다。 쏘베트농민중에서 수백만의 쏘베트 인테리가 양성되었다。 농촌력사에 있어 처음으로 수다한 사탑들의 협동적 로동을 조직하는 조직자들이 양성되었다。 一九三八년에 농촌에는 九十九만명의 뜨락또르운전수와 뜨락또르 조(組)의 조장(브리가지르)과 十二만五천명의 꼼바인수와 二十만명의 운전수가 일하였다。

레닌선생의 협동조합계획에 의하여 구현된 끌호즈제도의 위대한 쟁취중 하나로 되는것이 남녀간에 있은 차별을 끌호즈에서 퇴치한 그것이다。 이 말성에 대하여 쓰딸린선생은 다음과같이 말씀하였

다。「다만 꼴호즈 생활이 로동을 영예의 위업으로 할수있었으며 다만 꼴호즈생활이 농촌에서 진정한 영웅-녀사를 탄생할수 있다。다만 꼴호즈생활만이 불평등을 숙청하고 녀성으로 하여금 올바른 사지위에 서도록하였다。이것은 여러분이 잘아는 사실이다。꼴호즈는 로동일을 설정하였다。그러면 로동일이란 무엇인가? 로동일 앞에서는 모두가 즉 남자나 녀자가 다 평등하다。로동일에 많이 일한자는 많은 소득을 얻는다」 다만 꼴호즈에서만이 농민녀성이 사회적 및 정치적 생활에 참가할 가능을 가지는것이다。

레닌선생의 협동조합계획에 의하여 실현된 꼴호즈제도에 있어서의 쏘베트농민의 거대한 쟁취는 그로하여금 열렬한 쏘베트 애국주의를 일층 더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쏘베트조국의 발전을 위한 강의한 력량을 일층더 분발케 하였다。

독일 팟쇼강점배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한 쏘련인민의 조국전쟁은 쏘베트국가의 우월성을 전세계에 표시하였다。꼴호즈제도는 전시의 엄숙한 시험을 이겨내었다。쏘련의 전 인민과함께 꼴호즈농민은 적(敵)에 대한 경제적 승리를 쟁취하였다。물론 꼴호즈제도와 꼴호즈농민이 없이는 히틀러도배와같은 간악하고도 간교한 적들을 반대하는 그 격렬한 전쟁시기에 식량문제와 산업을 농촌경제 원료로써 공급하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었던것이다。

레닌—쓰딸린당은 꼴호즈농민을 위대한 애국적 위업에로 고무시켰다。꼴호즈농민들은 진심으로써 쏘베트조국과 자기의 꼴호즈를 방위하였다。

전쟁이 승리적으로 완료된후 불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는 인민경제의 복구와 금후 발전에 대한 거대한 강령을 작성하였다。그 강령은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에 구현하였다。쏘련인민은 극난(極難)한 조건에서 경제복구에 대한 과업을 해결케 되였다。독일 팟쇼 강점자들은 쏘련인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다。그런중 전후 경제건설의 난관은 一九四六년 한해로써 더욱 심각화하였던것이다。불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는 전쟁에 의하여 생긴 상처를 최단기내에 퇴치하며 인민경제 각분야의 발전을 추진시킬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 채택하였다。 농촌경제의 복구와 그의 금후 발전은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과업중 하나인것이다。

꼴호즈와 꼴호즈원에 대한 쓰딸린적 배려(配慮)의 표현으로써는 一九四六년九월十九일에 채택된 「꼴호즈에서 농촌경제 조합규정 위반 퇴치 대책에 대하여」란 쏘련내각과 쏘련공산당 (불쉐위끼) 중앙위원회 결정이 된다。그 결정은 조직 및 경제면에 있어 꼴호즈를 강화함에 거대한 역할을하였다。그리고 전동맹공산당 (불쉐위끼) 중앙위원회 二월 (一九

四七년) 확대위원회의 「전후 농촌경제 제고의 대책에 대하여」란 결정서는 전후 농촌경제 제고를 위한 투쟁 강령이다。이 결정서는 농촌경제의 전후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을 보장하는 그러한 조직적 추진력으로 되는것이다。그러한 전환은 벌써 一九四七년에 보게되었다。꼴호즈농민은 一九四七년에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五八%나 더많은 농산물수확을 얻었다。그리하여 쏘련국가는 농촌경제의 파종면적과 기술면이 전전수준에 이르지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전에 가장 우수한 해에 거둔 수확과같은 량의 수확을 거두었다。

쏘베트농민의 량곡을 위한 투쟁과 금후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강의한 투쟁이 쏘련에서의 배급제의 페지를 보장한 제조전능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쏘련에서의 꼴호즈제도의 승리와 농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의 향상은 레닌선생이 작성하고 쓰딸린선생이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레닌선생의 협동조합 계획의 위력과 생활력을 확인하여 주는것이다。

레닌선생의 협동조합 계획에 표현된 사상은 광범한 농민대중의 의식에 침투되어 위력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환되였다。그 물질적 력량은 농촌경제의 발전을 급진적으로 추진시켰으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가져왔다。

쏘련 농민은 금후 꼴호즈 제도의 강화를 위하여、열렬히 투쟁하고 있다。로동계급과 인테리와의 밀접한 상호 협조와 레닌—쓰딸린당의 지도하에서 쏘련농민은 자신있게 공산주의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보도

「마샬안」은 서구라파인민들에게 무엇을 가져왔으며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은 어떻게 생활을 건설하였는가?

—유·엔보도부의 보도에 대하여—

유·엔구라파경제위원회 최근회의의 석상에 제출된 경제적 개관은 다수 구라파제국가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변명할 사명을 가졌던것이다。 이 개관속에서 광고되고있는것이 바로 마샬안의 원조 밑에서 달성된 구라파부흥의『혁혁한 제성과』들이다。

그러면 실제에 있어서는 이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분석할것같으면 어떠한 결론이 생겨나올것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이를 결론지을 수 있는것이다。 서구라파 제국가의 전후경제의 특징은 새로운 위기의 장성이다。 마샬안은 위기의 침공을 제지하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이 위기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미국이 구라파제국가들 예속화하며 그들의 경제발전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다 알려져 있는바이다。

그러면 대체 마샬안은 서구라파제국가에 무엇을 가져왔던가? 대중적 실업의 장성、국가기업소의 정지、인플레、전체인민경제의 붕괴、머지않은 장래에 대한 더욱더 음참한 전망—이것들이 모두 심각하고 염증나는 위기인것이다。 一九四八년에 마샬안화된 十五개 구라파 제국가에서의 실업자의 수는 최소한도로 백만명이나 증가되였다。 대중적 실업은 이태리、백이의、화란、독일、서부제지대、영국、오지리、심지어는 최근까지 다른 나라에서 로동자들을 끌어들여오던、불란서에서 급속히 장성하고 있다。 백이의에서는 실업자의 수가 八、九〇五명에서 二一一、〇〇〇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태리에서는 지금 二〇〇만명의 실업자를 산출하고 있으며 불란서에 있어서도 역시 실업자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있다。 독일 서부 제지대에서는 실업은 二배로 증가되어 지금 그곳에서는 一二〇만명의 구직자들이 등록되어 있다。 실업의 장성은 생산기업소들의 민성적인 조업불능이 낳은 결과인 것이다。 이태리에서는 공업능력은 겨우 五〇%밖에 리용되지않고 있다。 백이의에서는 경제적 곤난이 벌써 현실적인 위기의 형식을 띠였다。

영국에서도 이와 꼭 같은 현상이 관측되고 있어 전체 지구(地區)들은 생산의 감소와 대중적인 실업을 겪고 있다。 다른 서구라파 제국가와 마찬가지로 점점더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영국인민은 아주 비참하게 살고있어 굶주리고 헐벗고 지하실 벽장과 같은 데서 살고있다。 그런데도 레이버당 정부는 군비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신문『데일리·메일』지 조차도 마지못하여 인정하기를『영국에서처럼 그 인민이 아주 못먹고 있는 그런나라는 적다。 식량과 공업품 소비표준량은 항상 축소되고 있다』고 하였다。

불란서의 생산수준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전수준보다 퍽낮다。 매개기업소 심지어 공업제부문에 이르기까지 미국 실업가들의 간섭의 결과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다。 프랑의 실제가격은 저락되고 식량 및 광범한 소비품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물가의 등귀와 아울러 증대되고 있는것은 자본가들의 리윤이다。 작년에 이리윤은 인민소득의 四三%에 달하였다。 불란서인민소득에 있어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의 비중은 三九%에까지 감소되었던것이다。

서구라파 제국가에 있어서의 생산의 계속적인 감퇴의 위협성은 날로 장성하고있다。 이 원인은 미국독점기업의 침략적 정책이며 미국 돈주머니의 리익을 자기나라의 리익보다 높이 내세우는 민족부르죠아지의 비애국적인 태도이다。 사실이 이렇다。 다 아는바와같이 사실만은 움직일수 없는 물건이다。 말하자면『선량한』섬 아저씨가 구라파 제인민들에게 가져오는것은 고기속을 넣은 새 만두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시장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곰팡이 가된 기름만두라는것이다。 구라파제국가에 대한 마샬안의『구조(救助)』적 작용이라는것은 망상(妄想)이며 바다저쪽 황금숭배자들이 구라파인민들에게 씌운 악질롱담인것이다。

그러면 대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것인가? 그 전망은 현재의 생활보다 더 음침한것이다。 공적부르죠아 기관들도 이를 은폐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보도부는 다음과같이 예고하고있다。

『앞으로 五년 내지 十년동안에 걸쳐서 기대하여야만될 구라파의 경제개선도 구라파의 주되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기는 아주 글렀다。

대다수 구라파인민이 헤매고있는 가혹한 빈궁은 생산기술에 있어서의 완전한 변혁의 결과로써만 청산될수있다』

생산기술에 있어서의『구조(救助)』적 변혁은 보고의 필자들이 이를 요구하고 있는바와같이 미국자본의 방조하에서 실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전후에 쏘베트동맹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는 아주 전연 다른 광경이 관측되고 있다。 다 아는 바와같이 이 전쟁에서 가장 커다란 손실을 입은 쏘련의 인민경제는 전쟁이 가져온 상처를 성과적으로 치유하고 있으며 지금 강력한 경제적 륭성기에 처하여있다。 중구라파 및 동구라파 제국가에서는 인민경제부흥발전사업에 있어서 대성과들이 나타나고있다。 이를테면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업생산은 一九四八년에 一九三七년의 수준을 一〇%초과하였으며、파란에서 공업생산품은 一九三八년때보다 五一%나 더 증가되였으며、불가리아에서는

공업생산이 전전수준의 七一%나 초과되어 생산기재생산은 一九三九년때 보다 二·五배로, 광범한 소비품은 一배반으로 생산되였다. 항가리에서는 三개년계획이 초과수행 되였으며 공업생산품 용적은 전전보다 二七%가 초과되였다. 루마니아에서 선철 및 강철의 정련(精錬)은 一九三八년의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였으며 석유정채굴(石油井採掘)은 전전지수의 五배로 초과하였다.

이 여러나라에서의 농업생산도 급속히 제고되고 있다. 파란, 항가리, 불가리아 및 루마니야는 자기의 농업산품의 一부를 수출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의 경제부흥의 제, 성과에 관한 자료를 및 서구라파자본주의 제국가에서의 경제의 위기적 발전은 그 자체들이 말하고 있는바이다. 여기서 부언하여야만 할것은 부르조아 제국가와는 비견(比肩)할수 없이 인민민주주의 제국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부단히 장성하고 있으며 농업이 절부하다는것이다. 로동농민이 부족한 감이 있는것이다. 파란에서는 로동자들의 수가 농업로동자들을 산 하지 않고도 一九三八년의 二七〇만으로부터 一九四八년에는 三五〇만으로 증가되었다. 사회적 제반 개혁의 길로 나선 다른 제국가에서도 로동자 및 사무원의 수가 三%나 증대되고 있다. 이 여러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부흥에 따라 근로자들의 로동임금이 장서하고 있다. 이렇듯 파란에서는 월평균 로동임금은 작년 一월의 一만二천九백즐로티이에서 금년 一월에는 一만九천三백즐로티이로 증대되었으며 자본주의에서 물려받은 주택문제는 서저적으로 해결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보건 교육 및 문제는 개선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은 장성하고 있다. 체꼬슬로바키아 예산속에는 사회보험에 대할 국가지출이 一六억크론, 보건이 三八억크론, 학교사업비가 一五억크론이 각각 증가될것이 예견되어 있다.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도 파란예산속에서 지출의 二二%가 교육의 발전에, 一〇·五%는 사회보험 및 보건에 돌려지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전체국가에서는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실질로동임금이 계속적으로 장성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성과들은 오제 쏘베트동맹과의 긴밀한 호상경제협조의 결과로써만 가능하여진것이다. 이 나라들은 생산과잉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파란은 六개년 계획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되는 과업은 사회주의 제기초의 건설에 있는것이다. 공업산품의 년년의 증가는 一년에 一一%—一二%나 되고 있다. 이 결과로 一九五五년까지에 공업은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생산품을 八五%—九〇%나 더 증가시킬것이다. 즉 유색금속이 발전되며 장철정련은 전전시기에 비하여 거의 二배로 장성하며 금속가공 및 기계전조공업은 산품을 二·五배로 증가시킬것이다. 또한 커다란 화학공업이 창설될것이며 전력 생산은 금년에 비하여 二배이상으로 증대될것이며 약 三五〇개소의 대공업기업소의 건설이 목표로 되어있다. 그리고 파란프로레타리아로의 영예로운 혁명적 전통의 모시이며 一대공업중심지인 와르사와는 복구될것이다. 농업은 五—六만대의 뜨랙토르와 수많은 자동차를 받게 될나. 농업생산고는 六년동안에 三五—

四五%가 장서할것이다. 근로자들의 평균생활수준은 六개년계획말까지에 금년수준에 비하여는五五%—六〇%, 전전생활수준에 비하여서는 약 배나 더향상하게된다. 六개년계획기간에 九〇만명 이상의 로동자들에 대하여 숙련기술자격이 교부되며 一〇만명에 이르는 기수와 수공정의 기사가 또 양성되게 되어있다.

항가리의 五개년계획은 농공(農工)국가로부터 공농(工農)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五개년동안에 약 三五〇억포린트가 인민경제에 루자될것인바 그중 一七〇억포린트는 공업에, 六〇억 포린트는 농업에 루자되며 사회—문화적 수요에는 三五억포린트, 주택건축에는 二五억포린트가 지출될것이다. 一九五四년에 있어서의 인민소득은 一九四九년의 이 나라 인민소득보다 一六〇%나 더 초과하게될것이다. 항가리—농업의 락후성은 청산되며 농업생산성은 제고되고 있다. 五개년계획수행말까지에 기계지정소의 수는 五〇〇개소로, 뜨락또르의 수는 二만대까지 장성하게 된다. 五개년계획설천의 결과로써 항가리—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작년수준의 一五〇%에 도달할것이다.

불가리아의 인민경제에는 앞으로 五년동안에 三、二五〇억레보가 투자될것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광대한 발전계획이 목표되고 있다.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 있어서의 중하와 전망은 이러하다. 이 인민들은 찍소리도 없이 소동도 없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자본주의적 서구라파에서 미국백만장자들은 인민들을 희생시켜 자기의 잉여이윤을 보장하 고있다.

각국에 있어서의 로동운동

로동계급의 통일은 장성강화되고 있다

영국 트레드 유니온 콩그레스, 미국산별 직업동맹 콩그레스 및 그들의 충복인 화란직업동맹의 지도자들이 국제직업련맹을 탈퇴한 때로부터 이미 四—五개월이 경과하였다. 이 반동적 직업동맹의 지도자들은 국제직업련맹을 탈퇴하면서 자기들이 탈퇴하면 국제직업련맹은 아무러한 힘도 가지지 못할것이라느니『자기의 존재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게될것』이라느니 또는 자기들을 골간으로 하여 새로운『반공산주의적』인 국제직업련맹을 창설할것이라느니하고 오만하게 성명하였었다.

그러나 현실은 분렬주의자들의 도당을 명소하고 있는것이다. 반동적 직맹지도자들이 탈퇴함으로써 그 내부가 일층 깨끗하게된 국제직업련맹은 각국근로자들의 절실한 리익을 옹호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하는 투쟁의 광범한 길에 나선것이다. 현재국제직업련맹은 六、七〇〇만명의 맹원을 가지는 六十개국 이상의 직업동맹들을 련합하고 있는바 一九四五년의 창립시보다 三〇〇만명의 맹원이 더 많은

것이다。

국제직업련맹는 자기의 활동을 모든 방면에 대하여 비상히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수백만의 각국 직업동맹 맹원들을 국제직업련맹의 주위에 결속시킬 산별부 창설준비는 다대한 성과리에 진행되고 있다。六월 에 소집되는 금속공、견직공、제화공、탄광부 및 식료품 제조공들의 창립대회에는 국제직업련맹에 가입되어 있는 직업동맹이나 가입되지 않은 직업동맹이나를 불문하고 모든 나라의 직업동맹들이 초대된다。그리하여 이미 오늘날 미국 및 영국의 많은 직업동맹들을 포함한 세계의 다대수의 직업동맹들이 대회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동시에 국제직업련맹은 六월二十九일에 이태리 미라노에서 열리게될 제二차 국제직업동맹대회를 준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그런데 제二차 국제직업동맹대회는 자본주의의 착취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화를 위하는 투쟁에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단결시킴에 있어 결정적 역활을 놀게될것이다。

국제직업련맹은 평회옹호 세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현재에 있어서는 평화와 인민들간의 친선의 기치밑에 수백만 근로자들을 단결시키는 광범한 활동을 전개하고있다。

지나간 수개월동안에 국제직업련맹은 많은 대륙의 로동자들속에 특히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아세아 및 아프리카등의 로동자 대중속에 자기의 영향을 비상히 확대시켰다。국제직업련맹대렬에는 독일、일본、칠리、샤므、루니스 및 기타 국가들의 새로운 수백만의 맹원들이 들어왔다。영국 및 미국에 있어서도 반동적 직업동맹지도자들의 분렬적 활동은 수많은 보통 직업동맹맹원들 측으로부터의 힘있는 공격을 야기하고 있다。이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인용하는 사실이 두엇보다도 웅변적일것이다。즉 五월十九일의 미국 산별 직업동맹 콩그레스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十一명의 집행위원들이 국제직업련맹으로부터 탈퇴할데 대한 결정을 반대하여 투표하였다。이 十一명의 집행위원들은 커다란 직업동맹의 대표자들인바 커다란 직업동맹이란 광산로동자직맹、서부해안로동자직맹、농기구생산로동자직맹、제혁로동자 직맹、체신로동자직맹、연초공업로동자직맹、국가사무원직맹 및 기타이다。六十만명의 맹원을 가지고있는 전기공직업동맹도 국제직업련맹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였다。

분렬주의자들의 고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국제직업련맹의 통일을 분렬시키며는 기도가 파산되자 로동운동에 있어서의 월가와 씨티가의 앞잡이들은 새로운 책동들과 음모들을 꾸미게 되였다。이 책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직업련맹의 영향을 전복시키며 약간의 직맹을 국제직업련맹으로부터 분렬시키는데 있는것이다。

영미의 직업동맹 관료주의자들은 자기국가 내부에 있어서의 좌익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직맹운동자들을 반대하는 공세를 개시하였다。영국 트레드 유니온 콩그레스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 국제직업련맹에 『동정을 가지고 있는』 몇개 대 직업단체들을 콩그레스로부터 제외할데 관하여 성명하였다。지낀—쥬쏜과 교는 바다건너편의 메레야—께리의 반역적도당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는것이다。현재 진행중인 미국 산별직업동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위원회 위원장 메레야는 국제직업련맹으로부터의 탈퇴를 반대하는 직업동맹을 위협하였으며 욕설하였다。메레야의 압박밑에서 집행위원회는 침략적인 북대서양조약을 승인하였고 동시에 직업동맹내부의 좌익적 지도자들의 퇴직을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동결정에는 만일 좌익적 직맹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직위로부터 떠나는것을 기부하게되는 경우에는 미국 산별 직업동맹의 대렬로부터 제명될것이라고 씌어있다。이와 같은 결정은 례를들면 식료품 및 연초공업직맹지도자인 헨데르손에게 선참으로 적용되였다。그런데 헨데르손은 평화옹호세계대회 파리대회에 참가하였으며 국제직업련맹이 소집하는 식료품 제조로동자들의 산별부 창립대회에 참가할것으로 예정되어 있는것이다。미국 산별직업동맹 콩그레스의 반동적 지도부는 『온순히 복종하지 않는』 직업동맹들의 지도적 활동가들을 고립시키며 또는 면직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다。

아쓰세이제트•프레스 통신사가 전하는바에 의하면 메레야와 그의 도당들은 미국 로동련맹지도자들과의 완전한 합의밑에서 행동하고 있다。미국 로동련맹지도자들은 미국의 직업동맹운동을 자본주의적 독점과 재 세계대전의 방화자들의 리익에 완전히 복종시키며 한때 진보적이던 미국산별직업동맹을『독점』하려 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동안의 여러가지 사건들은 반동적 직업동맹들의『서부뿔럭』에서 지도적 역량으로는 미국의 극단한 제국주의 그루빠의 도구인 미국로동련맹의 지도부가 로골적으로 서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였다。

미국 로동련맹 지도자들은 윌—스트리트의 지시밑에서 한걸음 한걸음 직맹분렬주의자들의 진영에 있어서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반공산주의적』 직업동맹뿔럭을 지도한다는 미국 산별 직업동맹뿐만 아니라 영국트레드 유니온 총평의회도 점차적으로 알음(軋普)은 내면서도 미국로동련맹 그의 지도적 도당인 그린—두빈쓰끼—부라운의 압박에 굴복하고 있다。그리하여 미국의 반동적 출판물들이 미국 산별 직업동맹 집행위원회의 상기한 결정과 미국로동련맹과 미국 산별직업동맹의 지도부의 협력을 평장하게 [illegible]폐한것도 결코 우연한일이 아닌것이다。『뉴욕타임쓰』지는 쓰기를『이것은 직업동맹전선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약속하는 좋은 전조이다』라고 하였다。

영미 분렬주의자들은 국제직업련맹의 대렬에 있는 마샬안화한 구라파제국가의 직업동맹들에 대하여서도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지낀—메레야 및 교의 직접적인 압력밑에서 놀웨이 직업동맹 서기장은 자기 직업동맹 맹원들과의 협의도 하지않고 국제직업련맹으로부터의 탈퇴를 성명하였다。이와같은 결정을 백이의 직업련맹 지도부도 채택하였다。그런데 백이의 직업련맹 지도부는 탄광부들의 직업동맹을 포함한 五개의 대 직업동맹들이 국제직업련맹을 결정적으로 옹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채택한것이다。그린—지낀—메레야와 서전 및 정말직업동맹의 지도자들은 이곳의 직업동맹 맹원들이 국제로동운동의 통일

을 옹호하여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맹을 분렬의 길로 떠밀고 있는것이다。

영 미 직업동맹 지도자들은 자기의 분렬적 소굴을 창설하기 위하여 강요 협박 및 직업동맹운동내에 있어 동요하는 。분자들을 매수하는등의 모든 수단을 다 리용하고있다。그네들은 최근 례를들면 소위 아세아 로동련맹을 조직하는 기도를 취하였었다。그러나 인도네(인도)에 소집되었던 이 소위『련맹』창립대회 준비위원회에는 단지 二명의 이란직업동맹(정부의 지지를 받고있는 직맹) 대표와 서부 파키스탄으로부터 三명의 대표가 도착하였을 따름이다。회의는 크게 실패하였다。아세아제국—인도, 마래, 세이론 및 기타—의 직업동맹들은 분렬주의자들의 흑심한 정치적 메로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로동계급의 통일을 위하여 견고히 서있으며 제국주의와 그의 사회개량도배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분렬주의자들은 그들에 의하여 六월에 제네바에서 소집되는 회의에 적지 않은 기대를 두고있다。이 회의의 목적은 국제직업련맹에 대립되는 새로운 국제직업련맹을 형서하는데 있는것이다。이것은 로동운동의 배반자 즉 본구의 독점의 충복들의 회합일것이며 대중들속에서 자기의 위신을 상실한 지도자들의 회합일것이다。이 회의의 조직자들은 대체 누구를『련합하려고』하고있는가? (

구라파에 있어서 분렬주의자들이 지반은 비상히 협소한바 불란서 이태리 신민주주의 제국가의 직맹들은 국제직업련맹에 충실하며 그의 진 一적 목적에 충실하다。오직 한줌도 못되는 변절자들만이 즉 불란서에 있어서는 주오와 같은 자들, 서부구라파에 있어서는 타르노바, 이태리에 있어서는 빠스토로와같은 카톨릭크 직업동맹 지도자들만이 새로운『인터나쇼날』을 환영하고 있는것이다。아세아와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분렬주의자들의 지반은 최근에 미국로동련맹과 영국 트레드 유니온 총평의회의 협조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관리들과 탈퇴자들과 각종도배들이 모인 관제(官製)직업동맹 뿐인것이다。

미국로동련맹에 의하여 조작된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분렬적인『범미로동련맹』은 모든 입에 있어 실패를 맞一고 있으며 하등의 위신을 가지고 있지못하다。그러나 국제직업련맹에 가입되어있는 六백만명의 맹원을 가지고있는 라텐·아메리카로동총련맹은 그의 영향을 날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직업련맹대회와 국제직업련맹 산별부 창립대회를 열성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 및 영국의 직업동맹들도 역시 그러한바 이미 위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이곳에서 분렬주의자들의 립장은 매우 동요되고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제네바회의의 발기자들이 아주 겸손한 과업을 회의의앞에 내세운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즉 제네바회의의 발기자들이 회의앞에 제기하고 있는 과업이란 늦어도 금년 十월에는『국제 자유직업 총련맹』대회를 소집하며, 그의 규약을 작성할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자는것이다。그런데 분렬주의자들은 그들에 의하여 조작되는 반동적인 상층부를 영 미제국주의의 충복으로써 구성할것을 쟁자하고 있는것이다。

로동운동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직업동맹 분렬주의자들—이 로동자들의 국제적 통일에 대한 자기의 공헌을 중지하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는것은 극히 명백한 사실인것이다。민주주의적 직업동맹들은 로동계급의 원쑤들의 책동을 주의깊이 감시하여야 하며 그들의 파괴적 활동을 일상적으로 폭로하여야하며 그들을 대중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분리시키며 끝까지 분쇄하여야 할것이다。

이 과업들은 완전히 실시되고 있다。국제직업련맹을 반대하는『맹정』전쟁은 실패에 돌아가고있다。국제직업련맹주위에 굳게 결속된 수백만의 근로자들은 자기의 절실한 리익을 위한 투쟁에, 서 국제직업련맹을 견고한 지주로서 옳게 보고 있는것이다。국제직업련맹은 로동계급과 모든 근로자들의 근본적 리익과 평화와 민주주의의 리익의 초소에 서있는 견고불패한 유일한 국제적 조직으로써 국제직련 제二차대회를 맞이하는것이다。

자기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도의 근로자들

五월二十八—二十九 당일간에 걸쳐 인도 봄베이에서는 제三十三차 전(全) 인도직맹평의회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정부의 박해속에서 준비되였고 진행되였다。

대회개막에 앞서 전 인도직맹평의회 총비서가 체포되였고 곧 이어 봄베이 경찰장관은 대회소집을 허가하는것을 거절하였다。대회소집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성명한바와같이『대회금지는 진모적 직업동맹들의 활동을 완전히 진압하려는 정부의 기도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인도에 있어서의 진보적 직업동맹운동을 파괴하려는 기도는 비단 인도내의 반동만이 관심되고 있는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의 국제적 통일의 원쑤들도 미국로동련맹 및 영국 트레드 유니온 평의회 지도층도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이 모든 반동들의 흉악한 기도는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두엇보다도 먼저 인도에 있어서의 진보적 직업동맹운동이 인도의 로동운동을 분렬하려는 반동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커다란 존재이라는것으로 설명할수 있는것이다。

전 인도직맹평의회는 이미 一九一九—一九二〇년의 민족해방운동이 한참 앙양되었을때에 발생하였다。전 인도직맹평의회의 력사는 자기의 경제적 리익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의 민족해방을 위한 인도로동계급의 장기간에 걸치는 용감한 투쟁의 력사인것이다。

국제직업련맹에 가입하면서 자기의 성원가운데서 소수의 개량주의적 요소들을 완전히 청산한 전 인도직맹 평의회는 인도에 있어 가장 대중적인 직업동맹 단체로 되었다。전 인도직맹평의회는 다수의 조직된 인도의 로동계급을 단결시키고 있다。작년 一월에 즉 평의회대회의 개막 직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 인도직맹평의회는 자기의 산하에 八四만九천명의 맹원을 가지는 八一一개의 직업동맹들을 가지고 있다。

그때로부터 전 인도직맹평의회의 영향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과 민주주의적 권리에대한 영국독점자본과 토착자본의 공세에서 폭발된 파업운동의 급격한 장성과 관련하여 확대되었다。

전 인도 직맹평의회는 一九四七—一九四八년의 파업운동의 선두에 섰다。 一九四七년말과 一九四八년 전반년(前半年)에 있어서의 파업의 총건수는 一、八一一건인바 이에는 一八四만명 이상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一九四八년 후반년에 있어서는 파업운동이 더욱더 광범하게 전개되었었다。 파업과 시위는 때때로 헌병 및 군대와의 가혹하며 류혈적인 충돌로 변하였다。

광범한 근로자들 가운데서 비상히 인기가있는 전 인도 직맹평의회는 인도의 민족적 리익을 파아 먹는 부르죠아 민족주의도배들의 증오를 받고 있으며 인도에 자기의 분렬적 활동의 토대를 설치하려는 영 미 직업동맹지도자들의 증오를 받고 있다。 이리하여 一九四八년 중엽부터 전 인도 직맹평의회는 련속적인 경찰탄압을 받고 있는것이다。 작년 여름에 국제직업련맹 집행위원회 위원이며 전 인도직맹평의회 위원장 단그가 체포되었다。 단그에 이어 전 인도 직맹평의회 부위원장 유스후 미라드지카르 및 기타의 인도직맹운동의 지도적 활동가들이 체포되었다。 一九四八년九월에 국제직업련맹집행국에 제출된 보고에는 一九四八년 四월부터 九월까지에 一、〇〇〇명 이상의 직업동맹활동가들이 체포되었고 많은 전 인도직맹평의회 지부들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테로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 인도직맹평의회는 자기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중속에서의 그의 위신과 영향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때에 반동적 도배들은 영 미 분렬주의자들의 협조밑에서 직업동맹 운동을 분렬하며 전 인도 직맹평의회의 영향을 전복시키려는 책동들을 취하였었다。

一九四八년 여름에 내무대신의 비호밑에서 『인도민족 직맹평의회』라고 광장하게 불리우는 분렬적이며 파업 파괴자적인 『직업련맹』이 창설되였었다。 즈바또브 형태의 이 직업동맹은 공업가동맹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는것이며 이것은 내무대신 파—텔도 인정하였다。 최근 이 분렬적인 단체의 금고에는 미국로동련맹의 악명높은 특사 이르빈그 부라운의 과분(過分)한 장려금이 들어갔다。

『인도 민족직맹평의회』는 국민당국과 기업주들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특권과 광범한 물질적 가능성도 아무러한 소용이 없는것이다。 이 파업 파괴적 단체는자기의 대렬에 정부사무원 및 로동자들의 몇몇부문만을 단결하면서 겨우 자기의 존재를 보지하고 있는것이다。

인도에 있어서의 미국로동련맹의 기반이 박약한 영향에 관하여서는 최근 진행되었던 소위 인도민족직맹평의회 대회의 총결이 증명하여주고 있다。 대회는 안드로에서 소집되었으며 그곳에는 미국로동련맹의 특별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대회는 아주 가여운 환경속에서, 대중과 절연된 환경속에서 진행되었다。 대회 대표자들은 도시 교외의 로동자들을 방문하는것을 겁내했다。 대회사업이 진행된 건물은 헌병들의 대대에 의하여 호위되었었다。 대회는 로동자대중이 관심두고있는 어떤 한가지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경찰테로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국제로동운동과 국제직업련맹과 형제적으로 련결되어있는 인도의 진보적 직업동맹운동은 계속 존재할것이며 로동계급의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투쟁할것이다。

一九四九년六월二十五일 인쇄
一九四九년六월三十일 발행

「근로자」 제十二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 집 인 김 성 용
인 쇄 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 행 소 로 동 신 문 사
인 쇄 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근로자」 편집국 전화 주필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二(二〇번)

제ㄱ—13243